

QA시스템  
聖經研究  
시리즈  
38  
스가랴

기독교지혜사

성서연구원

BIBLE RESEARCH GROUP

# 스 가 라

## Zechariah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돌아  
나서 여호와와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와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위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위에 있으리니 이 두 사이에 평  
화의 의논이 있으리라(6:12, 13)

וְאָמַרְתָּ אֵלָיו לֵאמֹר כֹּה אָמַר יְהוָה צְבָאוֹת לֵאמֹר הִנֵּה־  
אִישׁ צִמְחָה שָׁמוֹ וּמִתְחַתָּיו יִצְמָח וּבְנָה אֶת־הַיְכָל יְהוָה :  
וְהוּא יִבְנֶה אֶת־הַיְכָל יְהוָה וְהוּא יֵשֵׁא הוֹד וְיָשֵׁב וּמֹשֵׁל  
עַל־כֶּסֶׁאֹ וְהָיָה כְּמֶן עַל־כֶּסֶׁאֹ וְעִצַּת שְׁלוֹם תִּהְיֶה בֵּין  
שְׁנֵיהֶם :

## 스가라 차례

스가라 서론 .....	〈10제〉	465
제 1 장 이스라엘에 대한 회개의 촉구와 두 환상 .....	〈25제〉	468
제 2 장 척량하는 자의 환상과 택함 받은 예루살렘 .....	〈19제〉	475
제 3 장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약속의 말씀을 받다 .....	〈21제〉	480
제 4 장 두 감람나무와 함께 있는 순금 등대의 환상 .....	〈17제〉	485
제 5 장 날아가는 두루마리와 여인의 환상 .....	〈13제〉	490
제 6 장 네 병거의 환상과 면류관을 쓴 대제사장 여호수아 .....	〈17제〉	494
제 7 장 금식에 관한 교훈 .....	〈12제〉	499
제 8 장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회복을 약속하시다 .....	〈21제〉	503
제 9 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약속하시다 .....	〈23제〉	509
제 10 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시다 .....	〈23제〉	515
제 11 장 참 목자와 거짓 목자 .....	〈19제〉	520
제 12 장 이스라엘의 승리와 회개 .....	〈19제〉	525
제 13 장 이스라엘을 연단하시는 하나님 .....	〈15제〉	530
제 14 장 메시아께서 예루살렘을 통치하시리라 .....	〈25제〉	535

## 스가라 특별 자료 차례

스가라 서론 〈연구 자료〉	스가라와 이사야의 메시아 예언에 대한 기록의 비교 .....	467
제 1 장 〈화보 자료〉	환상을 보고 있는 스가라 .....	474
제 2 장 〈연구 자료〉	성경이 금하는 주술 행위 .....	479
제 3 장 〈연구 자료〉	구약에 언급된 사단 .....	484
제 4 장 〈본장의 요절〉	.....	489
제 5 장 〈연구 자료〉	두루마리 .....	493
제 6 장 〈화보 자료〉	정교하게 양각(陽刻)된 말과 병거 .....	498
제 7 장 〈연구 자료〉	구약에 언급된 과부, 고아, 나그네 .....	502
제 8 장 〈본장의 요절〉	.....	508
제 9 장 〈연구 자료〉	구약의 남은 자 사상 .....	514
제 11 장 〈본장의 요절〉	.....	524
제 12 장 〈연구 자료〉	지진 .....	529
제 13 장 〈화보 자료〉	요단 강에서 몸을 씻고 있는 나아만 .....	534
제 14 장 〈화보 자료〉	사람의 뼈 .....	541
제 14 장 〈연구 자료〉	선지서에 언급된 여호와와 날 .....	542

# 스가라 서론

## 1. ㉠ 본서의 저자는 누구인가?

㉡ (1) 본서의 저자는 스가라이다.

(2)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선지자 스가라에게 임했으며 (1:1, 7; 4:8; 6:9; 7:8; 8:18 등), 스가라가 자신을 1인칭인 '내가'로 칭했기 때문이다 (1:8, 9, 14, 18; 2:1 등).

(3) 스가라라는 이름은 유대 사회에서 매우 흔한 이름이다. 그리고 구약에는 스가라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 29명 나오는데 본서의 저자는 잇도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인 스가라이다 (1:1).

(4) 그는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으며 (참조, 느 12:1-4), 어릴 때에 선지자의 사명을 받았고 (2:4), 학개와 같은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였다.

(5) 스가라의 가족은 비벨론의 고레스 왕 (Cyrus II) 치하에서 1차로 귀환할 때 (B. C. 537) 귀국한 것 같다. 왜냐하면 스가라가 예언을 선포한 때는 1차 귀환 이후 18년이 지난 해임이 분명하고 (참조, 1:1; 대하 36:22), 또한 그를 '소년'으로 명시한 것 (2:4)을 보아 스가라가 어렸을 때 귀국한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 2. ㉠ 본서의 명칭에 대하여 설명하라.

㉡ (1) 본서의 명칭은 그 저자의 이름을 따라 '스가라'서 (書)로 정해졌다.

(2) '스가라'라는 명칭은 '여호와를 기억함' 혹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시는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 3. ㉠ 본서가 기록된 시기는 언제인가?

㉡ (1) 본서에는 본서의 기록 시기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없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확실히 언급되어 있는 스가라의 활동 시기를 본서의 저작 시기로 보고 있다.

(2) 즉 스가라가 예언을 처음 선포한 때는 다리오 왕 (Darius I) 2년 8월 (B. C. 520, 1:1)이었으며 그는 이때부터 다리오 왕 4년 9월 (B. C. 518, 7:1)까지 만 2년에 걸쳐 예언 활동을 했다.

(3) 그러므로 본서의 기록 연대는 B. C. 520-518년경으로 추정할 수 있다.

## 4. ㉠ 본서의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라.

㉡ (1) 본서의 예언은 유다가 바벨론에 포로되어 70년을 보낸 후 바사 왕 고레스의 조서에 의해 본국으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무리들의 행동에 의해 일시 중단되었으나, 다리오 왕으로 왕권이 교체된 후 다시 성전 재건이 독려되는 시기에 선포되었다.

(2) 즉 B. C. 538년 바사 왕 고레스는 유다 포로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해도 좋다는 조서를 내렸다 (대하 36:22, 23; 스 1:1-4).

(3) 이 조서에 따라 스룹바벨과 느헤미야와 예수아와 그 외에 다른 지도자들은 (스 2:2) 약 5만 명의 백성들과 노예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와 (스 2:64-67) 고레스 왕 2년 2월 (B. C. 536, 스 3:8)에 성전 건축의 기초를 놓았다 (스 3:11-13).

(4) 그러나 이 성전 재건은 사마리아와 주변 민족들의 악의적인 고소 (告訴)로 인해 (스 4:11-16) 약 16년 동안 (참조, 스 3:8; 4:5) 중단되었다.

(5) 성전 재건이 중단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흔들리게 되었고 건축이 중단된 이유

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이라 생각하게 되었다.

- (6) 그래서 스가랴는 학개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적 태도를 깨우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 (7) 그 후 다리오 왕이 새로 즉위하여 (B. C. 522) 성전 재건을 허락하자 다리오 왕 2년부터 성전 재건이 시작되었다(학 1:15).

5. **㉠** 본서의 중심 내용은 무엇인가?

- ㉠** (1) 본서의 주요 내용은 성전 재건의 중단으로 인하여 혼돈과 분열에 빠지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성전 재건을 통하여 당면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다.
- (2) 즉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수세기 동안 하나님께 대한 예배와 민족적 축제의 장소로 사용되면서 그들의 정신적 지주로서의 큰 역할을 담당하였다.
- (3) 그래서 스가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혼돈과 분열을 막으려면 반드시 성전 재건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또한 성전을 재건하게 되면 분열이 그치고 영적 생활이 다시 부흥되리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이를 성취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6. **㉠** 본서에 나타난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을 설명하라.

- ㉠** (1) 스가랴는 이사야를 제외한 그 어떤 선지자들보다 메시아에 대해서 많은 예언을 남겼다.
- (2) 이처럼 본서에는 메시아 대망(待望) 사상이 아주 풍부하고도 선명하게 묘사되고 있기 때문에 본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기억되고 있다.
- (3) 본서에 나타난 메시아의 예언은 그의 초림(初臨)과 재림(再臨)에 관한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초림에 관한 예언은 3:8;9:9,10;11:11-13;12:10;13:1,6 등에 기록되어 있으며, 재림에 대한 예언은 6:12;14:1-21 등에 기록되어 있다.
- (4) 본서는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묘사하고 있는데, 첫째는 여호와께서 보내신 천한 중, 즉 순(筭, 3:8)으로, 둘째는 성전을 건축하는 제사장과 왕(6:13)으로, 세째는 온유와 화평으로 그의 왕국을 건설하는 자(9:9,10)로, 네째는 거절당하고 배신당하여 팔리는 자(11:11-14)로, 다섯째는 구원자(13:9)로 오실 것을 말하고 있다.

7. **㉠** 본서의 문학적 특징을 말하라.

- ㉠** (1) 본서의 문체는 표현 방법에 있어서 간결한 회화체 산문을 사용하기도 하고 시적인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 (2) 그런데 이 산문 형식은 에스겔서와 비슷한 것으로, 획일적이고 산만하며 반복적인 것이 그 특징이다. 또한 본서의 시적인 표현은 풍부한 상징 어법으로 구사되기도 하고 직접 어법으로 구사되기도 한다.
- (3) 한편 스가랴서의 예언에는 다른 선지자들보다 고상하고 위엄있는 표현이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반면에 거친 운율이 나타나며 히브리 시(詩)의 아름다움인 균형미와 완결미가 결여되어 있다.

8. **㉠** 본서는 내용에 따라 몇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가?

- ㉠** (1) 본서는 내용에 따라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 (2) 첫째는 서론(1:1-6)으로 여호와와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징벌받은 조상들을 예로 들어 경고(1,2절)하는 중에 조상들과 같은 죄를 피하도록 권면(3,4절)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도록 촉구(5,6절)하고 있다.
- (3) 둘째는 스가랴가 본 아홉 가지 환상(1:7-6:15)이다. 이 환상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장래에 대한 예언적 내용이지만 오늘날 성도의 장래에도 적용된다.
- (4) 세째는 금식에 관한 교훈(7:1-23)으로 하나님께서는 형식적인 금식보다 당신께 대한 순종을 더 기뻐하신다는 것이다.
- (5) 네째는 미래에 대한 경고(9:1-14:21)로 전반부의 경고(9:1-11:17)와 후반부의 경고

(12:1-14:21)로 나눌 수 있다.

9. **㉠** 본서의 대지를 구분하라.

- ㉡** (1) 회개의 경고 / 1:1-6
- (2) 스가라의 환상들 / 1:7-6:15
- ① 말들과 말 탄 자들의 환상 / 1:7-17
  - ② 네 뿔과 네 공장(工匠)들의 환상 / 1:18-21
  - ③ 척량하는 자의 환상 / 2:1-13
  - ④ 여호수아와 대제사장의 환상 / 3:1-10
  - ⑤ 순금 등대의 환상 / 4:1-14
  - ⑥ 날아가는 두루마리의 환상 / 5:1-4
  - ⑦ 에바 안에 앉은 여인의 환상 / 5:5-11
  - ⑧ 네 병거의 환상 / 6:1-8
  - ⑨ 여호수아의 면류관 / 6:9-15
- (3) 금식에 관한 질문들 / 7:1-8:23
- ① 금식 / 7:1-3
  - ② 백성들의 위선 / 7:4-14
  - ③ 예루살렘의 장래 / 8:1-23
- (4) 미래에 대한 경고 / 9:1-14:21
- ① 첫번째 경고 / 9:1-11:17
  - ② 두번째 경고 / 12:1-14:21

9. **㉢** 본서의 요절을 말하라.

- ㉡**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돌아나서 여호와와 집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와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위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위에 있으리니 이 두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6:12, 13).

**연구자료**

스가라와 이사야의 메시아 예언에 대한 기록의 비교

성경	예언 성구		예언 내용
스가라	인격	3:8;9:9, 10	겸손하심, 온유하심
	사역	6:13;11:11-14; 12:10;13:9	대제사장, 선지자, 왕, 구속자
이사야	인격	11:2-5;42:2-4, 6; 53:4, 7, 9-12	지혜로우심, 의로우심, 온유하심, 순결하심, 대신 고난 당하심, 존귀하심
	사역	9:2;11:3, 4;42:4, 7; 53:4-6, 12	심판자, 입법자, 자유케 하는 자, 중보자, 구세주

# 제 1 장 이스라엘에 대한 회개의 촉구와 두 환상

단락구분 1 스가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다 / 2-6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다 / 7-13 화석류나무 사이에 선 말 된 자의 환상 / 14-17 예루살렘에 대한 위로와 약속 / 18-21 네 불과 네 공장(工匠)의 환상

1 다리오 왕 이 년 팔 월에 여호와의 말씀이 잇도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2 나 여호와가 무리의 열조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3 그러므로 너는 무리에게 고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4 너희 열조를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실을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않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5 너희 열조가 어디 있느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6 내가 종 선지자들에게 명한 내 말과 내 전례들이 어찌 네 열조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다고 하셨느니라 하라

7 다리오 왕 이 년 십 일 월 곧 스باط 월 이십사 일에 잇도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니라

8 내가 밤에 보니 사람이 홍마를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홍마와 자마와 백마가 있기로

9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네게 보리라 하매

10 화석류나무 사이에 선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11 그들이 화석류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사자에게 고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여 정온하더이다

12 여호와와 사자가 용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공허히 여기지 아니하시려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칠십 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13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되라

14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15 안일한 열국을 심히 진노하니 나는 조금만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16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공허히 여기므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치어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17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안위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셨다 하라

18 내가 눈을 들어 본즉 네 뿐이 보이기로

19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이까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헤친 뿐이니라

20 때에 여호와께서 공장 네 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21 내가 가로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매 대답하여 가라사대 그 뿔들이 유다를 헤쳐서 사람으로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매 이 공장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르게 하고 이전에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헤친 열국의 뿔을 떨어치려 하느니라 하시되라

- A** (1) 본장에는 본서 전체의 예언이 선지자 스가라에게 임한 말씀임을 선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 대해 축복을 약속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 (2)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므로 징계를 받아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던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하시고, 그와 더불어 그들에게 사랑과 축복의 약속을 주셨다.
- (3)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잘못할 때 징계와 권고를 통해 깨우쳐 주심으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2. Q 스가라에게 여호와와 말씀이 임한 때는 언제인가? (1절)**

- A** (1) 다리오 왕(Darius I) 2년(B.C. 520) 8월(태양력 10, 11월경)이다.
- (2) 다리오 왕(B.C. 522-485)은 즉위 후 유대인들이 성전 재건을 완성하도록 격려했다.
- (3) 즉 그는 고레스 왕(Cyrus II B.C. 558-529)이 조서를 내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성전을 재건하도록 한 것(참조, 대하 36:22, 23)을 그대로 인정하여 방해자들에 의해 중단되었던 성전 재건을 할 수 있도록 했다.

**3. Q 스가라의 직책은 무엇인가? (1절)**

- A** (1) 그는 제사장 가문 출신의 선지자였다(참조, 느 12:1-4).
- (2) 선지자란 '예언자'라는 말과 같은 뜻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 뜻과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자를 가리킨다.
- (3) 스가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이후 활동한 선지자였는데 그와 같은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들로는 학개, 말라기 등이 있었다.

**4. Q 여호와께서는 누구에 대해 진노하셨는가? (2절)**

- A** (1)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열조, 즉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에 대해 진노하셨다.
- (2)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왕상 3:14)을 어기고 많은 우상들을 세우고(왕하 23:13) 하나님을 멀리하므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했다(왕하 25:6-12; 렘 25:9-11).
- (3) 이처럼 하나님의 진노는 당신의 약속을 저버리거나 율법을 어긴 개인이나 민족에게 내리는데 주로 당신께서 택하신 백성에게 거족적(學族的)으로 임한다(참조, 민 21:4-6; 삼하 24:10-17).
- (4) 또한 하나님의 진노는 죄를 범한 자의 후손 3, 4대(代)까지 미치며(출 34:7; 신 5:9) 그 도구로 재앙이나(삼하 24:10-17) 다른 이방 민족들을 사용하셔서 징계하시기도 하신다(사 10:5; 13:4, 5; 렘 50:24-27, 41-43).
- (5) 이와 같이 무섭고 다양한 방법으로 내리시는 하나님의 진노는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서운 진노를 발하시기 전에 그분의 말씀과 뜻에 순종해야만 한다.

**5. Q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신 것은 무엇인가? (3절)**

- A** (1)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고 요구하셨다.
- (2) 이처럼 말씀하신 까닭은 배교(背敎)를 일삼던 백성들에게 그 생활을 청산하게 하고 건덕(建德)을 행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 (3) 그것은 확고한 도덕적 기반 위에 그 사회가 건설되어지는 것이 외형적인 성전 재건에 우선하기 때문이다(7:8-10; 8:16, 17, 19).
- (4)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내게로 돌아오라'고 요구하신다. 비록 우리의 몸은 교회에 속하여 있지만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나 있다면 속히 돌이켜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과 생활 가운데 모셔야 할 것이다(눅 15:11-23).



6. **㉠**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에 대한 당신의 약속은 무엇인가? (3절)
- ㉠** (1)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당신께 돌아온다면 그들에게로 돌아가시겠다는 약속을 하셨다.  
 (2) 이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조가 하나님께 범죄하므로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으며, 또한 후손들이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화해하시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3) 그리고 이 화해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즉각 받아 주시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무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어도 그가 돌이킬 때에 그 관계는 즉시 회복되어질 것이다.
7. **㉠**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본받지 말라고 하신 선조들의 잘못은 무엇인가? (4절)
- ㉠** (1) 이스라엘의 선조들은 악한 길, 악한 행실로부터 떠나서 돌아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  
 (2)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본받지 말라 하신 것은 그 선조들이 저지른 완고함과 패역함, 마음속의 부정직함과 하나님께 대한 불충성(시 78:8)을 가리키며 또한 그 선조들이 행한 우상 숭배(렘 44:17)를 가리킨다.  
 (3) 하나님께서는 비록 이스라엘의 선조들은 하나님을 떠나므로 징계를 받았지만(2절) 이제라도 그 백성들이 선조들의 잘못된 것을 본받지 않고 말씀에 순종한다면 다시 축복을 내려 주시겠다는 것을 약속하셨다(3절).
8. **㉠**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이스라엘 선조는 어떻게 되었는가? (5절)
- ㉠** (1) 이스라엘의 선조는 모두 죽고 말았다.  
 (2) 그들이 선지자들의 외치는 말씀에 순종하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히 멸망하게 되었던 것이다(B. C. 586, 왕하 25:6-12; 렘 25:9-11).  
 (3) 이와 같이 우리가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결과로 죽음만이 초래될 것이 분명하다.
9. **㉠**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다시 임한 때는 언제인가? (7절)
- ㉠** (1) 다리오 왕 2년(B. C. 520) 11월 곧 스باط 월 24일이었다.  
 (2) 유대인은 예배 절기 산출을 위한 종교력과 행정, 일상 생활을 위한 민간력을 사용하였는데 바벨론 포로 시대 이후에는 바벨론식 이름을 갖게 되었다.  
 (3) 한편 이스라엘의 종교력과 민간력에 관한 바벨론식 이름은 다음과 같다.

종교력	민간력	바벨론식 새 이름	가나안식 옛 이름	양력	절기
제 7 월	제 1 월	디스리 월	에다님 월(왕상 8:2)	9, 10월	나팔절 / 초막절
제 8 월	제 2 월	말케스 반 월	불 월(왕상 6:38)	10, 11"	
제 9 월	제 3 월	기슬르 월(느 1:1)		11, 12"	수전절
제 10월	제 4 월	데벳 월(에 2:16)		12, 1"	
제 11월	제 5 월	스باط 월(숙 1:7)		1, 2"	
제 12월	제 6 월	아달 월(에 3:7; 스 6:15)		2, 3"	부림절
제 1 월	제 7 월	니산 월(느 2:1; 에 3:7)	아빔 월(출 13:4; 23:15)	3, 4"	유월절 / 무교절
제 2 월	제 8 월	이야르 월	시브 월(왕상 6:1, 37)	4, 5"	
제 3 월	제 9 월	시완 월(에 8:9)		5, 6"	칠칠절 (오순절)
제 4 월	제 10월	담무스 월		6, 7"	

제 5 월	제11월	압 월		7, 8월
제 6 월	제12월	엘룰 월(느 6:15)		8, 9"

10. **㉠** 스가랴가 이상 중에 본 사람의 모습은 어떠하였는가? (8절)

- ㉠** (1) 그는 홍마(紅馬)를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花石榴)나무 사이에 서 있었다.  
 (2) 본절에서 화석류나무 사이에 홍마를 타고 선 사람은 하나님의 사자였다(참조, 11절). 이 하나님의 사자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Thomas V. Moore) 여기서는 환상 중에 나타나셨지만 신약 시대에는 육체를 입으신 실재(實在)의 인물(人物)로 이 땅에 나타나셨다.  
 (3) 또한 그는 재림의 때에 홍마를 타고 진노와 피흘림의 심판자로 오실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참조, 제 6:4).

11. **㉠** 화석류나무가 있는 곳은 어디인가? (8절)

- ㉠** (1) 화석류나무는 골짜기 속에 있었다.  
 (2) 화석류나무는 팔레스틴, 특히 갈릴리 호수 부근 지역과 사마리아, 예루살렘 근처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상록수이다.  
 (3) 이 나무는 잎에 상처를 입을 때만 향기를 풍기는데 이것은 신정 국가, 즉 교회를 상징한다.  
 (4) 왜냐하면 교회는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더 많이 나타나며, 화석류나무와 같이 겸손하고 가시가 없어야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다.  
 (5) 이와 같이 교회는 외견상 비천하고 초라하여 악한 세상에 의해 멸시를 당하지만, 세상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영광을 소유하고 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풍성한 사랑과 권세로 교회를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12. **㉠** 홍마를 탄 자의 뒤에 따르는 세 말(馬)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 (10절)

- ㉠** (1) 여호와께서 보내사 땅에 두루 다니게 하신 자들인데, '두루 다닌다'는 것은 세상을 순찰한다는 의미이다.  
 (2) 이것은 여호와께서 당신의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며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사역자들을 파견하여 교회의 유익을 증진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당신의 교회를 돌아보아 악의 세력에 의해 교회가 시험당하지 않도록 하신다.  
 (4) 그런데 땅에 두루 돌아다니는 자로서 사단과(욥 1:7) 여호와께서 보내신 천사가 있는데(6:7) 본절에서는 악을 행하려고 돌아다니는 사단이 아니라 선을 행하기 위해 돌아다니는 천사를 가리킨다.

13. **㉠** 땅에 두루 돌아다니는 후 보고한 자들은 누구인가? (11절)

- ㉠** (1) 그들은 천사들로서 홍마(紅馬)와 자마(紫馬)와 백마(白馬)로 묘사된다.  
 (2) 여기에서 말(馬)은 날쌔고 활발하며 활력(活力)있는 교회의 사역들을 상징한 것인데, 각각의 색깔은 그 사역의 다양성을 나타내 준다.  
 (3) 즉 '홍마'의 붉은색은 교회가 하는 사역들의 뜨거운 열정을 상징하고, '백마'의 흰색은 마지막 때에 교회가 승리할 것을 상징하며, '자마'의 자색은 하나님께서 교회의 뜨거운 열정과 아울러 승리하는 교회의 모습을 적절하게 조화시키시는 것을 상징한다.

14. **㉠** 땅에 두루 돌아다니는 자들의 보고 내용은 무엇인가? (11절)

- ㉠** (1) 그들은 '은 땅이 평안하여 정은(靜穩)하다'고 보고하였다.  
 (2) 이 보고의 역사적 배경을 보면 B. C. 522년 다리오 왕이 고레스 왕의 뒤를 이어 집권했을 때 바벨론에는 계속해서 반란이 일어나 예루살렘 성전 문제에 대해 신경을 쓰지

못하던 상황이었다.

- (3) 이 당시 유다는 이 반란을 계기로 하여 메시아 시대가 도래될 것으로 생각했었다. 그러나 바벨론의 반란은 진압되었고 오히려 성전의 재건이 방해를 받아(느 4:1, 2) 중단되었으며 예루살렘과 유다는 황폐된 대로 남게 되었다.
- (4)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이스라엘 민족은 실망과 좌절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
- (5) 오늘날에도 불신자가 신자들보다 더 평안하고 잘되어 가는 사실에 실망을 느끼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자기 백성들을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15. ㉠ 여호와와 사자가 기도(祈禱)한 내용은 무엇인가? (12절)

- ㉠ (1) 여호와와 사자께서는 천사들의 보고를 받은 후 하나님께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했다.
- (2)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것은 하나님의 자비로 된 일이다(참조, 대하 36:22, 23; 렘 25:12, 13). 그러나 아직도 국가적으로 어려운 일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여호와와 사자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을 위해 기도하신 것이다.
- (3)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며 그들의 형편과 사정을 감찰하실 뿐 아니라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 대신 기도해 주신다(참조, 롬 8:34; 히 7:25).

16. ㉠ 여호와께서는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 얼마 동안 노하셨는가? (12절)

- ㉠ (1) 여호와께서는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 70년 동안 노(怒)하셨다.
- (2) 그런데 여호와께서 노한 70년이란 느부갓네살 왕(Nebuchadnezzar, B. C. 605-562)에 의해 처음 포로로 잡혀갔던 B. C. 605년(단 1:1)부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린 B. C. 538년(대하 36:22, 23; 스 1:1) 까지를 말한다.
- (3) 이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되어 지낼 것이라는 예언(렘 25:11, 12)과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약속(렘 29:10)을 이루어 주신 것을 나타낸다.
- (4) 이처럼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그 어떤 어려운 일이 닥칠 때에라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어리석게 하나님을 불신하지는 말아야 한다.

17. ㉠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여 기도한 하나님의 사자에게 어떻게 대답하셨는가? (13절)

- ㉠ (1)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선한 말씀, 즉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셨다.
- (2) 이 말씀을 통해 스가랴의 예언 목적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는 데 있음을 알 수 있다.
- (3) 즉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먼저 약속의 말씀(수 23:14; 렘 29:10)을 주시고 그들의 인내와 복종을 요구하신 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주신다.
- (4) 그러므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인내와 복종의 훈련을 받아야 한다.

18. ㉠ 여호와와 질투는 누구를 위한 질투인가? (14절)

- ㉠ (1) 여호와와 질투는 예루살렘과 시온을 위한 질투였다.
- (2) 이 질투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 당신의 가장 귀한 소유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며, 열국(列國) 중에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다(8:7).
- (3)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연단하시기 위하여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지만(13:9; 사 48:10), 그 어려움 가운데는 백성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이 깃들여 있음을 알 수 있다(참조, 함 3:2; 었 2:34).

19. ㉠ 하나님께서 열국에 대해 심히 진노하시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 (15절)

- A** (1) 그것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하여 조금만 노하셨는데,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신 열국들이 힘을 내어 이스라엘에 대해 고난을 더하였기 때문이다.
- (2) 즉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방 열국을 도구로 사용(사 10:5; 렘 50:24-27, 41-43) 하셔서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시려 했는데, 이방 열국이 그들의 힘을 남용하여 이스라엘을 멸절하려고 했던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다.
- (3)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어려운 시험을 주셨지만 그 시험에 굴복하도록 버려 두지 않으시고 당신의 사랑으로 피할 길을 내셨다.
- (4)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시험을 주실 때 감당할 시험을 주시며 또한 감당치 못할 때에는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신다(참조, 고전 10:13).

**20. C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신 결과는 어떠했는가? (16절)**

- A** (1)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긍휼히 여기사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돌아오셨다.
- (2) 여기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돌아오셨다'는 표현은 겔 10:18, 19; 11:23과 대조가 된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하시며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시며 멀지 않은 장래에 성전과 예루살렘을 재건하게 될 것을 약속하신 말씀이다(참조, 렘 31:39, 40).
- (3) 이처럼 여호와와 긍휼로 인해 성전이 재건되고 나라가 부강(富強)해지는 것과 같이 우리의 삶도 여호와와 긍휼을 입을 때에 어려움 없이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

**21. C 하나님께서 성읍들과 예루살렘과 시온에 대하여 축복하신 내용은 무엇인가? (17절)**

- A** (1) 하나님께서는 성읍들을 다시 풍요롭게 하실 것이고 시온을 안위하시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실 것이라고 축복하셨다.
- (2) 여기에서 '성읍들'은 유다의 성읍들을 가리키며, '시온'은 곧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며 '예루살렘을 다시 택한다'는 것은 본래 이스라엘 백성의 선택이 취소된 상태에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일시 정지 상태에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한다.
- (3) 이런 축복의 모습은 구약에서 자주 나타나는데,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물질적 선물(참조, 민 8:19; 전 5:19)로 비유했으며 신약에서는 성령의 은사로 설명하였다(참조, 행 2:38; 엡 3:7).

**22. C 스가랴에게 보여진 환상은 무엇인가? (18, 19절)**

- A** (1) 그것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헤친 네 뿔의 환상이다.
- (2) 그런데 뿔은 힘의 상징(참조, 왕상 22:11; 렘 48:25; 암 6:13)으로 많이 쓰였는데 권력과 그 권력으로 인한 교만함을 나타내는 경우가 더 많았다(참조, 신 33:17; 시 75:14; 애 2:3; 겔 34:21 등).
- (3)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뿔이 상징하는 교만한 자를 미워하신다(잠 8:13). 그러므로 교만한 자는 결국 망하게 된다(잠 16:18; 18:12).

**23. C 스가랴에게 보여진 네 뿔의 환상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18, 19절)**

- A** (1) 그 환상은 하나님의 백성이 원수들에게 모욕당하는 모습을 나타낸다.
- (2) 여기에서 '뿔'이란 수자는 사방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모든 방향을 다 포함한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주위에는 항상 대적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 (3) 이것은 당시의 유다 상황을 잘 나타내고 있다. 즉 북쪽에는 앗수르, 바벨론 그리고 사마리아가 있으며, 동쪽에는 모압과 암몬이, 남쪽에는 애굽이, 서쪽에는 블레셋이 자리잡고 있어서 유다를 포위하고 있었다.
- (4)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교회는 항상 대적들에게 포위되어 있는 상태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러나 대적들은 마지막 때에 교회의 머리되신 그리스도에 의해 파괴될

것이다.

24. **Q** 여호와께서 네 뿔에 대응하여 보여 주신 것은 무엇인가? (20절)

**A** (1) 그것은 네 명의 공장(工匠)이다.

(2) 그런데 '공장'은 히브리어로 <하리쉬>인데 철이나 돌, 나무 등을 재료로 하여 사물을 만드는 사람을 말한다.

(3) 네 뿔들이 사방에서 유대를 포위하고 있듯이, 이 네 명의 공장들은 사방에서 그들을 보호하고 대적을 파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25. **Q** 여호와께서 보여 주신 네 공장(工匠)들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 (21절)

**A** (1) 그들은 유다 땅을 헤친 열국의 뿔을 떨어뜨리는 일을 한다.

(2) 여호와께서 유다를 구원하실 때, 대적들보다 더 강한 자를 세우셔서 구원을 베푸신다.

(3) 그러므로 음부의 권세는 교회를 이길 수 없다. 왜냐하면 교회와 함께 하신 분이 대적들보다 강하기 때문이다.

(4)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는 항상 대적들에게 포위되어 있지만 결코 망하지 않는다.

### 화보자료

환상을 보고 있는 스가랴. 스가랴가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使者)와 천사를 보고 있는 장면(8-11절)을 그린 그림이다. 현재 세인트 쥬네브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본서에는 스가랴가 본 여덟 가지의 환상이 나온다(1-6장). 그중 7-17절에 나오는 환상은 스가랴가 본 첫번째 환상이다. 이 환상 중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은 말을 탄 하나님의 사자와 천사인데 그들간의 대화에 의해 바벨론 포로 생활을 겪은 이스라엘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베풀어질 것이 예고되고 있다.

## 제 2 장 척량하는 자의 환상과 택함 받은 예루살렘

단락구분 1-3 척량하는 자의 환상 / 4-5 예루살렘의 확장을 약속하다 / 6-7 이스라엘의 귀환을 예언하다 / 8-9 하나님의 보호가 약속되다 / 10-13 여호와께서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다

1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척량줄을 그 손에 잡았기로

2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척량하여 그 장광을 보고자 하노라 할 때에

3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매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4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사람이 거하리니 그 가운데 사람과 육축이 많으므로 그것이 성곽 없는 촌락과 같으리라

5 여호와와 말씀에 내가 그 사면에서 불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6 여호와와 말씀에 내가 너를 하늘의 사방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거니와 이제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망할지니라 나 여호와와 말이니라

7 바벨론 성에 거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 지니라

8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를 노략한 열국으로 영광을 위하여 나를 보내

셨나니 무릇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9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10 여호와와 말씀에 시온의 딸아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임하여 네 가운데 거할 것임이니라

11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네 가운데 거하리라 네가 만군의 여호와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12 여호와와께서 장차 유다를 취하여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13 무릇 혈기있는 자들이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와께서 그 성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 1. Q 본장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라.

- A (1) 본장에서 여호와와 사자가 선지자 스가라에게 척량줄 잡은 자의 환상을 보여 주심으로 예루살렘이 확장될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수들의 손에서 풀려나게 될 것을 알려 주고 있다.
- (2) 즉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자를 통하여 대적들을 낮추시고, 대신 이스라엘을 높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다.
- (3) 이 약속은 바벨론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민족이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게 됨으로써 성취되었다.
- (4)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바는 반드시 지키신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 2. Q 예언자에게 다시 보여진 환상은 무엇인가? (1절)

- A (1) 그에게 다시 보여진 환상은 손에 척량줄 잡은 자의 환상이다.
- (2) 이 환상은 겔 40:1-3에도 나타나는데 척량줄 잡은 자는 여호와와 사자, 즉 그리스도를 상징한다(참조, 1장 Q10).

### 3. Q 척량줄 잡은 자의 척량 목적은 무엇인가? (2절)

- A** (1) 예루살렘을 척량하여 그 길이와 폭을 알아보려고 함이다.  
 (2) 이것은 그때 당시의 예루살렘의 면적을 알고자 함이 아니라 앞으로 건설될 예루살렘이 얼마나 커야 할 것인가를 알아보려고 함이다. 즉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민족이 재건할 예루살렘을 생각하며 한 말이다.  
 (3) 그러나 한걸음 더 나아가 예루살렘이 신정 국가, 즉 교회를 상징하므로 (8:3) 이 환상은 하나님의 교회가 확장되어야 할 것 (1:16; 렘 31:39, 40) 과 확장의 주재자(主宰者)는 메시아, 즉 그리스도임을 보여 준다.  
 (4) 결국 이 예언의 환상은 일차적으로 예루살렘이 회복됨으로 이루어졌고 또한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 땅에 오셔서 새 예루살렘을 위한 사역을 시작하시므로 성취되었다.
4. **Q** 새로 나온 천사는 스가랴와 말하던 천사에게 무엇을 명령했는가? (3, 4절)  
**A** (1) 새로 나온 천사는 스가랴와 말하던 천사에게 소년에게 가서 ‘예루살렘에 사람이 거하리니 그 가운데 사람과 육축이 많으므로 그것이 성곽 없는 촌락과 같으리라’고 말하라 했다.  
 (2) 이 말은 예루살렘의 성벽의 경계선이 확장되어 인접한 지역까지 넓어질 것(사 49:19; 20)과 또한 대적들의 침입을 막기 위한 성벽들이 필요 없을 것을 말한다.  
 (3) 바꾸어 말하자면 이 예언은 교회를 상징하는 신정 국가인 예루살렘(8:3)이 거민, 즉 성도들이 증가하므로 확장될 것과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보호하시므로 교회는 안전하게 지켜질 것을 의미한다(참조, 제 21:22-27).
5. **Q** 척량줄 잡은 자는 누구에게 예언의 말씀을 전해 주었는가? (4절)  
**A** (1) 그는 소년에게 예언의 말씀을 전해 주었다.  
 (2) 이 소년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선지자 스가랴이다(참조, 서론 Q1).  
 (3) 스가랴가 스스로를 ‘소년’이라 표현한 것은 자신의 나이가 어리기도 했으나, 천사들 앞에 선 자신의 모습 속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음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4)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 겸허한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한다.
6. **Q** 성벽들이 필요 없는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인가? (5절)  
**A** (1) 그 축복은 여호와께서 친히 성 사면(四面)에서 불(火) 성곽이 되시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시겠다는 것이다.  
 (2) 이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자가 되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심과 같다(출 13:21, 22; 사 4:5).  
 (3) 한편 ‘불 성곽’은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실 뿐 아니라 출애굽하여 가나안으로 향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추격하는 바로의 군대를 불 기둥으로 혼란케 하시고(출 14:24) 세상 끝 날에 성도들을 대적하는 원수들을 불로써 멸하심과 같이(제 20:9, 10) 당신의 원수들을 멸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다.  
 (4)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며, 원수들의 세력까지 막아 주신다.
7. **Q** 여호와께서는 예루살렘 가운데서 무엇이 되시겠다고 하셨는가? (5절)  
**A** (1) 여호와께서는 예루살렘 가운데서 영광이 되시겠다고 하셨다.  
 (2)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대하여 외부의 성벽, 즉 보호자가 되실 뿐 아니라 내부의 영광도 되신다는 뜻이다.  
 (3) 즉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대하여 안전과 아름다운 영광을 제공하실 것을 말한다(참조, 사 4:5).

(4) 이와 같이 교회의 영광은 그 안에 내주(內住)하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말한다(시 125:2; 사 60:19).

8. **㉠ 여호와께서 '너를 흠여지게 하였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6절)**

**㉠** (1)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타국으로 흠여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의미이다.

(2) 과거 이스라엘이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징벌을 내려 이스라엘로 하여금 열국 가운데 유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호 9:17).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4차에 걸쳐 포로로 잡혀갔는데 1차는 B. C. 605년 다니엘과 왕족 그리고 귀족 계급이(단 1:1-6), 2차에는 B. C. 597년 여호야긴 왕과 일반 백성들이(왕하 24:14), 3차에는 B. C. 586년 시드기야 왕과 백성들이 잡혀갔다(왕하 25:6-12; 렘 25:9-11). 그리고 B. C. 581년에는 느부사라단이 나머지 유대인을 사로잡아 갔다(왕하 25:11; 렘 39:9).

(3)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백성들에게는 엄중한 심판을 내리신다.

9. **㉠ 사방으로 흠여진 백성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인가? (6b, 7절)**

**㉠** (1)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망하라', '바벨론 성에 거하는 시온아 피하라'고 명령하셨다.

(2) 이 명령은 범죄하여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3) 이 약속은 말씀하신 그대로 70년 만에 성취되었다(1:12; 렘 25:12; 29:10; 단 9:1). 즉 고레스 왕의 조서(대하 36:22, 23)에 의하여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 등 지도자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과 유다로 귀환하였다(스 2:1, 2).

(4)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이 범죄할 때 징계하시지만 끝까지 버려 두시지 않고 적당한 때에 구원의 손길을 베푸신다.

10. **㉠ '북방 땅에서 도망하라'는 말씀과 유월절 규례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6절)**

**㉠** (1)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즉시 순종할 것을 요구하신 점이다.

(2)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 유월절의 규례를 제정하시고(출 12:11) 애굽에서 즉시 떠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명령하셨었다. 그는 이제 또다시 바벨론에 포로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한 구원 계획에 즉시 순종할 것을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신 것이다.

(3)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언제나 태만하여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부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는데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결단을 요구하신다.

11. **㉠ 여호와께서 당신의 사자를 보내신 이유는 무엇인가? (8절)**

**㉠** (1)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열국을 징벌하시도록 여호와와 사자를 보내셨다.

(2) 한편 본절에서 '나'란 여호와와 사자, 즉 하나님의 아들을 가리키며 이스라엘을 '노략한 열국'은 바벨론과 메대 바사(참조, 예 1:19; 단 5:28; 6:8, 12, 15)를 일컫는다.

(3) 따라서 열국을 징벌하신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압제자였던 바벨론과 메대와 바사에 대하여 여호와와 사자, 즉 그리스도께서 복수자가 되신다는 것이다.

(4) 이것은 악인의 징벌이 의인의 구원 못지 않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12. **㉠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범(犯)하는 자는 무엇과 같다고 하셨는가? (8절)**

**㉠** (1) 이스라엘을 범하는 것은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하셨다.

(2) 여기서 '그의 눈동자'란 하나님 자신의 눈동자를 말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을 당신의 눈동자와 같이 아끼신다는 의미이다(신 32:10; 시 17:8).

(3)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을 범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는다(참



조, 예 9:1)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해야 한다.

13. **㉠** 여호와께서 메시아를 보내신 증거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9절)

- ㉠** (1) 그 증거는 이스라엘의 원수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 즉 이스라엘에게 도리어 노략거리가 되는 것이다.  
 (2) 이것은 8절의 경고를 반복한 것으로 더 상세한 묘사를 하고 있다.  
 (3) 한편 여기서 '손을 움직인다'는 말은 하나님께서는 극히 미약한 힘만으로도 원수들을 물리칠 수 있다는 의미이다.  
 (4) 그런데 이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음 사역에 의해 대적들을 복종시키는 일로 성취될 것이다(4:9).

14. **㉠**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온의 딸에게 무엇을 명령하셨는가? (10절)

- ㉠** (1) 하나님께서는 시온의 딸에게 노래하고 기뻐하라고 하셨다.  
 (2) 본절에서 '시온의 딸'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환난 중에도 노래하고 기뻐하라고 지시하셨다.  
 (3) 이것은 순결하고 정직하며 영적 자유를 회복한 자들은 노래하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평안을 누릴 충분한 이유가 있음을 보여 준다.

15. **㉠** 이스라엘 백성이 기뻐하며 노래해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10절)

- ㉠** (1)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거할 것이라고 예언하셨기 때문이다.  
 (2) 이 예언은 약속의 사자가 오신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우선 그리스도의 성육신(成肉身)으로 성취되었으며, 그의 재림으로 더 완전하게 성취되어질 것이다(요 1:14; 계 21:3).  
 (3) 이와 같이 성도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성육신하심과 그가 교회 안에 거하심이 가장 큰 기쁨의 근원이 된다.

16. **㉠**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메시아를 보내신 증거는 무엇인가? (11절)

- ㉠** (1) 그 증거는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그의 백성이 되며, 여호와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것이다.  
 (2) 이것은 신약 시대에 많은 민족들이 자진하여 복음을 믿어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과, 또한 신적 사명을 가지신 분이심이 널리 알려질 것을 뜻한다(8:20-23; 사 2:1-4; 19:18-25; 미 4:1-4).  
 (3)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이 예언은 성취되었으며 또한 그의 오심은 많은 사람들에게 그의 백성으로의 참소망을 주게 되었다.

17. **㉠** '나'를 보내신 분은 누구이신가? (11절)

- ㉠** (1) '나' 곧 여호와와 사자를 보내신 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다.  
 (2) 여기에는 한 여호와께서 다른 여호와를 파송하시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파송받으신 여호와는 약속의 사자와 동일한 분으로 교회 안에 오셔서 거하실 분이시다.  
 (3) 그러나 파송한 자와 파송받은 자는 서로 구분되어 서열상(序列上)으로나 창조자와 피조물의 관계로 나누어지지 않는다. 즉 파송받은 자도 여호와와 사자 곧 그리스도 하나님이다.

18. **㉠** 유다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가? (12절)

- ㉠** (1) 그 약속은 장차 유다를 취하여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라는 것이다.  
 (2) 이 약속은 장차 하나님과 유다인의 관계가 원상태로 회복되리라는 것을 의미한다.  
 (3) 즉 가나안은 거룩한 땅으로 다시 구별되고 유다는 거룩한 땅에 거하며 하나님의 소유가 될 것이다.

(4) 한편 이 약속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운동을 전개하게 될 것을 상징하기도 한다(눅 1:32, 33; 요 1:11; 4:22).

19. **Q** 하나님께서는 ‘헐기있는 자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셨는가? (13절)

- A** (1) 당신께서 성소에서 일어나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잠잠할 것을 명령하셨다.  
 (2) 본질의 ‘헐기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이네 하나님께서는 그들 앞에 잠을 깬 장사(壯士)처럼 일어나셔서 당신의 크고 오묘한 사역을 행하러 나오실 것이다.  
 (3)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무시는 것 같고 그분의 징벌이 지체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께서 가장 적합한 시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4)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대적하는 자들은 반드시 그분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합 2:20). 그러나 성도들은 하나님의 징벌이 더디다는 이유 때문에 신앙 생활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 연구자료

성경이 금하는 주술 행위. 사울은 주술 행위를 율법을 범하는 것(출 22:18)으로 여겨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스라엘 땅에서 다 쫓아내었던 적이 있다(삼상 28:3, 9). 그리고 본서는 이 같은 주술 행위를 거짓되고 헛된 것으로 언급하고 있다(10:2). 그러나 성경 가운데는 이스라엘인들이 주술 행위를 하였던 흔적이 많이 나타난다.

내 용	성 경 귀 절
점 술	창 44:15; 민 22:7; 신 18:14; 삼상 6:2; 렘 27:9; 겔 13:23; 슥 10:2; 행 16:16
술 객	창 41:24; 출 7:11; 8:19; 9:11; 단 2:2; 4:7
강 신 술	신 18:11; 삼상 28:11; 사 8:19
점 장 이	사 2:6; 단 2:27; 5:7; 미 5:12; 행 16:16
마 술	신 18:10; 왕하 17:17; 21:6; 사 47:9; 말 3:5; 행 8:11; 13:6; 계 18:23; 21:8
무 당	출 22:18; 레 19:31; 20:6; 삼상 15:23; 28:7; 왕하 9:22; 23:24; 대상 10:13; 사 8:19; 19:3; 29:4; 미 5:12; 갈 5:20
거짓 이적	출 7:11, 22; 8:7; 마 7:22; 24:24; 딤후 2:9; 계 13:13; 16:14; 19:30

## 제 3 장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약속의 말씀을 받다

단락구분 1-5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죄과(罪過)를 제하여 주시다 / 6-7 대표자의 자격으로 여호수아가 약속과 명령을 받다 / 8-10 메시야에 대한 약속과 축복

1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와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2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3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4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시라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과를 제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5 내가 말하되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와 사자는 곁에 섰더라

6 여호와와 사자가 여호수아에게 증거하여 가로되

7 만군의 여호와와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준행하며 내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중에 왕래케 하리라

8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네 앞에 앉은 네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내가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9 만군의 여호와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들을 보라 한 들에 일곱 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10 만군의 여호와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 1. ㉠ 본장의 중심 내용을 말하라.

- ㉠ (1) 본장에서는 시단에 의해 고소당하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여호와와 사자가 변호해 준 사실과 메시야의 오심 그리고 메시야의 사건으로 인한 축복의 약속이 언급되어 있다.
- (2) 이것은 유대인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원수들의 방해가 있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중단시키지 않고 반드시 이루실 것을 확신시켜 준 것이다.
- (3)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 재건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장래 메시야 왕국의 약속과 그에 따른 축복을 선포하셨다.
- (4)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당하는 고통을 그대로 지나치지 않으시고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도록 격려하시며 또한 그에 따른 축복까지도 준비하신다.

### 2. ㉠ 여호와와 사자 앞에 선 사람은 누구인가? (1절)

- ㉠ (1) 그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이다.
- (2) 여호수아는 당시에 대제사장직을 담당하고 있던(참조, 스2:2) 사람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여 여호와와 사자 앞에 선 것이다.
- (3) 그가 이처럼 여호와와 사자 앞에 선 이유는 자신과 그 백성의 행위에 대해 판단을 받기 위함이었다(민 35:12; 신 19:17; 수 20:6).
- (4)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전 12:14; 호 6:5; 요 12:48).

### 3. ㉠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함께 여호와와 사자 앞에 선 자는 누구인가? (1절)

**A** (1) 그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대적하는 사단이다.

(2) 이 사단은 욥 1, 2장에서 동일한 모습으로 나타나 하나님께 욥의 신앙을 참신앙이 아니고 그의 환경이 바뀌면 그의 신앙도 변질될 것이라고 참소한 자인데 이런 사단을 성경에서는 '대적자' (벤전 5:8) 또는 '참소자' (계 12:10)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

(3) 이와 같이 사단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을 대적하며, 허물을 들추어내 하나님께 고소(告訴)하므로 성도와 하나님의 관계를 이간(離間)한다.

4. **㉠ 사단은 어디에서 여호수아를 대적했는가? (1절)**

**A** (1) 사단은 여호수아의 우편에 서서 여호수아를 대적했다.

(2) 여기서 '우편에 서 있다'는 것은 오른쪽이라는 위치가 큰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고 단지 사단이 여호수아를 대적하기 적당한 위치에 있음을 말한다(욥 30:12; 시 109:6).

(3) 이와 같이 사단의 공격은 아주 교묘하다. 성도들을 공격하기 가장 좋은 위치를 먼저 차지하고, 그 위치에서 성도들의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한다.

(4) 그런데 성도들에게 가장 약한 것은 죄의 문제이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더러운 죄의 옷을 입고 섰을 때(3절) 사단의 공격 대상이 되었듯이 성도들도 역시 죄로 인해 사단의 공격을 받게 된다. 왜냐하면 사단은 사람들의 연약함과 한계성을 이용하기 때문이다(참조, 고전 7:5).

5. **㉠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대적한 사단에게 어떻게 대하셨는가? (2절)**

**A** (1) 하나님께서 그 사단을 두 번이나 책망하셨다.

(2) 즉 사단은 여호수아의 오른쪽에 서서 대적했으나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참소에 관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참소자인 사단을 두 번이나 책망하셨다.

(3) 이와 같이 사단은 성도를 대적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사단을 멸하려 오셨기 때문이다(창 3:15; 요일 3:8). 그리스도를 통한 사단의 최초의 패배는 그리스도의 메시아적 사역의 시초에 광야에서 있었다(마 4:1-11; 눅 4:1-12).

(4) 한편 사단의 최후는 '예비된 영원한 불' (마 25:41)이며, 마지막 때에 하늘에서 떨어져(눅 10:18) 무저갱에 들어가고 만다(계 12:9; 20:3).

(5) 그러므로 성도는 언제나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다.

6. **㉠ 사단을 책망하신 여호와는 어떤 분이신가? (2절)**

**A** (1) 그는 예루살렘을 택하신 분이시다.

(2) 이는 예루살렘, 즉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신 것을 나타낸다(1:17; 요 15:16).

(3)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것은 그들에게 의(義)가 있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에 있기 때문이다(요 3:16; 롬 5:8; 요일 4:10).

7. **㉠ 본절에서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는 누구를 가리키는가? (2절)**

**A** (1) 그것은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가리킨다.

(2) 여기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대표자이며 그슬린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데(암 4:11)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멸시키지 않고 구원하심을 나타낸다.

(3) 왜냐하면 그들이 바벨론에서 자신들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원받아 나왔기 때문이다(렘 25:12, 13; 29:10; 33:10, 11, 14; 스 1:1-4).

(4)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는 불타는 나무에 불과하다.

8. **㉠ 여호수아는 천사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었는가? (3절)**

**A** (1) 그는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었다.

(2)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대제사장은 그의 옷을 '거룩하게 지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출

28:2) 해야 한다.

(3) 그런데 여호수아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수치를 당하고 비난거리가 된 것이다.

(4) 한편 더러운 옷은 죄를 나타내므로 (사 64:6) 여호수아의 모습은 죄와 허물로 뒤덮인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과 오늘날 성도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이다.

9. **㉠** 여호와께서는 당신 앞에 선 자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셨는가? (4절)

**㉠** (1) 그는 그들에게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라고 명령하셨다.

(2) 여기에서 더러운 옷을 벗긴다는 것은 죄의 옷을 벗기겠다는 말로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시겠다 (계 7:14)는 약속이다.

(3) 이 약속은 동이 서에서 멀듯이 우리의 죄를 멀리 옮기심과 같고 (시 103:12) 우리의 옛 사람을 벗겨 버리고 새 사람을 입게 하심과 같다 (롬 6:6; 엡 4:2; 골 3:9).

(4)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며 또한 다시는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않게 하신다 (롬 6:6).

10. **㉠** 하나님께서는 더러운 옷을 벗은 여호수아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4절)

**㉠** (1)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내가 네 죄과 (罪過)를 제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고 말씀하셨다.

(2)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죄를 완전히 사하시고 (3:9; 사 6:7) 대신 구원과 의 (義)의 옷으로 입히심을 의미한다 (사 61:10; 눅 15:22; 계 19:8).

(3) 또한 이것은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누구에게나 의의 옷을 입혀 주실 것을 가르쳐 준다.

11. **㉠** 스가랴가 하나님께 여호수아에 대해서 요구한 것은 무엇인가? (5절)

**㉠** (1) 스가랴는 하나님께 '정한 관을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소서' 라고 요구했다.

(2) 이것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더 완전해져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인데 관은 왕이나 제사장이 쓰는 것으로 그 위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여 있어 (출 28:36-38)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는 더 성결하고 완전하게 구별되어야 함을 나타낸다.

(3) 이와 마찬가지로 죄사함 받은 성도들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

12. **㉠** 깨끗한 옷을 입고 정한 관을 쓴 여호수아의 옆에 선 자는 누구인가? (5절)

**㉠** (1) 그는 여호와와 사자였다.

(2) 그리스도이신 여호와와 사자께서 여호와와 심판자로 그의 앞에 섰으나 그의 죄를 용서하신 후부터는 그를 변호하시는 동반자가 되셨다.

(3) 이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심판을 받아야 할 성도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성도들을 변호하시는 보호자의 역할까지도 해주신다.

13. **㉠** 누가 누구에게 증거하여 말했는가? (6절)

**㉠** (1) 여호와와 사자가 여호수아에게 증거하여 말했다.

(2) 즉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죄의 더러운 옷을 벗게 된 후,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에게 새로운 말씀과 축복의 약속을 주시고 있다.

(3)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먼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후에 당신의 사역을 맡기신다.

14. **㉠**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신 것은 무엇인가? (7절)

**㉠** (1)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당신의 도를 준행 (遵行)하며 율례 (律例)를 지킬 것을 요구하셨다.

(2) 여호와와 도는 정직 (호 14:9) 하기 때문에 선한 생활과 거룩한 삶을 요구하며 (신 8:6; 10:12; 시 128:1), 율례는 모세의 법을 따라 맡은 직무에 충실하게 살아야 할 것을 요

구한다(레 8:35; 대하 6:16; 젤 44:15, 16).

(3) 이것을 통해 볼 때 성도는 각자의 위치에서 주어진 직무에 충실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5. **㉠**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당신의 요구에 순종한다면 어떻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가? (7절)

**㉠** (1)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며 내 뜰을 지키는 것이며 내가 너로 여기 섰는 자들 중에 왕래케 하리라'고 약속하셨다.

(2) 여기에서 '내 집을 다스리는 것'이란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감당하게 하여 하나님의 율법과 율례들이 준수될 수 있도록 감독하고 지도하게 한다는 뜻이다.

(3) 또한 '내 뜰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예배에 있어서 레위인들의 사역(민 1:50; 18:2; 대상 9:19; 대하 8:14; 느 8:7, 9; 12:27)을 대신하여 성전을 잘 관리하게 할 것을 말한다.

(4) 그리고 '너로 여기 섰는 자들 중에 왕래케 하리라'는 말은 여호수아를 성도들의 대표자로 삼아 사역하게 한다는 뜻이다. 즉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중보자의 사역(딤후 2:5)을 담당하게 될 것을 의미한다.

(5)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넘치는 축복의 약속을 주신다.

16. **㉠**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그 동료들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인가? (8절)

**㉠** (1)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내가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다.

(2) 그런데 '예표의 사람들'이란 어떤 일을 그림자로 보여 주는 사람들을 말한다(참조, 사 8:18; 20:3).

(3) 즉 이것은 제사장직의 모형적 성격을 보여 주는 것인데, 제사장으로서 오실 메시아를 나타낸다.

(4) 또한 '내 종 순'은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이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메시아를 '종'(사 42:1; 49:3; 50:10; 젤 34:23 등) 또 '순'(筓, 렘 23:5; 33:5 등)으로 칭하였기 때문이다.

(5)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형을 통하여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며 성전 재건을 계속하도록 격려하신 것이다.

17. **㉠** 여호와께서 여호수아 앞에 무엇을 세우셨는가? (9절)

**㉠** (1) 돌을 세우셨다.

(2) 이 돌은 성전 건축을 위한 기초석 혹은 모퉁이 돌을 의미한다(참조, 스 3:9-11).

(3) 그런데 이 돌은 눈에 보이는 성전의 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의미한다(4:7; 시 118:22; 사 28:16).

(4)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나무의 시작인 '순'일 뿐 아니라 건물의 시작인 '기초석'도 되시기 때문이다(시 118:22, 23; 마 21:42; 행 4:11).

18. **㉠** 여호와께서 세우신 돌에 무엇이 있는가? (9절)

**㉠** (1) 그 돌에 일곱 눈이 있다.

(2) '일곱'이란 하나님의 완전수로서 일곱 눈은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여호와의 눈(4:10; 계 5:6)을 의미하는데 이는 여호와께서 주무시지도 않고 교회를 살피시는 것을 나타낸다(시 121:3, 4).

(3) 이와 같이 성도들은 대적들의 공격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하심에 의해 안전을 유지할 수 있다.

19. **㉠** 하나님께서 '돌에 새긴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9절)

**㉠** (1) 그리스도에 의하여 완결되는 사역을 의미한다.

- (2) 여기서 들의 개념을 사용한 것은 당시 성전 재건이 가장 중요한 사업이었기 때문이고 또한 들은 메시아를 의미하기 때문이다(시 118:22, 23; 마 21:42; 행 4:11).
- (3) 따라서 이것은 성전 재건 사업이 완성될 것을 의미하며 후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질 약속의 불변성을 의미하기도 한다.
- (4) 이 당시 이스라엘의 주위 환경을 살펴보면 황폐하여 성전 재건이 불가능했으며 메시아의 오심 같은 축복은 기대할 수도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강력한 선언을 하신 것이다.

20. ㉠ 여호와께서는 들에 '새길 것'을 새기시고 이 땅의 죄악을 어떻게 할 것이라 하셨는가? (9절)

- ㉠ (1)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할 것이라 하셨다.
- (2) 이것은 성전 재건이 완성됨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보여 준다.
- (3) 즉 영원한 대제사장이요 교회의 머리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의 죄악을 단번에 사하시는 사역을 의미한다(히 7:27; 10:10).
- (4) 이것은 메시아의 오심으로 이루어지는 속죄 사역의 완결성, 즉 그리스도에 의해 단번에 성취되어질 속죄로 인해 성도들이 죄에서 해방될 것을 가리킨다.

21. ㉠ 여호와께서 죄악을 하루에 제하신 날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 하셨는가? (10절)

- ㉠ (1)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를 초대할 것이라고 하셨다.
- (2) 그날은 메시아의 오심으로 죄가 완전히 사해지고 메시아 시대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날이다. 즉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사이에 교통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 성도들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짐을 가리킨다(잠 16:7; 롬 5:1; 고후 5:18).
- (3) 메시아의 오심으로 인한 평화는 참신앙을 소유하여 죄 용서를 받은 사람들에게 임하는데 이런 평화를 소유한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하며 세상을 통치하게 될 것이다(참조, 계 20:1-6).

### 연구자료

구약에 언급된 사단. 히브리어 <사탄>은 '대적자' 또는 '적'이란 의미를 지니고 있다(참조, 민 22:22; 삼상 29:4; 왕상 11:4, 23, 25; 시 109:6). 그러나 관사와 함께 사용된 <하사탄>, 즉 '그 대적자'라는 말은 고유한 이름으로서 사단이 인격적인 존재임을 암시한다. 한편 본장과 욥 1, 2장에서는 이 말이 하늘에 있는 존재인 천사를 지칭했다. 그리고 대상 21:1에서 이 단어는 관사가 없어서 '대적자'로 번역될 수 있지만, 비록 관사가 없더라도 여기서 역시 일반적으로 고유 명사로 인정되고 있다(참조, 삼하 24:1). 한편 구약에서 사단의 모습은 본질적으로 악한 존재가 아니라 단순히 사람을 시험하는 임무를 띤 천사역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구약에서는 사단이 악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이 확실하게 언급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사단이 사람의 잘되는 일들에 반대하여 활동한 것은 그의 활동에 대한 간단한 기록에서 분명히 나타나 있다(참조, 욥 1, 2장).

## 제 4 장 두 감람나무와 함께 있는 순금 등대의 환상

단락구분 1-3 스기라가 본 두 가지 환상 / 4-10 순금 등대의 환상에 대한 설명 / 11-14 두 감람나무가 지니는 의미

1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깨우임 같더라

2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또 그 등대에 일곱 등잔이 있으며 그 등대 꼭대기 등잔에는 일곱 관이 있고

3 그 등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주발 우편에 있고 하나는 그 좌편에 있다 하니

4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가로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이까

5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6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니라

7 큰 산아 내가 무엇이나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들을 내어 놓을 때

에 무리가 의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 지이다 하리라 하셨고

8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9 스룹바벨의 손이 이 전의 지대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10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와의 눈이라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11 내가 그에게 물어 가로되 등대 좌우의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이까 하고

12 다시 그에게 물어 가로되 금 기름을 흘려 내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이까

13 그가 내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14 가로되 이는 기름 발리운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셔 섰는 자니라 하더라

### 1. Q 본장에서 중요한 내용은 무엇인가?

- A** (1) 본장은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시는 모습을 보여 준다.  
 (2) 그것은 감람나무와 함께 있는 순금 등대의 환상인데 감람나무에서 흐르는 기름으로 등대의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빛을 발하는 모습이다.  
 (3) 여기서 등대는 신약 시대의 교회를 상징(계 1:20) 하고, 또한 성도들을 상징(마 5:14-16) 하기도 한다. 즉 이 부분의 환상은 교회와 성도가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야 하는 의무를 지님을 밝히 보여 주는 것이다.  
 (4) 또한 두 감람나무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상징하는데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과 왕 그리고 선지자이다(레 21:10; 삼상 10:1; 왕상 19:16). 그런데 이 세 기능을 함께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요 18:37; 19:19-22; 히 7:14, 15, 20-22; 8:12; 계 11:15; 19:16). 그러나 여기서는 제사장과 왕의 사역만이 특별히 강조되고 있다.  
 (5)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들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기름



을 공급받아야 한다. 즉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보혜사 성령(요 14:16, 26)을 통하여 능력을 공급받아야 한다.

2. **㉠ 누가 스가라를 깨웠는가? (1절)**

**㉠** (1) 스가라에게 말하던 천사였다.

(2) 즉 2:3에서 나갔던 천사가 다시 돌아와서 잠자는 스가라를 깨웠던 것이다.

(3) 한편 '다시 깨웠다'는 것은 스가라가 하나님의 이상을 볼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므로 준비시킨 것을 나타낸다.

(4) 사실 사람의 마음은 연약하여 깨어 있지 않으면 쉽게 세상 것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롬 7:18, 25; 8:6; 요일 2:16) 그런 상태로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없다.

(5) 다시 말하자면 인간이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하늘의 것을 생각할 수 없으므로(고전 2:10-12), 하나님의 일들을 알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는 것이다.

3. **㉠ 스가라가 본 환상은 어떠한 것인가? (2, 3절)**

**㉠** (1) 그것은 일곱 등잔이 있는 순금 등대 두 개와 그 등잔에 기름을 공급하는 두 감람나무의 환상인데 그 나무에서 등잔까지는관이 연결되어 기름이 공급되고 있었다.

(2) 여기서 '순금'은 가장 귀하고 변치않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하늘의 것을 상징(계 21:18)하며, '등대'는 신성 국가인 교회를 상징(계 1:20)하면서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보여 준다(마 5:14-16).

(3) 즉 우리는 본절에서 교회의 머리되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었을 때 교회는 분열을 막을 수 있고 빛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 순금 등대에 관하여 말하라(2절).**

**㉠** (1) 순금 등대는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등대에 일곱 등잔이 있으며 등대 꼭대기 등잔에는 일곱 관(管)이 있다.

(2) 여기서 주발은 기름을 저장하기 위한 그릇이며, 등잔은 불켜진 등을 가리킨다. 그리고 관은 등잔에 기름을 공급하기 위한 것이다.

(3) 그런데 등대 꼭대기의 등잔에 일곱 관이 있다는 것은 교회의 다양한 역할과 기름 공급의 원천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들에게 다양하게 전달되는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

5. **㉠ 등대 절에 무엇이 있는가? (3절)**

**㉠** (1)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등대 꼭대기에 있는 주발의 오른쪽에 있고 다른 하나는 그 왼쪽에 있다.

(2) 그런데 등대에 불이 지속적으로 켜져 있는 이유는 바로 이 감람나무 때문이다. 이 나무는 살아 있어 지속적으로 등대에 기름을 공급하고 있다.

(3) 기름을 공급하는 감람나무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참조, 롬 11:17) 그를 통하여 기름을 공급받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인간의 약점은 결코 장애물이 될 수 없다.

(4)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것으로 지혜로운 것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으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실 수 있기 때문이다(고전 1:27).

6. **㉠ 말하는 천사에 대한 스가라의 태도는 어떠한가? (4, 5절)**

**㉠** (1) 스가라는 자신이 본 환상에 대하여 질문을 했다.

(2) 환상을 보게 된 스가라는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몰랐기 때문에 천사에게 물어 보았던 것이다.

(3) 이것은 하나님의 환상에 대해 확실한 의미를 알고 싶어하는 스가라의 태도인데 우리에게 말씀에 대한 열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 예수께서도 자신이 들은 것에

관하여 물으셨듯이(눅 2:46) 성도들도 말씀을 알고자 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한다.

- (4) 이렇게 진리를 향한 열심이 있을 때 천사도 가르쳐 주기를 원한다(5절).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진리에 대한 무지(無知)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늘의 오묘한 진리를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다(참조, 마 7:6).

7. **㉠ 여호와 하나님께서 스톱바벨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인가? (6-10절)**

- ㉠** (1) 하나님께서 성전 재건하는 일이 사람의 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음을 말씀하시고(6절) 성전 재건이 반드시 성취되리라고 말씀하신다(9절).
- (2)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후 성전 재건에 착수하는데 사마리아인들의 방해(스 4:1-10)와 유프라테스 강 서편의 바사 총독 닷드내와 스탈보스내의 동조로 그 공사가 보류되게 된다(스 5:1-5).
- (3) 더우기 바사의 총독들이 다리오 왕에게 성전 재건을 중지시키도록 상소를 올리게 되는데(스 5:6) 이때 마침 성전 재건을 허락했던 고레스 왕의 조서가 발견되어(스 6:1-5) 성전 재건이 이루어지고, 방해하던 총독들까지 공사를 후원하게 된다(스 5:3, 6; 6:6, 13).
- (4) 이와 같이 사단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당신의 일을 성취하기도 하신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 기뻐할 것은 하늘에서 받을 상급이 크기 때문이다(마 5:10-12).

8. **㉠ 하나님께서 스톱바벨에게 인간의 힘과 능으로 되지 않고 무엇으로 된다고 했는가? (6절)**

- ㉠** (1) '오직 나의 신(神)으로 되느니라' 고 하셨다.
- (2) 즉 성전 재건하는 일에 있어서 주위의 방해나 인간의 나약함이 장애물이 될 수 없음을 말한다. 그것은 인간이 나약함을 느끼는 순간이 바로 강한 때가 되기 때문이다(고전 1:27).
- (3)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을 향할 때, 애굽의 군대를 홍해 가운데 장사지내 시며(출 14:21-28) 해와 달을 멈추게 하여 아모리인을 진멸하게 하신(수 10:12-14)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분의 도움 없이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 (4)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민족의 성전 재건도 '만군의 여호와와 신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 (5) 왜냐하면 인간은 분명한 한계가 있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신은 무한한 지혜와 능력을 소유하고 계시기 때문이다(참조, 롬 12:13).

9. **㉠ 스톱바벨 앞에 장애가 되었던 큰 산은 어떻게 될 것인가? (7절)**

- ㉠** (1) 그 산은 스톱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며 성전이 완공되어 머릿돌이 놓이게 될 것이다.
- (2) 여기서 큰 산은 성전 재건을 방해하던 닷드내와 스탈보스내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을 가리킨다(스 5:1-5). 그들이 비록 큰 산과 같이 방해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무너져 평지같이 될 것이다(사 40:4; 41:15).
- (3) 그리고 성전 재건을 마감하는 머릿돌이 놓이게 될 때 백성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총이었음을 찬양할 것이다.
- (4) 또한 본절의 말씀은 메시아가 오실 때 그의 앞이 평탄케 될 것, 즉 골짜기가 높아지고 산이 낮아지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되리라는 이사야의 예언(사 40:4)을 기억하게 해준다.
- (5) 그러므로 우리들은 선한 일을 계획하고 진행할 때에 그 일이 마칠 때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며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참조, 빌 1:6).

10. **㉠ 스톱바벨이 성전 재건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약속을 하셨는가? (9절)**

- ㉠** (1)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 재건의 완성에 대해 약속하셨다.
- (2) 즉 본절에서는 스톱바벨이 예루살렘에 돌아와 레위 사람들과 성전 건축을 시작하여 전

지대를 놓은 후(스3:8-10; 학2:18) 방해자들에 의해 일시 중단되었지만 다시 공사가 시작되고 완성될 것이 예언되어 있다.

- (3) 이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은 반드시 마칠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 즉 처음과 나중 되신 분이기 때문이다(빌1:6; 계1:8).

**11. C 성전 완공을 통하여서 스가랴에게 환상에 관해 설명하던 천사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9절)**

- A (1) 그 천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보내신 사자임을 알 수 있다.
- (2) 즉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 계시 전달 사역을 담당하던 천사가 하나님의 보내신 사자였다는 것이 확실시되어지기 때문이다.
- (3)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고 불변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불신에 개의치 않으시고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어 당신이 참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신다.
- (4) 따라서 불신에 빠져 있던 성도들은 그 나타난 결과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할 수 있게 된다.

**12. C 성전 재건을 방해한 자들이 스룹바벨의 하는 일을 보고 무엇이라 말했는가? (10절)**

- A (1) '작은 일의 날' 이라 말했다.
- (2) 그렇게 말한 이유는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자들이 보기에 그 성전이 이전 솔로몬 성전에 비해 훨씬 초라했기 때문이다.
- (3) 또한 과거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보았던 사람들도 스룹바벨의 성전을 보고 뚱뚱하였다(스3:12).
- (4) 이와 같이 사람들은 외형에 너무 집착하기 때문에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삼상 16:7)을 망각하고 실망할 때가 많다.

**13. C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이 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10절)**

- A (1) '누가 멸시하느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와 눈이라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고 하셨다.
- (2) 이것은 처음 볼 때 그 일이 미천해 보인다고 해서 멸시하지 말라는 말씀이다. 하나님의 사역은 극히 초라하게 시작되었다 해도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와 눈' 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할 때 그 일이 성취되어 당신께 큰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 (3) 한편 복음 전파도 이와 같이 처음에는 사람들의 눈에 비천해 보이지만 나중에는 많은 결실을 얻게 될 것이다(마 13:31, 32; 막 4:30-34; 눅 13:18, 19).
- (4) 따라서 대적들에 비해 자신이 약하다고 실망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약한 것들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성취하시기 때문이다(고전 1:27).

**14. C 스가랴는 무엇에 대하여 질문을 하였는가? (11, 12 절)**

- A (1) 등대 좌우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의 뜻이 무엇인가 물어 보았다.
- (2) 그 이유는 스가랴가 본 두 가지 환상, 즉 순금 등대의 환상과 그 곁에 선 감람나무의 환상 중에 순금 등대의 환상은 그 의미를 알았으나 두 감람나무에 대한 환상의 의미는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 (3) 또한 여기서 선지자 스가랴는 같은 내용을 반복하여 질문하는데 이것은 진리를 알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다.
- (4) 이와 같이 성도들도 진리에 대해 뜨거운 열정을 가져야 한다(참조, 마 15:25-28).

**15. C 왜 천사는 스가랴의 질문에 즉시 대답하지 않았는가? (13절)**

- A (1) 천사는 스가랴의 고백을 듣고자 했다.

- (2) 스가라는 하나님 앞에서 진리에 대한 자신의 무지를 깨닫고 그 무지로 인한 안타까움을 느끼게 되었고 이를 천사에게 고백하였다.
- (3)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무능을 인정하고 진리를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진리를 가르쳐 주신다.

16. **㉠** 천사가 설명한 감람나무의 의미는 무엇인가? (14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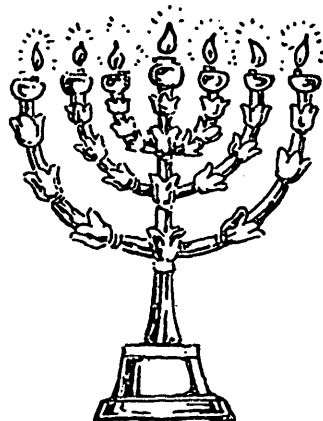
- ㉠** (1) 감람나무의 의미는 '기름 발리운 자 들' 곧 '은 세상의 주 앞에 모셔 섰는 자'이다.
- (2) '기름 발리운 자 들'이란 원어적 의미로 '기름의 아들 들'이란 뜻인데 이것은 감람나무의 이중성을 가리킨다.
- (3) 즉 기름 부음 받는 자는 제사장과 왕이다(레 21:10; 삼상 10:1). 이 두 직책은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께 봉사하는 자격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특별한 권세를 주었기 때문이다(계 11:3, 4).
- (4) 그런데 이 직책은 메시아에 대한 예표적 의미를 지닌다. 왜냐하면 이 직책이 처음 떨기 세대의 경우에는 하나였다가(창 14:18; 히 7:1) 후에 아론과 모세, 여호수아와 스룹바벨과 같이 두 직책이 분리되었으나 그것은 왕이시며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오신 메시아에 의해 다시 일치되었기 때문이다(히 7:14, 15; 계 19:16).

17. **㉠** 기름 발리운 자 들은 어디에 서 있는 자들인가? (14절)

- ㉠** (1) 그들은 은 세상의 주 앞에 모셔 섰는 자들이다.
- (2) '주 앞에 모셔 섰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순종할 두 사람이란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스룹바벨을 가리킨다.
- (3) 이들 두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 백성들에게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치리자와 사역자로 위임을 받아 백성들을 다스리게 되었다.
- (4) 따라서 오늘의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즉시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성령의 은혜를 공급받아 이웃에게 전해 줄 준비가 되어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

### 본장의 요절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2절).



# 제 5 장 날아가는 두루마리와 여인의 환상

단락구분 1-2 날아가는 두루마리의 환상 / 3-4 이 환상의 의미 / 5-11 에바 속에 있는 여인의 환상

1 내가 다시 눈을 뜬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보이더라

2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장이 이십 규빗이요 광이 십 규빗이니이다

3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지면에 두루 행하는 저주라 무릇 도적질하는 자는 그 이편 글대로 쫓쳐지고 무릇 맹세하는 자는 그 저편 글대로 쫓쳐지리라

4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것을 받하였나니 도적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그 나무와 그 들을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5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6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이까 그가 가로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니라 또 가로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7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는 동시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8 그가 가로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 넣고 납 조각을 에바 아구리 위에 던져 덮더라

9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두 여인이 나왔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10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 가나이까 하매

11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시날 땅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가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 1. ㉠ 본장의 중심 내용을 설명하라.

㉠ (1) 본장에서는 이전에 보았던 환상과는 달리 날아가는 두루마리의 환상과 에바 속에 있는 여인의 환상을 통하여 땅에 저주가 임할 것을 보여 준다.

(2) 이 두 가지 환상은 비슷한 의미로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 준다.

(3) 하나님께 범죄한 자는 두루마리에 기록된 대로 형벌을 받을 것이고 여인으로 의인화된 죄는 영원히 추방되어 이스라엘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될 것이다.

(4) 이와 같이 본장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로부터 죄를 추방하시고 대신 불경건한 자들에게 기록된 저주(신 27:11-26; 28:15)를 내리실 것을 가르쳐 주신다.

## 2. ㉡ 스가라는 어떤 환상을 보았는가? (1, 2절)

㉡ (1) 그는 날아가는 두루마리의 환상을 보았다.

(2) 여기서 두루마리는 히브리어 (까랄)에서 파생한 용어로 '굴리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3)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보여 주신 이유는 유대인들이 불경건함과 다른 죄악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극도로 일으키고 정의 뿐만 아니라 신앙까지 멸시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겪는 여러 가지 재난이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으로부터 비롯되었음을 보여 주기 위함이다.

## 3. ㉢ 스가라가 환상 중에 본 두루마리의 크기는 어떠한가? (2절)

㉢ (1) 장(長)이 20규빗이요 광(廣)이 10규빗이다.

- (2) 규빗은 길이 측정에 대한 기준 단위로서 한 규빗은 팔꿈치에서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의 길이를 말한다. 규빗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 적용되는 길이가 다양하나 일반적으로는 45.6cm 이었고 왕실과 성전을 재는 규빗은 52.3cm이었다.
- (3) 따라서 스가랴가 환상 중에 본 두루마리의 길이는 왕실 규빗으로 길이가 약 10.5cm, 너비가 약 5.2m인데 이 크기는 성소 앞 낭실의 면적과 같다(참조, 왕상 6:3).
- (4) 그런데 두루마리와 성소 앞 낭실의 면적이 같은 이유는 두루마리에 쓰인 저주를 받을 자들과 성소에 거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될 것이기 때문이다.
- (5) 한편 하나님께서 이런 환상을 보여 주신 목적은 성전 재건 공사를 진행하는 도중 낙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시작하도록 격려하시기 위함이다.
- (6) 즉 하나님께서 성전 재건을 방해한 자들을 징벌하시며 그 백성들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더욱 당신을 의뢰하도록 하시기 위함인 것이다.

4. **㉠** 날아가는 두루마리는 무엇인가? (3절)

**㉠** (1) 그것은 온 지면에 두루 행하는 저주이다.

(2) '온 지면'이란 온 세상을 의미하는데 범죄한 자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 이는 하나님께서 거하시지 않는 곳이 없기 때문이다(참조, 시 139:7-12).

(3) 또한 '저주'는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죄와 불순종에 대한 저주를 말한다(참조, 신 27:11-26; 28:15).

(4) 그러므로 하나님께 범죄한 자는 어느 곳에 숨든지 무소 부재(無所不在)하신 그분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 반면에 그분의 은혜로 진노를 피한 성도들은 언제나 어떤 일이나 감사할 수 있다.

5. **㉠** 지면에 두루 행하는 저주는 어떤 자들에게 임하게 되는가? (3절)

**㉠** (1) 도적질하는 자와 맹세하는 자에게 저주가 임한다.

(2) 여기서 죄목(罪目)을 도적질과 맹세 두 종류만 말하고 있으나,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 전체를 대표하고 있다.

(3) 도적질은 이웃 사람을 해롭게 하고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자(느 13:10; 말 3:8)를 말한다. 즉 하나님의 10계명을 새긴 두번째 부분(5-10계명)을 어긴 것이다.

(4) 또한 맹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4절)으로 10계명의 첫째 부분(1-4계명)을 범한 것이다.

(5) 그러므로 하나님과 사람들에 대하여 범죄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것으로 그분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의무만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당연히 해야 할 것들을 소홀히 한 성도들에게 큰 경고가 되는 말씀이다.

6. **㉠** 저주의 두루마리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 (4절)

**㉠** (1) 도적의 집과 맹세하는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그 나무와 그 돌과 함께 사르는 일을 한다.

(2) 여기서 '내가 이것을 발하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시고 일을 착수하도록 하셨다는 의미이다.

(3) 그리고 '그 집을 그 나무와 그 돌과 함께 사르리라'는 말은 백성 중에서 범죄자의 전 가족을 제거시키신다는 것을 의미하여(민 16:1-33) 하나님의 저주가 심각하여 그 집과 나무와 돌까지도 황폐하게 될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4)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을 저버리고 범죄자와 동행하는 자들에게 철저한 보응을 하신다(참조, 수 7:26).

7. **㉠** 천사가 스가랴에게 나타내 보인 것은 무엇인가? (6절)

**㉠** (1) 그것은 예바였다.

(2) 에바는 유대인들이 곡식을 되는 말[斗]이다.

(3) 유대인들이 부피를 재는 것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액체를 재는 것과 고체를 재는 것이 있다.

명 칭		체 적		관계 성귀
고 체	감	1.3ℓ	0.66되	왕하 6:25
	오멜	2.34ℓ	1.2되	출 16:16
	스아	7.33ℓ	4되	창 18:6
	에바	22ℓ	12되	출 16:36
	반호멜	110ℓ	6말	호 3:2
	호멜	220ℓ	12말	레 27:16; 겔 45:11-14
액 체	룩	0.31ℓ	1.65홉	레 14:10
	감	1.3ℓ	0.66되	왕하 6:25
	린	3.67ℓ	2되	출 29:40
	밭	22ℓ	12말	왕상 7:26
	고르 혹은 호멜	220ℓ	12말	겔 45:14

(4) 그러나 본절에서의 에바의 의미는 어떤 것의 양이 많고 적음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측정 기준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측정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이다.

(5) 그러므로 이 에바의 환상은 날아가는 두루마리의 환상과 같은 의미로서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기준 이상으로 죄악이 심해지면 심판을 내리신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다.

8. **㉠ 스가랴가 본 에바는 어떠한가? (7절)**

- ㉠ (1) 에바 가운데 한 여인이 앉아 있고 동시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었다.
- (2) 그런데 본절은 히브리 원어의 어순이 바뀌었다. 그것은 '붙찌어다 둥근 납 조각이 들리웠고 여인은 에바 속에 앉아 있느니라' 라고 번역해야 옳다.
- (3) 여기서 에바는 죄의 측정 기준을 말하는데 악(히, 리쉐야)이라는 히브리어가 여성 명사이기 때문에 여인은 '죄'를 의미한다(8절).
- (4) 즉 죄를 여인으로 의인화한 것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죄악을 상징하고 납 조각은 에바의 뚜껑을 나타낸다.

9. **㉠ 하나님께서 여인을 에바 속에 던져 넣으시고 어떻게 하셨는가? (8절)**

- ㉠ (1) 하나님께서는 여인을 에바 속에 넣은 후 에바 입구 위에 납 조각을 던져 덮으셨다.
- (2)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악을 에바 속에 넣으시고 뚜껑을 덮어 빠져 나오지 못하게 하신다는 뜻이다.
- (3) 이는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임하는 심판의 절대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참조, 욥 27:22; 시 139:7; 렘 11:11; 히 12:25).
- (4)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참조, 벰후 3:9)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계 2:21) 또한 여러 길을 통하여 '회개하라'고 외치시며(마 3:2; 막 6:12; 행 3:19; 계 3:19) 아직도 진노의 손길을 늦추고 계신다.

10. **㉠ 다른 두 여인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 (9절)**

- ㉠ (1) 그 두 여인에게는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다.
- (2) 날개 달린 두 여인은 '하나님의 전령'같이 힘을 모아 뚜껑 덮인 에바를 옮기기 위함이다.
- (3) 한편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는 모습은 다양하다. 모세에게는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으로

로(출 3:2), 가나안으로 향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출 14:19) 나타났는데 본장에서는 날개 달린 여인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11. ㉠ 날개 달린 두 여인은 에바를 어떻게 하였는가? (9절)

㉠ (1) 두 여인은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다.

(2) 이것은 앞으로 전개될 유다인의 흠어짐을 예언한 것이다.

(3) 결국 이 예언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메시아를 거부하여 십자가에 못박아 살해하고 또한 사도들의 전도를 방해하는 죄를 범해 하나님의 기준치인 에바를 채우게 됨으로써 로마의 침입을 받아 온 세계에 흠어지는 것으로 성취되었다.

12. ㉠ 날개 달린 두 여인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 (10, 11절)

㉠ (1) 그들은 에바를 시날 땅으로 옮겨가서 그를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한다.

(2) 여기서 '시날'은 바벨론을 시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참조, 사 11:11; 단 1:2) '시날 땅'은 인류가 하나님을 반역하여 바벨탑을 쌓던 곳이기도 하다(참조, 창 10:10; 11:2).

(3) 그러므로 시날은 악의 본산지를 상징하는데 유다인들의 거처가 이곳으로 옮겨질 것을 보여 준다.

(4) 이와 같이 회개할 기회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거처를 옮겨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하실 것이다(마 13:42; 22:13; 눅 13:28).

13. ㉠ 날개 달린 두 여인이 시날 땅에 집을 완성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1절)

㉠ (1) 집이 완성되면 에바 속에 있는 여인이 그 집에 거하게 될 것이다.

(2) 즉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추방 당하여 오랜 세월을 지나게 될 것을 의미한다.

(3) 그들이 비록 이전에 바벨론에 포로되어 70년을 지나다 돌아왔으나 이제 그 집이 완성되며 환난이 여러 세대를 거쳐 이어질 것이고 죄의 노예가 되어 끝내 멸망하게 될 것이다(갈 6:7).

## 연구자료

두루마리. 파피루스나 가죽 혹은 양피지를 연결하여 만든 두루마리는 폭이 보통 25-30cm 정도이며 길이가 10.5m까지 이른다. 이것은 굴림대가 있는 두 개의 로울러 사이에서 손잡이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회전시킬 수 있게 만들어졌으며, 일반적으로 한쪽 면에만 기록했으나 간혹 양면에 기록하는 경우도 있었다(참조, 겔 2:10). 히브리인들은 표준 길이의 파피루스를 사용하게 됨으로써 부득이 모세 오경을 다섯 권으로 나누게 되었다. 그러나 본장에 언급된 두루마리는 이스라엘에서 표준으로 사용하던 것이 아니라 길이가 약 9m이며 폭이 약 4.5m로, 성소의 면적과 같은 것(참조, 출 26:1)이며, 두루마리 양면에 모두 글이 새겨져 있었다(3절). 한편 애굽인은 히브리인이 사용했던 두루마리와는 달리 엄청난 길이의 파피루스를 사용했다. 유명한 파피루스 하리스(Harris)는 폭이 43cm, 길이가 40m이며, 「사자의 서」는 폭이 48cm, 길이가 37m나 되었다.



# 제 6 장 네 병거의 환상과 면류관을 쓴 대제사장 여호수아

단락구분 1-4 네 종류의 말들이 이끄는 네 병거의 환상을 보다 / 5-8 그 환상의 의미 / 9-11 은과 금으로 만든 면류관을 여호수아에게 씌우다 / 12-15 면류관을 씌운 의미

- 1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네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왔는데 그 산은 늦산이더라
- 2 첫째 병거는 홍마들이, 둘째 병거는 흑마들이,
- 3 세째 병거는 백마들이, 네째 병거는 어롱지고 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 4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가로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이까
- 5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셨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 6 흑마는 북편 땅으로 나가매 백마가 그 뒤를 따르고 어롱진 말은 남편 땅으로 나가고
- 7 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 8 그가 외쳐 내게 일러 가로되 북방으로 나간 자들이 북방에서 내 마음을 시원케 하였느니라 하더라
- 9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 10 사로잡힌 자 중 바벨론에서부터 들어온 헬대와 도비아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었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취하되
- 11 은과 금을 취하여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 12 고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돌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 13 그가 여호와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위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위에 있으리니 이 두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 14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아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험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 15 만 데 사람이 와서 여호와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뉘는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의 말씀을 청종할진대 이같이 되리라

## 1. ㉠ 본장의 내용을 요약하라.

- ㉠ (1) 본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두 가지 환상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불어넣어 주심을 보여 준다.
- (2) 첫째, 네 종류의 말들이 이끄는 네 병거의 환상으로 주위 대적들을 물리쳐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는 것을 약속하시며 둘째, 여호수아에게 금과 은으로 만들어진 면류관을 씌워 주는 환상을 통해 제사장이요 또한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약속해 주신다.
- (3) 여기서 4란 수는 1:18의 네 뿔, 1:20의 네 공장 그리고 단 7:2의 네 바람과 같이 사방을 상징하여 이스라엘 주위의 대적들을 물리치려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내며, 여호수아의 대관식을 통하여 왕권과 제사장의 직무를 함께 수행하실 메시아의 사역을 보여 준다.

## 2. ㉠ 스가라는 무슨 환상을 보았는가? (1-3절)

- ㉠ (1) 늦산 사이에서 나온 네 병거를 보았는데 첫째 병거는 홍마들이, 둘째는 흑마들이, 세째는 백마들이, 네째는 어롱지고 긴장한 말들이 메어 있었다.
- (2) 이 네 병거는 하나님의 천사들로서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징벌하기 위하여 파송되었다. 따라서 병거는 하나님의 권위와 심판을 상징한다.

(3)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대적들을 징벌하실 때 당신의 능력과 권위로써 심판하신다.

(4) 그러므로 우리는 대적들이 우리를 괴롭게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참조, 롬1:17).

3. **㉠ 네 병거가 나온 낫산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1절)**

**㉠** (1) 낫은 고대인들 사이에서 매우 가치있는 것으로 통용되었다. 따라서 여기 '낫산'이란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강력한 힘으로 보호하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2) 또한 '낫산'이란 섭리의 영원성과 확고함을 보여 준다. 낫이란 강력한 것을 의미(단2:39)하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나오는 곳, 즉 하나님의 거하시실 장소를 말한다(참조, 14:4; 욕3:16).

(3) 또한 '순'이 오셔서 여호와와의 전을 건축할 것은 성전 건축이 '순'의 사역에서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 주는데 이것은 예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요2:19)고 하신 말씀처럼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신약의 교회가 세워질 것을 예언한 것이다.

4. **㉠ 네 병거를 메고 나오는 말들의 색깔과 그 의미는 무엇인가? (2, 3절)**

**㉠** (1) 병거를 메고 나오는 말들은 홍마와, 흑마와, 백마 그리고 어룡진 말들이다.

(2) 먼저 홍마의 붉은 색은 피를 나타내는 색으로 앞으로 있을 대학살과 재앙을(계6:4) 그리고 흑마의 검은 색은 슬픔, 비통함, 죽음 등을(계6:5) 나타내고, 백마의 흰색은 승리(1:8; 계6:2)를, 마지막 어룡진 말의 색은 이 모든 색깔의 혼합으로서 건강하다는 형용사가 덧붙여 앞으로 다가올 심판의 가혹함을 나타낸다.

(3) 이와 같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정하신 심판과 뜻을 이루기 위해 사용하시는 상징적인 도구이다.

5. **㉠ 천사가 스가라에게 설명한 병거는 무엇인가? (4, 5절)**

**㉠** (1) 그 병거는 하늘의 네 바람으로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셨다가 나가는 것이다.

(2) '바람'은 히브리어로 <루아흐>인데 이것은 '영' 또는 '호흡' 등의 의미를 갖는다. 이 말은 하나님과 사람 또는 다른 영적 존재들과 관련하여 사용되었다.

(3) 따라서 본절에서 '바람'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순종하는 하늘의 영들, 즉 천사들을 말한다(참조, 시104:4; 히1:7).

(4) 그리고 '주 앞에 모셨다가 나가는 것'은 주님을 수종드는 하늘의 영, 즉 천사들로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다.

6. **㉠ 병거를 쫓는 말들이 진행되는 방향은 어디인가? (6절)**

**㉠** (1) 흑마는 북편 땅으로 나가고 백마가 그 뒤를 따르고 어룡진 말은 남편으로 나갔다.

(2) 말들이 나아간 방향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방 열국들이 있는 곳으로 흑마와 백마가 나아간 북편에는 바벨론이 있었고, 어룡진 말이 나아간 편엔 애굽이 자리잡고 있었다.

(3) 그런데 북쪽으로 두 병거가 가고 남쪽으로 한 병거가 간 것은 북쪽 바벨론의 죄악이 더 크기 때문이다(참조, 렘1:13).

(4) 또한 먼저 흑마가 나아간 것은 재앙이 그 성에 임하여 교만함을 무너뜨리고(렘51:53, 56), 백마가 그 뒤를 따른 것은 정복하고, 굴복시킨 것(렘50:46)을 보여 준 것이다.

(5) 이 예언은 바사의 통치에 반대하여 반란을 일으키던 바벨론이 3년 후 완전히 멸망당하면서 성취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미래의 대환난 기간에 있을 세상의 궁극적 패망도 예언한 환상이다(참조, 계11:15; 18:21).

7. **㉠ 진장한 말은 무슨 일을 하는가? (7절)**

**㉠** (1) 그 말은 땅에 두루 다니는 일을 한다.

- (2) 즉 '건장한 말'은 어룡진 말을 가리키는 것으로(3절) 세상을 순찰하는 임무를 갖고 있다. 또한 이들은 세상을 돌아다니며 정복할 기세를 보이는데 마 24:6-8과 같이 세상을 혼란하게 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것을 이루도록 준비하는 역할을 한다.
- (3) 그러므로 세상에서 발생하는 정치적 사건이나 천재 지변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주관하시는 것임을 알 수 있다.

8. **㉠ 북방으로 나간 자들은 무슨 일을 하였는가? (8절)**

- ㉠** (1) 북방으로 나간 자, 즉 흑마들은 북방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였다.
- (2) 여기서 북방으로 나간 자는 이스라엘의 적국인 바벨론을 점령한 메대 바사를 상징한다.
- (3)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지나치게 괴롭히는 원수들에 대해 심히 진노하셨는데(1:15) 원수를 진멸한 흑마, 즉 메대 바사로 인해 마음이 시원해지셨다.
- (4) 한편 본절에 '내 마음을 시원케 하였다'는 말은 '풀리다'는 의미인데 쥘 5:13;16:42; 24:13 등에서도 같은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 (5) 결국 하나님의 예언은 역사적으로 바벨론이 메대 바사에 의해 멸망(B. C. 539) 됨으로 성취되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이 지나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 따라서 대환난과 함께 예언된 세상의 종말(참조, 벨후 3:7; 계 6-8, 20장)에 대한 예언 언도 성취될 것이다.

9. **㉠ 바벨론에서 돌아온 자들의 대표는 누구인가? (10절)**

- ㉠** (1) 사로잡힌 자 중 돌아온 자의 대표는 헬대와 도비아와 여다야였다. 그들은 바벨론에 거하고 있으면서 성전 재건을 돕기 위해 바벨론에서 금과 은을 거둬어 예루살렘에 가지고 온 유대인들이다.
- (2) 그리고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도 그들 중의 한 명으로 대표자에 포함되어 있다(참조, 14절, ㉠ 16).
- (3) 각각의 이름들의 의미로 헬대는 '건장하다', 도비아는 '하나님은 선하시다', 여다야는 '하나님께서 아신다', 요시아는 '하나님께서 지지하신다', '세우신다'를 뜻하고 있는데 이들 이름의 의미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성취의 특성이 나타나 있음을 알 수 있다.
- (4) 그러므로 바벨론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함께 재건하고자 하는 성전은 이 이름들의 뜻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10. **㉠ 세 사람들이 요시아의 집에서 은과 금을 취하여 무엇을 만들었는가? (11절)**

- ㉠** (1) 그들은 은과 금을 가지고 면류관을 만들었다.
- (2) 면류관을 만들도록 한 이유는 성전 재건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는 일부 지도자들을 깨우쳐서 유대인들을 바른 신앙으로 이끌기 위함이었다.
- (3) 그런데 히브리 원어로 '면류관들'이라는 복수형이 사용되는 '면류관'은 두 직분, 즉 왕과 제사장의 직분을 상징하므로 메시아에 대한 직분을 예표하고 있다.

11. **㉠ 은과 금으로 만든 면류관을 누구에게 씌워졌는가? (11절)**

- ㉠** (1)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면류관이 씌워졌다.
- (2) 이것은 그리스도론적으로 큰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 왜냐하면 분명히 왕권은 다윗의 가문에만 주어진 것인데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에게 왕이 쓴 면류관이 주어졌기 때문이다.
- (3) 이것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왕권이 위임됨으로 두 권위가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것을 보여 준다.
- (4) 그러므로 여호수아에게 면류관을 씌운다는 것은 상징적 의미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한 왕이요, 제사장이시라는 것을 뜻한다.

12. **㉠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사람은 누구인가? (12절)**

- ㉠** (1)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돌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것이다.

(2) 여기서 '순'은 메시아를 가리키는데(3:8; 렘 23:5; 33:15) 그가 '자기 곳에서 돌아나서'라는 것은 메시아께서 큰 권위와 영광 가운데 나지 않으시고 비천한 가운데 나실 것을 의미한다. 실제 이 예언은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 탄생하심으로 성취되었다(마 2장; 눅 2장).

(3) 또한 '순'이 오셔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것은 성전 건축이 '순'의 사역에서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 주는데 이것은 예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요 2:19)고 하신 말씀처럼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신약의 교회가 세워질 것을 예언한 것이다.

13. **㉠** 통치자로 오실 '순'은 어떤 분이신가? (13절)

**㉠** (1) 그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여 영광을 받으시며 그 위에 앉아서 다스릴 자이다.

(2) 즉 그의 출생이 비록 비천하다 해도 그는 중국에는 왕의 영광을 받으실 것이며 면류관을 쓰실 것이다.

(3) 한편 성경에서는 그가 왕으로 오실 것에 대해서도 많은 증거를 하고 있다(참조, 시 2:6; 사 9:7; 32:1; 렘 23:5; 단 7:14). 그리고 그가 왕으로 오셨음을 증거하는 귀절들도 있다(참조, 마 2:2; 요 1:49; 고전 15:25; 계 1:5).

14. **㉠** 제사장으로 오실 '순'에 대하여 설명하라 (13절).

**㉠** (1) 제사장으로 오신 그가 자기 위(位)에 있을 것이다. 이것은 '순'이 통치자일 뿐 아니라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나타낸다.

(2) 그런데 그가 제사장으로 오신다는 것은 창 14:18-20; 시 110:4의 멜기세덱에 관한 귀절에서 처음 나타나는데 이것은 히 6:20에서 확실하게 증명되고 있다.

15. **㉠** 제사장과 왕 사이에 무엇이 있을 것인가? (13절)

**㉠** (1) 제사장과 왕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을 것이다.

(2) 즉 속죄를 위한 제사장의 역할과 심판을 위한 왕의 역할이 하나가 되어 평화를 위해 의논이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왕과 제사장의 연합으로 죄를 속하실 것이다.

(3)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를 용서받고 왕이신 그의 법에 지배를 받을 때 우리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다(사 53:5; 행 10:36; 롬 5:1; 엡 2:14; 골 1:20).

16. **㉠** 여호수아가 쓴 면류관은 어디에 두게 되는가? (14절)

**㉠** (1) 그것은 여호와의 전(殿) 안에 두게 되었다.

(2) 왜냐하면 헬렘과 도비아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두게 하였기 때문이다.

(3) 그런데 본절에 나오는 이름은 10절에 기록된 이름과 조금 차이가 있다. 헬렘은 '강하다'는 의미이고 헨은 '은혜'라는 의미로서 헬렘은 헬대가 헨은 요시아가 개명(改名)된 것이다.

(4) 한편 이들이 가져온 은과 금으로 만든 면류관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 기념하라는 것은 그들의 신앙을 통해 후세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함이다.

(5) 이것은 오늘을 사는 성도들에게 도전(挑戰)을 준다. 바벨론에 거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 재건하는 일에 자신들이 직접 참여할 수 없게 되자 대표들을 보내 성전 재건을 도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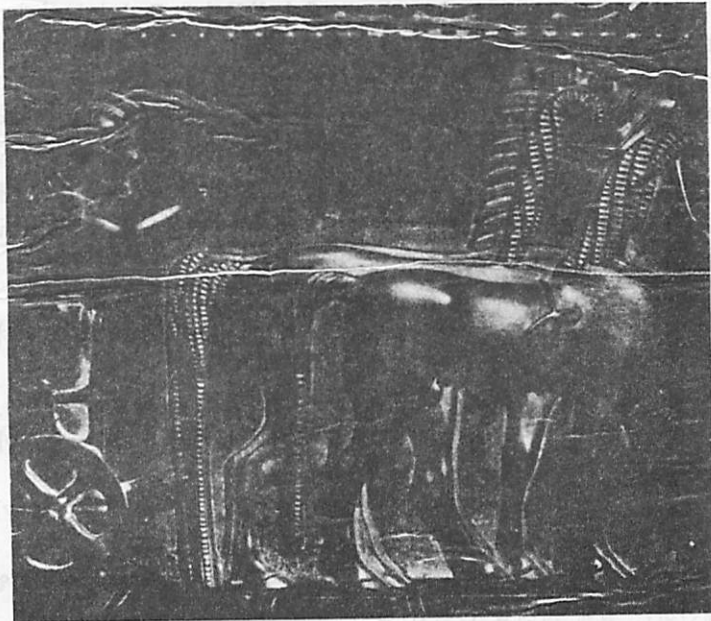
(6)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은 교회의 사명이 복음 전파에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 일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그것은 그들이 복음 사역에 동참한다는 것은 자신이 직접 나서야만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복음 사역에는 각 개인의 재능과 환경에 따라 동참하는 방법이 다양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전 12:6-30).

17. **㉠** 누가 와서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가? (15절)

- Ⓐ (1) 먼 곳의 사람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것이다.  
 (2)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도 성전 건축을 돕게 될 것이라 약속하신다. 이 예언은 바사 왕들이 성전 건축과(스 6:8) 성전 장식에 힘을 합함으로(스 7:19, 20) 성취되었다.  
 (3) 또한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신 신약 시대에 많은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 모여 교회를 이루게 됨으로 성취되었다(엡 3:6).

### 화보자료

정교하게 양각(陽刻)된 말과 병거. B. C. 6세기경의 것으로 추정되어지는 질그릇에 새겨진 문양이다. 샤틀론·습을 세누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다.



본장 전반부의 내용은 스가랴가 본 여덟번째 환상에 관한 것이다(1-8절). 이 환상 가운데 나오는 네 병거와 그 병거를 이끄는 각각의 말들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열국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데 궁극적으로는 종말에 있을 세상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도 의미한다(계 11:15; 18:21).

## 제 7 장 금식에 관한 교훈

단락구분 1-3 금식을 계속할 것인가 질문하다 / 4-7 형식적으로 금식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다 / 8-14 금식보다 더 중요한 율법을 어긴 조상들을 예로 들어 경고하다

1 다리오 왕 사년 구 월 곧 기슬래 월 사 일에 여호와와 말씀이 스가라에게 임하니라

2 때에 벨엘 사람이 사레셀과 레겔멜렉과 그 종자를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3 만군의 여호와와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가로되 우리가 여러 해 동안에 행한 대로 오 월간에 울며 재계하리이까 하며

4 만군의 여호와와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5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칠십 년 동안 오 월과 칠 월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한 것이나

6 너희의 먹으며 마심이 전혀 자기를 위하여 먹으며 자기를 위하여 마심이 아니냐

7 여호와가 이전 선지자로 외친 말을 너희가 청종할 것이 아니냐 그때에는 예루살렘과 사면 읍에 백성이 거하여 형통하였고 남방과 평원에도 사람이 거하였었느니라

8 여호와와 말씀이 스가라에게 임하여 이르

시되

9 만군의 여호와와가 이미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피차에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10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남을 해하려 하여 심중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11 그들이 청종하기를 싫어하여 등으로 향하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12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와가 신으로 이전 선지자를 빙자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노가 나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나왔도다

13 만군의 여호와와가 말하였었노라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은즉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고

14 회리바람으로 그들을 그 알지 못하던 모든 열국에 헤치리라 한 후로 이 땅이 황무하여 왕래하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으로 황무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 1. ㉠ 본장의 중요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라.

- ㉠ (1) 본장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지켜 왔던 금식을 계속할 것인지에 대해 선지자에게 질문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 (2) 이 문제에 대하여 선지자는 먼저 그 참된 의미를 잃어버리고 형식적인 금식만 계속하는 백성들을 책망하고, 이어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던 조상들을 예로 들어 그들의 거짓된 태도를 경고한다.
- (3) 실제로 하나님께서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의미 없는 금식이 아니라 백성들 사이에 공의가 행하여지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 (4) 오늘날 성도들의 신앙 역시 타성에 젖어 주일 예배에 출석을 잘하거나 십일조를 잘 드리면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큰 문제이다. 중심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바리새인같이 형식이 앞설 때 주님은 그들을 책망하실 것이다(참조, 마 23:23).

### 2. ㉠ 스가라에게 세번째 여호와와의 말씀이 임한 때는 언제인가?(1절)

- ㉠ (1) 세번째(참조, 1:1, 7)로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라에게 임한 때는 다리오 왕(Darius II) 4년(B. C. 518) 9월 곧 기슬래 월(태양력 11, 12월) 4일이다.
- (2) 이때는 16년간 중단되었던 성전 재건이 B. C. 522년 다시 시작되어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던 때였다.
- (3)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가 날짜까지 기록된 것은 역사 속에 살아 계시는 하나님과 또한 그

의 제시가 사실에 입각한 정확한 말씀임을 보여 주는 것이다.

### 3. ㉠ 여호와께 은혜를 구한 자들은 누구인가? (2절)

- ㉠ (1) 벨엘 사람이 사레셀과 레겔멜렉과 그 종자를 보내어 은혜를 구했다.  
 (2) 이들은 바벨론에서 돌아온 자들(스 2:1; 2:28)인데 그들의 문제(금식에 관한 문제)를 제사장과 선지자를 통해 해결받고자 찾아온 것이다.  
 (3) 그런데 이들은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는 동안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었다(시 74:9; 애 2:9; 겔 7:26). 그러나 이제 해방되어 말씀을 듣게 되었으니 그들은 기쁨과 함께 그들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하나님 앞에 찾아왔다.  
 (4) 이와 같이 성도들도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나아와 기도하며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모든 일을 해야 할 것이다.

### 4. ㉡ 벨엘에서 온 사람들이 질문한 내용은 무엇인가? (3절)

- ㉡ (1) 그들은 평소에도 지킨 5월간의 금식을 계속할 것인가에 대하여 질문했다.  
 (2) 이들이 지킨 '5월간의 금식'이란 바벨론에 의해 제5월에 성전이 파괴된 것(왕하 25:8, 9)을 기념하여 금식한 것을 말한다.  
 (3) 그런데 지금까지는 성전이 파괴된 이유로 금식했으나 이제 성전이 재건된 후에도 금식을 계속해야 옳은 일인지 질문을 한 것이다.

### 5. ㉢ 벨엘에서 온 사람들은 누구에게 질문했는가? (3절)

- ㉢ (1) 그들은 만군의 여호와와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질문했다.  
 (2) 그들이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질문한 이유는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신령한 교통 기관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학 2:11; 말 2:7).  
 (3) 즉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은 성직자들에게 특별한 의무와 함께 권리를 부여해 주셨기에 그들을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신적 권위를 가진 것으로 여겨졌다(참조, 레 8:30; 삼상 10:1; 왕하 9:3).  
 (4) 그래서 벨엘에서 온 자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듣기 위해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나아간 것이다.

### 6. ㉣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지킨 금식은 어떤 것인가? (5절)

- ㉣ (1) 그들은 70년 동안 5월과 7월에 금식하며 애통했다.  
 (2) 그러나 이들이 지킨 금식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금식이 아니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법으로 제정한 유일한 금식은 속죄일의 금식뿐이었다(레 16:29; 23:27, 29; 민 29:7).  
 (3) 즉 이들이 지킨 5월의 금식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점령하여 성전을 파괴시킨 것을 슬퍼하며 시작된 것(렘 52:12, 13)이고, 7월의 금식은 유다 총독 그달리야가 암살당한 것과 유다인들이 살해당한 것을 기억하여 지킨(왕하 25:23-25) 것이었다.  
 (4) 이처럼 이 금식들은 사람이 정하여 지킨 것이었고, 또한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형식에 치우쳐 금식을 엄격히 지키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축복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런 형식주의 신앙이 귀환 후 유다 전역에 크게 유행하였다.  
 (5) 교회 역사를 돌이켜볼 때도 의미를 상실하고 형식이 난무할 때면 하나님에 대한 존경은 사라지고 인간의 권위와 허세가 종교계를 어둡게 했다. 그런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잘못됨을 묵과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징계하셨다.

### 7. ㉤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을 어떤 태도로 지켰는가? (5, 6절)

- ㉤ (1) 그들은 금식할 때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이 없었고 단지 자신들을 위하여 금식하고 자기들만을 위하여 먹고 마셨다.  
 (2) 진정한 금식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며 기도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그들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해서 금식을 행했다.

(3) 그러므로 진정한 금식자는 그들이 금식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기도하는 자이며(마 6:16-18) 금식하지 않을 때도 하나님 중심의 태도를 가지고 생활하는 자이다(참조, 고전 10:31).

8. **㉠**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에 관하여 책망받은 이유는 무엇인가? (7절)

**㉠** (1) 그들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외친 말씀을 청종했다면 바벨론에 잡혀가지 않고 본국에 거하며 형통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2)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라고 가르치신다. 순종할 때에 개인이나 민족이 모두 흥왕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사야(사 58장)와 여러 선지자를 통해 경고하신 말씀을 무시하여 바벨론에 잡혀가고 말았다.

(3) 한편 하나님은 징계하시기 전에 반드시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 어두운 길에서도 밝은 빛을 비취 주시어(참조, 시 119:105) 장래의 위협을 면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다.

(4)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을 때 즉시 죄를 회개하고 생활을 개혁하며 생명의 빛을 따라 살아야 할 것이다.

9. **㉠**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것은 무엇인가? (9절)

**㉠** (1) 진실한 재판을 행하라고 하셨다.

(2) 즉 이것은 사실에 따라 올바르게 재판하며 공의(公義)를 실천하라는 명령이다.

(3) 이 명령은 통치자에게 주어졌으므로 통치자가 공의를 행할 때 나라가 건고해진다(잠 29:4).

(4)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행하도록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경고하시며(사 1:17; 렘 21:12; 미 6:8), 불의를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지 않으신다(고전 6:9).

(5)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공의대로 살며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불의를 지적할 수 있어야 한다.

10. **㉠** 하나님께서 공의 외에 더 명령하신 것은 무엇인가? (9, 10절)

**㉠** (1) '피차에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남을 해하려 하여 심중에 도모하지 말라'고 하셨다.

(2) 이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랑을 실천하라는 말씀이다. 이는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이행하면 사람과의 관계는 무시되어도 괜찮다는 생각들이 잘못되었음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참조, 막 7:11).

(3) 또한 십계명에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1-4계명)과 사람에 대한 사랑(5-10계명)이 함께 포함되어 있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 분리할 수 없음을 말한다(참조, 요일 4:20).

(4) 따라서 지도자는 공의를 행하여야 하며, 일반 백성들은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데 이를 실행하지 않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다.

(5)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지도자와 성도들도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징계가 기다리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11. **㉠**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이스라엘 조상들의 태도는 어떠했는가? (11, 12절)

**㉠** (1) 하나님 말씀 청종하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고 귀를 막고 마음을 굳게 하였다.

(2)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조상들의 행적을 예를 들어 지금의 백성들이 조상들의 행적을 따르지 않도록 권면하셨다.

(3) 사실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심령이 강석같이 굳어서(렘 17:1; 겔 3:9) 하나님 말씀이 전혀 뿌리 내릴 수 없는 길 가와 같았다(마 13:4, 19).

(4) 결국 그들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가르쳐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여 하나님께 반역을



범한 것이다(참조, 느 9:29).

(5) 이러한 반역은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어 (창 3:17) 지금까지 계속되어진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한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것은 우리에게 양약이 된다(잠 16:24).

**12 C 이스라엘 조상들의 불신앙적 태도에 대한 하나님의 대응책은 무엇인가? (13, 14절)**

- A** (1) 그들이 도움을 호소하여도 듣지 않으시고 그들을 열국에 흠으시고 또한 그들이 거하던 땅을 황무케 하셨다.
- (2) 유다 왕국이 선지자들의 경고(사 30:1-7; 31:1-3; 렘 26:18; 미 3:11, 12)를 무시하고 회개를 촉구(사 1:18)하는 말씀을 듣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에 대하여 등을 돌리셨다(참조, 잠 1:24-28; 사 1:15; 렘 11:11).
- (3)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통하여 B. C. 597년 유다를 침략하게 하여 여호야긴 왕과 많은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게 한 것(왕하 24:10-17)을 시작으로 네 차례에 걸친 침략으로 유다를 멸망시키셨다(B. C. 586).
- (4) 결국 유다 땅은 하나님의 경고대로 황폐해졌고(참조, 대하 26:21; 렘 7:34; 겔 12:19) 거민도 없었으며(9:8; 습 3:6) 그 기간이 70년을 지나게 되었다(렘 25:12; 29:10).
- (5)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전통이나 의식을 내세워 당신의 경고를 무시하는 자를 용서하지 않으시고 중심에서 회개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분(시 34:18; 사 57:15; 욥 2:13)임을 알 수 있다.

**연구자료**

구약에 언급된 과부, 고아, 나그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은 고향을 떠난 나그네로서의 실움을 당해야 했으며 과부와 고아들처럼 의지할 곳 없는 가련한 백성으로 살았다. 그러나 그들의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압제자의 손에서 구원하시어 약속된 땅 곧 그들의 본향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 바로 이 구속사적 사건을 기념하도록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당했던 처지와 비슷할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가장 소외되기 쉬운 이들을 보호하도록 율법으로 정하셨던 것이다(참조, 출 22:21, 22; 23:6; 레 19:33, 34; 신 10:18, 19; 14:29; 16:11, 14; 24:17, 18). 한편 본장에서는 구제의 대상으로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 외에 궁핍한 자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수께서 '가난한 자'와 '병든 자'라고 말씀하신 것과 일맥 상통(一脈相通)한다(참조, 마 11:5; 19:21; 26:9, 11; 막 11:42; 14:5, 7; 눅 4:18; 6:20; 14:13; 19:8; 21:3; 요 12:5, 6).

## 제 8 장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회복을 약속하시다

단락구분 1-8 예루살렘이 회복되다 / 9-13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축복하시다 / 14-17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다 / 18-23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께 나아오다

- 1 만군의 여호와와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 2 만군의 여호와와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 3 나 여호와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컬겠고 만군의 여호와와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 4 만군의 여호와와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지아비와 늙은 지어미가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 많으므로 각기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 5 그 성읍 거리에 동남과 동녀가 가득하여 거기서 장난하리라
- 6 만군의 여호와와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와 말이니라
- 7 만군의 여호와와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을 동방에서부터, 서방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 8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성실과 정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 9 만군의 여호와와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와 집 곧 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일어난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때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 10 그날 전에는 사람도 샷을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샷을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대적을 인하여 출입에 평안치 못하였었나니 이는 내가 못 사람으로 서로 치게 하였음이었나니와
- 11 만군의 여호와와 말하노니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전일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 12 곧 평안한 추수를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아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 13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로 축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 14 만군의 여호와와 말하노라 전에 너희 열조가 나의 노를 격발할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었으나
- 15 이제 내가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 말지니라
- 16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으로 더불어 진실을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 17 심중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나의 미워하는 것임이니라 나 여호와와 말이니라
- 18 만군의 여호와와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 19 만군의 여호와와 말하노라 사 월의 금식과 오 월의 금식과 칠 월의 금식과 사 월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실과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 20 만군의 여호와와 말하노라 그 후에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거민이 올 것이라
- 21 이 성읍 거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할 것이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 22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 23 만군의 여호와와 말하노라 그날에는 방언이 다른 열국 백성 열 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 1. Q 본장의 중심 내용은 무엇인가?

- Ⓐ (1) 본장에는 진노에서 돌이키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으로 감싸주시며 미래에 대한 축복을 약속하시는 것이 기록되어 있다.
- (2) 특히 하나님께서는 황폐한 예루살렘이 회복되어 풍요롭게 될 것과 이방 민족들이 돌아와 구원을 얻게 되리라고 예언하셨다.
- (3)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약속 뿐 아니라 그들이 지켜야 할 계명도 제시하셨다. 즉 공의를 행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 것을 명하셨다.
- (4)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범죄하여 당신의 통치를 벗어났다 해도 그들에게 끝까지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요 13:1).
- (5) 따라서 오늘날 성도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시는 증거(잠 3:12; 29:17; 히 12:6)임을 알고 감사하며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변화된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

2. ㉠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온을 위하여 질투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1, 2절)

- Ⓐ (1) 그것은 하나님께서 시온,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 (2) 여기서 '질투'는 히브리어로 <카나>인데 이것은 미움이나 시기라는 의미보다 사랑하는 자에 대한 큰 관심을 나타내는 말이다(1:14).
- (3) 따라서 이것을 통해 볼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미워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행한 죄를 미워하셨음을 알 수 있다.
- (4) 한편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죄는 그분께 드려야 할 사랑을 다른 대상에게 드리는 것, 즉 우상 숭배이다.
- (5)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사랑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분은 사랑으로 받아 주신다(눅 15:20-24).

3. ㉠ 여호와 하나님께서 돌아오사 거하신 곳은 어디인가? (3절)

- Ⓐ (1) 하나님께서는 시온에 돌아오셔서 진리의 성읍인 예루살렘에 거하셨다.
- (2) 하나님께서 시온에 돌아오시겠다는 약속은 1:16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수축될 것을 의미한다(참조, 1장 ㉠ 20).
- (3) 하나님께서 시온에 돌아오심으로 성전이 재건되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에는 어떤 사건도 문제시될 수 없다. 따라서 모든 성도들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간구해야 한다(참조, 시 32:6; 사 26:16).

4. ㉠ '진리의 성읍'은 어디를 말하는가? (3절)

- Ⓐ (1) 진리의 성읍은 예루살렘을 말한다.
- (2) 이것은 창기처럼 되었던 성읍이(사 1:21) 이제 신실한 성읍으로 회복될 것을 의미한다.
- (3) 한편 이것은 그 성에 거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자가 될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 (4) 따라서 오늘날 예루살렘으로 표현되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므로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하고 경건하며 또한 도덕적으로도 깨끗해야 한다.

5. ㉠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예루살렘 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4, 5절)

- Ⓐ (1) 길거리에는 늙은 지아비와 늙은 지어미가 다시 앉고 나이가 많아 지팡이를 의지할 것이며 성읍 거리에는 많은 남여 어린이들이 모여 장난할 것이다.
- (2) 이런 모습은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때와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가 있다. 그때는 예루살렘이 황무하여 거민도 없었으나(7:14; 습 3:6) 이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한 회복된 모습을 보여 준다.
- (3) 즉 예루살렘이 안정되고 평안하기 때문에 노인들이 장수하고, 많은 어린이들이 태어날 것이다. 무릇 장수와 자녀의 많음은 하나님의 축복이다(출 20:12; 신 7:13; 시 128:3-5).

(4) 이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사회는 영화와 번영이 약속되며 개인에게는 장수와 자녀의 축복이(시 128:6; 잠 10:27) 임하게 된다.

6. ㉠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어떤 태도로 받아들였는가? (6절)

- ㉠ (1)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이히 여기며 의심하였다.  
 (2) 왜냐하면 그들은 믿음이 부족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이다.  
 (3) 이것은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심한 것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기들의 수준으로 끌어내려 판단하는 약점을 보여 준다.  
 (4)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당신의 전능하심을 가르치시며 사람들에게 기이한 것이 당신께는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님을 말씀하신다.  
 (5)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모든 일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잠 3:6).

7. ㉠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무엇인가? (7, 8절)

- ㉠ (1)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동방과 서방에서부터 구원하여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자신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을 약속하셨다.  
 (2) 이 말씀은 사방으로 흩어져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모아 당신의 나라를 재건하시겠다는 약속이다(시 107:3; 사 43:5; 49:12; 겔 37:21).  
 (3) 그러나 여기서 동방과 서방에서부터 구원해 내신다는 말씀은 당시 상황과 다소 차이가 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간 바벨론은 이스라엘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4) 따라서 이 말씀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당신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시대에 온 세계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실 것을 예언한 말씀이기도 하다(참조, 10:8; 사 5:26; 11:12).  
 (5) 즉 '동서'란 온 땅을 모두 포함하는 말로 세계 각처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으로 인해 하나님께 되돌아올 것을 일컫는다.

8. ㉠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8절)

- ㉠ (1) 그 말은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의미한다.  
 (2) 이스라엘의 최대 축복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다.  
 (3)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축복의 약속을 하실 때 언제나 이 말씀을 사용하셨다(참조, 13:9; 렘 30:22; 31:33; 호 2:23; 계 21:7).

9. ㉠ 성전 지대를 쌓던 날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9절)

- ㉠ (1) '선지자들의 말을 듣는 이때에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하라'고 하셨다.  
 (2)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던 이유는 백성들이 성전을 다시 쌓으려고 지대(地臺)를 놓을 때에 원수들의 방해로 용기를 잃어 공사가 중단되었기 때문이다(스 3:12-14).  
 (3) 이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를 통하여(스 5:1, 2) 성전 재건을 권면하며 격려했다. 그래서 성전은 시작(B. C. 536)된 지 20년 후인 B. C. 516년에 완공되었다.  
 (4)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이나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지도자를 세워 그 일을 이루도록 도우신다.

10. ㉠ 성전을 재건하기 전 이스라엘의 상태는 어떠한가? (10절)

- ㉠ (1) 그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징계로 인하여 사람이나 짐승들이 샴을 받지 못하고 사람들이 대적을 인하여 평안하게 출입하지 못하였다.  
 (2) 사실 그들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혼란과 불안정 그리고 피로움뿐이었다.  
 (3) 그리고 남아 있는 백성들은 노동을 해도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사회

가 혼란하여 불법이 난무했고, 그와 더불어 하나님의 저주가 있었기 때문이다(학 1:6).

(4)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떠나신 곳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삿 16:20, 21; 요 15:5) 황폐하여 어떤 소득도 얻을 수 없다(렘 17:5, 6).

11. **㉠**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신다고 약속하신 것은 무엇인가? (11, 12절)

- ㉠** (1) 평안한 추수를 하게 하며 황폐하던 땅에서 포도가 열리고 많은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2) 즉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시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신 것을 의미한다(호 2:21, 22; 학 2:19).  
 (3)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태도에 따라 사람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에 그의 계획하신 대로 되어지기 때문이다(욘 23:14; 잠 16:33; 사 10:23; 렘 4:28).  
 (4)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히 그분을 신뢰하고 의존해야 한다.

12. **㉠** 하나님께서는 이방 가운데 저주를 받던 이스라엘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는가? (13절)

- ㉠** (1)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축복이 되게 하리라'고 약속하셨다.  
 (2)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당한 괴로움과 멸시 그리고 짓밟히고 버림 받은 것을 보상해 주시겠다는 말씀이다.  
 (3) 그러나 우리는 이스라엘에 대한 저주와 축복이 뚜렷함을 알 수 있다. 즉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어 많은 민족들에게 귀감(龜鑑)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다.  
 (4) 그러므로 당신의 택하신 이스라엘을 징계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의 성도들에게도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징계하심을 알아야 한다.

13. **㉠**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노를 격발할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대처하셨는가? (14절)

- ㉠** (1)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기로 작정하신 것을 번복하지 않으셨다.  
 (2) 이스라엘 조상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하나님을 불신하여 그분을 격노케 하였다(신 9:7, 8, 22).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작정하시고 이를 실천하셨다(렘 20:16; 31:28; 32:42).  
 (3) 이것은 하나님께서 한번 정하신 것은 결코 번복시키지 않으심을 보여 준다.  
 (4) 그런데 이런 말씀을 후손들에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이 지속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참조, 창 15:4-6; 학 2:5).  
 (5) 그러므로 만약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으로 일컬어지는 우리들이 이스라엘 조상들의 잘못을 반복한다면 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도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14. **㉠** 과거 조상들에게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현재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위로하신 말씀은 무엇인가? (15절)

- ㉠** (1) 이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셨으니 두려워 말고 하셨다.  
 (2)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은총을 베푸시기로 결심하셨다.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확실한 소망 가운데 두려움 없이 성전 재건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다.  
 (3)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시며(사 30:18) 그 은혜로 자녀를 삼으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호 1:10; 습 3:17) 이시다.  
 (4) 그 뿐 아니라 그는 당신의 백성을 격려하시며 그들이 두려움 없이 당신을 따르도록 하시는 분이다(출 14:13; 사 41:13; 행 23:11).

15. **㉠**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총을 약속하시면서 어떤 조건을 제시하셨는가?

(16, 17절)

- Ⓐ (1) 서로 진실을 말하며 공의로 재판을 하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고 했다. 왜냐하면 이런 일들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기 때문이다.
- (2) 이것은 당시에 만연했던 죄악들이 거짓, 위증, 사기, 불의 등임을 보여 주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가장 원하시는 것은 '진실'임을 알 수 있다.
- (3) 즉 '진실'은 성전 재건을 하는 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德目)인데 그 이유는 그들이 서로 한 지체(엡 4:25)이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가야 하는 자들(벧후 1:4)이기 때문이다.
- (4)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사 30:18)이시기에 공의를 사랑하신다(사 61:8). 따라서 하나님은 공의 행하기를 명령하셨다(레 19:15; 신 16:18). 그러므로 공의가 있는 곳에는 질서와 평안이 유지될 수 있다.
- (5) 또한 하나님은 이웃 사랑을 명하셨다(레 19:13; 잠 14:21). 그리고 예수께서도 이웃 사랑을 강조하셨다(마 19:19; 22:39; 막 12:31, 33; 눅 10:27).
- (6) 한편 16절에서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고 한 개역 성경은 히브리 원문의 '이러한 것들'(These are the things)이 잘못 번역된 것이다.

16. ⓐ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제정(制定)하여 지킨 금식은 어떤 것들인가? (19절)

- Ⓐ (1) 그들은 4월과 5월 그리고 7월과 10월의 금식을 제정하여 지켰다.
- (2) 여기서부터 스가라는 금식에 대한 질문의 구체적인 답변을 하고 있다. 그리고 질문자들의 내용을 더 명확하게 제시한 후 답변을 준다. 최초의 질문은 5월의 금식에 관한 것뿐(7:3)이었다.
- (3)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정하여 지킨 금식들을 도표로 작성하면 다음과 같다.

	날 짜	금 식 내 용	관 련 성 경
10월 금식	데벳 월 (태양력 12, 1월) 10일	시드기야 왕 9년(B. C. 588-587) 10월 10일 예루살렘이 포위되기 시작한 날을 상기하는 금식	왕하 25:1; 렘 52:4
4월 금식	담무스 월 (태양력 6, 7월) 17일	시드기야 왕 11년(B. C. 586) 4월 9일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느부사라단에 의해 점령된 것을 상기하는 금식	렘 39:2; 52:4
5월 금식	아브 월 (태양력 7, 8월) 9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19년(B. C. 586) 5월 7일 예루살렘 성전이 불탄 것을 상기하는 금식	왕하 25:8
7월 금식	디스리 월 (태양력 9, 10월) 3일	시드기야 왕 11년(B. C. 586) 7월 유다 총독 그달라와 많은 유대인들이 학살당한 것을 상기하는 금식	렘 41:1-10

17. ⓐ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금식이 변하여 어떻게 되리라고 하셨는가? (19절)

- Ⓐ (1) 금식의 괴로움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회락의 절기가 될 것이라고 하셨다.
- (2)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어 본국에 돌아왔으니 굳이 금식을 지킬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 (3)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실과 화평'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참이스라엘

엘(요 1:47)과 참하나님의 자녀된 표시이다.

18. **㉠**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신의 축복이 임한 후 어떻게 될 것이라 하셨는가? (20, 21절)

- ㉠ (1)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거민이 올 것이며 이 성읍 거민이 저 성읍에 가서 만군의 여호와의 처소를 찾고 은혜를 구하자 할 것이고 모두 응답할 것이다' 라고 하셨다.
- (2)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것을 본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찾아 은혜를 구하겠다는 말씀이다.
- (3) 더 나아가 이것은 신약 시대에 많은 민족들이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으로 인해 구원받을 것을 예언한 말씀이기도 하다(참조, 2:11;14:16;사 2:3).
- (4)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강제로 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나오며 또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서로 권면할 것이다.

19. **㉠** 열국과 백성들은 와서 무엇을 할 것인가? (22절)

- ㉠ (1)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의 처소를 찾고 은혜를 구할 것이다.
- (2) 이 예언이 말씀은 로마가 세계를 정복한 후 많은 사람들이 로마를 거쳐 예루살렘에 와서(행 2:9-11)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그들이 회개하게 됨으로(행 2:37) 성취되었다.
- (3) 그리고 회개한 자들을 통하여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어 이방인들이 새 예루살렘, 즉 교회에 모여 은혜를 사모하게 되었다.

20. **㉠** 열국 백성이 누구의 옷자락을 잡을 것인가? (23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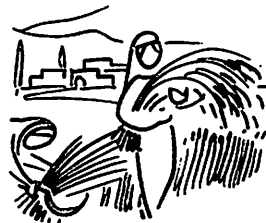
- ㉠ (1) 열국 백성 열 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다.
- (2) 이것은 유다 사람으로 태어나신 그리스도를 향하여 세상이 복종하게 될 것을 예언한 말씀이다(창 48:10;시 18:44, 47;빌 3:20, 21).
- (3) 한편 이 말씀은 유대인들을 통하여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될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 (4) 사실 유대인들이 예수의 제자들을 통하여 천국 복음이 온 세계에 퍼지기 시작했다(마 28:16-20;행 1:8).

21. **㉠** 하나님은 열국 백성들이 유다 사람에게 무엇을 말할 것이라고 예언하셨는가? (23절)

- ㉠ (1)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는 말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하셨다.
- (2) 이것은 복음을 들은 이방인들(참조, 행 13:48;28:28;롬 15:9;갈 3:14)이 유대인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나아가 그들이 복음 운동의 지도자가 될 것을 예언한 말이다.
- (3) 이런 이유에서 오늘날 복음을 받은 우리도 예수의 명령(마 28:19, 20;행 1:8)인 복음 전파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 본장의 요절

'곧 평안한 추수를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12절).



# 제 9 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약속하시다

단락구분 1-8 하나님께서 이방에 대하여 경고하시다 / 9-10 이스라엘이 메시아의 오심을 기뻐하다 / 11-17 이스라엘의 승리와 보호가 약속되다

1 여호와와의 말씀의 경고가 하드락 땅에 임하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세상 사람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보이니라

2 그 접경된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은 넓은 지혜가 있으니 그들에게도 임하리라

3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보장을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정금을 거리의 진흙같이 쌓았은즉

4 주께서 그를 쫓아내시며 그의 바다 권세를 치시리니 그가 불에 삼키울지라

5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론은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칠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거민이 없을 것이며

6 아스돗에는 잡족이 거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7 그 입에서 그 피를, 그 잇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하리니 그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두목같이 되겠고 에그론은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

8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9 시온의 딸아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딸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10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11 또 너로 말할진대 네 언약의 피를 인하여 내가 너의 갠한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12 소망을 품은 갠했던 자들아 너희는 보장으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날도 이르노라 내가 배나 네게 값을 것이라

13 내가 유다로 당진 활을 삼고 에브라임으로 먹인 살을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네 자식을 격동시켜 헬라 자식을 치게 하며 너로 용사의 칼과 함께 하리라

14 여호와께서 그 위에 나타나서 그 살을 번개같이 쏘아 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리시며 남방 회리바람을 타고 행하실 것이라

15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매 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16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 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면류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니

17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소년은 곡식으로 강건하며 처녀는 새 포도주로 그러하리니

## 1. ㉠ 본장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라.

- ㉠ (1) 본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원수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시지만 당신의 백성들에게는 승리와 보호 그리고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주신다.
- (2)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대적하던 이방 민족들에게 그들이 거하던 땅에서 추방시키고 또한 그들의 교만을 꺾으실 것이라고 경고하신다(4,6절).
- (3) 그 뿐 아니라 당신의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에 대한 소망(9,10절)과 아울러 그들을 보호하며 이방 민족에 대해 승리자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다(13-15절).
- (4) 그러므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해도 그분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구원이 보장되며 또한 그런 어려움이 지나면 더 큰 기쁨과 소망이 있게 된다.

2. **㉠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주어진 곳은 어디인가? (1절)**

- ㉠** (1) 여호와 하나님의 경고가 임한 곳은 하드락과 다메섹이다.  
 (2) 하드락은 레바논의 북서 지역에 위치한 성읍인데 이 명칭은 성경 중에서 유일하게 본절에만 언급되어 있다.  
 (3) 한편 다메섹은 헤르몬 산 북쪽에 위치한 도시로 구약 시대에 수리아 왕국의 수도였다 (왕상 11:24;15:18;19:15;왕하 14:28;16:10-12;사 7:8).

3. **㉠ 하나님의 경고가 하드락과 다메섹에 주어진 이유는 무엇인가? (1절)**

- ㉠** (1) 그것은 세상 사람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보았기 때문이다.  
 (2)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대적들의 손으로부터 구원되기를 믿음과 기도로써 요청하며 하나님의 보호를 간구하였기 때문이다.  
 (3) 이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반역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원수들에게 경고하시며 멸망시키신다.

4. **㉠ 하드락과 다메섹 외에 하나님의 경고가 주어진 곳은 어디인가? (2절)**

- ㉠** (1) 그곳은 다메섹의 접경인 하맛과 넓은 지혜가 있는 두로와 시돈이다.  
 (2) 하맛은 수리아 중부의 성읍으로 하맛 왕국의 수도였고, 두로는 베니게에 있던 고대 성읍으로 지중해의 동편 해안에 위치하였다. 그리고 시돈은 두로와 베이루트의 중간으로 두로 북편 32km 지점에 있는 베니게의 성읍이었다.  
 (3) 한편 두로와 시돈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또한 크게 번성했던 도시들 가운데 하나였다 (참조, 사 23:2; 겔 27:3-9).  
 (4) 두로는 백향목으로 유명하여 다윗과 솔로몬에게 건축을 위한 목재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참조, 삼하 5:11; 왕하 5:1).  
 (5) 그리고 시돈은 염색 공업이 발달하고 상업이 번성하므로 풍요한 생활을 누렸다.

5. **㉠ 두로의 성읍과 그들의 경제 상태는 어떠했는가? (3절)**

- ㉠** (1) 두로는 난공 불락(難攻不落)의 도시였으며, 무역이 크게 번창하여 은과 금을 먼지처럼 많이 사용하였다 (참조, 겔 28:3,4).  
 (2) 그리고 두로는 작은 섬이지만 높은 성벽으로 둘러 있는 천연의 요새였다.  
 (3) 그래서 앗수르의 살만네셀 (Shalmaneser, B. C. 727-722)에 의해 5년간 포위당하고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B. C. 605-562)에 의해 13년 동안 포위당했으나 함락되지 않았다.

6. **㉠ 전고한 두로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떤 징벌을 내리시겠다고 하셨는가? (4절)**

- ㉠** (1) 주께서 그를 쫓아내시며 그의 바다 권세를 치시고 불에 삼키우게 하신다고 하셨다.  
 (2) 이것은 전고한 두로가 멸망될 것을 예언하신 말씀이다.  
 (3) 결국 이 예언의 말씀은 B. C. 333년 알렉산더 대왕의 침공으로 성취되었다.  
 (4) 즉 알렉산더 대왕은 해안에서부터 두로의 섬까지 제방을 건설한 후, 두로를 침공하여 약 1만 명을 죽이고 3만 명을 노예로 끌고 가며 성을 불태웠다. 이처럼 두로에 대한 예언은 그대로 성취되었다.  
 (5)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인 방어력과 자신의 작은 능력과 재물을 의지하는 자를 반드시 심판하신다 (참조, 겔 7:8;33:20;계 20:13).

7. **㉠ 두로의 멸망으로 인하여 주변 도시는 어떻게 될 것인가? (5절)**

- ㉠** (1) 아스글론이 두려워할 것이며 가사도 아파할 것이고 에그론 역시 두려워 떨 것이다. 또한 가사는 임금이 그치고 아스글론에는 거민이 없을 것이다.  
 (2) 아스글론과 가사 그리고 에그론은 모두 블레셋의 성읍들로 두로와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었다.

- (3) 그러므로 두로의 멸망이 즉시 전달되었고 그 도시는 알렉산더의 다음 목표로 정해졌다.  
 (4) 결국 그 도시들은 알렉산더에 의해 점령당하여 가사에 있던 왕이 잡혀갔고 그 지역 사람들은 다른 곳으로 이주(移住)되었다.

8. **㉠** **아스돗은 어떻게 될 것인가?** (6절)

- ㉠** (1) 아스돗에는 잡족이 거하게 될 것이며 그로 인해 블레셋 사람의 교만이 끊어질 것이다.  
 (2) 이것은 아스돗의 원주민이 추방을 당하고 대신 이방인들이 들어와 살게 됨을 의미한다.  
 (3) 그리고 블레셋 사람의 교만이란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그들이 하나님도 무시하는 교만 죄를 말한다(참조, 삼상 17:45).  
 (4) 하나님은 이렇게 교만한 자를 가장 싫어하신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약 4:6).

9. **㉠** **하나님의 심판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7절)

- ㉠** (1) 그 입에서 피를, 잇사이에서 가증한 것을 제하리니 그도 남아서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와서 유다의 한 두목같이 되었고 에그론은 여부스 사람같이 될 것이다.  
 (2) 이것은 교만이 꺾인 블레셋 사람들이 우상 숭배의 악습(惡習)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의미한다.  
 (3) 그리고 '여부스 사람 같다'는 말은 이스라엘에 귀화한 여부스 사람처럼 블레셋 사람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의미다(참조, 삼하 24:16; 대상 21:15).  
 (4) 또한 '유다의 한 두목같이 된다'는 것은 그들이 개종하여 유다의 높은 지도자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됨을 말한다.  
 (5) 이런 예언들은 예수 그리스도 시대에 모두 성취되었다(눅 6:17).

10. **㉠** **1-7절 사이에 기록된 지명들을 분류하고 지도로 나타내라.**

- ㉠** (1) 하드락은 하맛과 함께 하맛 왕국에 위치하고 있으며 두로와 시돈은 베니게 지방에 있는 항구 도시이다. 그리고 아스돗, 아스글론, 가사 그리고 에그론은 블레셋 지방에 있는 도시들이며 다메섹은 헤르몬 산 북동쪽에 있는 도시이다.  
 (2) 한편 이 도시들을 지도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 11. ㉠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도우신다고 하셨는가? (8절)

- ㉠ (1) 하나님께서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박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고 하셨다.
- (2)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면의 불 성곽이 되시어 (2:5) 그들을 보호하시겠다는 말씀이다.
- (3) 그런데 이 예언은 알렉산더가 동방 정벌 (B. C. 334-324)에 나서 예루살렘을 침공할 때 성취되었다.
- (4) 즉 그가 예루살렘에 진격한 후 예루살렘을 보존하고 유대인들에게 특전(特典)을 줌으로 성취된 것이다.
- (5)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무리 혼란한 시대에 산다 해도 그분의 도우심으로 안전할 수 있다(참조, 신 7:19; 시 44:3).

## 12. ㉠ 8절에서 '내 집'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 (1) 여기서 '내 집'은 호 8:1의 '여호와와 그의 집'과 같은 의미로서 하나님의 백성, 즉 이스라엘 전체를 말한다.
- (2) 즉 이스라엘 전체는 '한 집'(출 12:46)이며, '광야 교회'(행 7:38)이다.
- (3) 또한 레 12:7; 민 12:7; 호 9:15; 히 3:6의 '내 집' 또는 '그의 집'도 같은 의미이며, 딤후 3:15의 '하나님의 집'도 역시 같은 의미이다.

## 13. ㉠ 시온의 딸이 기뻐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9절)

- ㉠ (1) 시온에 왕이 임하시기 때문이다.
- (2) 여기서 '시온의 딸'과 '예루살렘의 딸'은 이스라엘을 가리킨다(12:6; 습 3:4).
- (3) 그리고 '왕'은 메시아, 즉 그리스도를 말한다(참조, 마 21:5; 요 12:15).
- (4) 그러므로 시온이 메시아를 인하여 기뻐함같이 성도들도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한다(참조, 욥 2:23; 함 3:18).

## 14. ㉠ 시온에 입하실 왕은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가? (9절)

- ㉠ (1) 그분은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 (2) 여기서 '공의로우시다'는 것은 왕으로서의 통치적 공의를 말한다. 그분의 통치하에서는 모든 사람이 공정하게 행한 대로 갚음을 받는데 이것이 메시아 통치의 속성이다(시 45:6, 7; 사 11:3-5; 45:23; 렘 23:5; 33:15).
- (3) 또한 '구원을 베푸신다'는 것은 그분이 메시아로서 왕의 통치권을 가지고 오시는데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실 권세가 그분께 있다는 의미이다(참조, 시 33:16-19).
- (4)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나귀 새끼니라'는 말의 의미는 그분께서 외형적으로 화려하게 꾸미지 않고 메시아로서 당신이 백성의 죄를 담당하실(참조, 사 53:1-6) 평화의 왕으로 오심을 나타낸 것이다.
- (5) 이런 예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구체적으로 성취되었다(마 21:1-10; 막 11:1-10; 눅 19:28-40; 요 12:12-16).
- (6)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여기서 완전한 기쁨과 소망의 근거를 발견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환난과 핍박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위해 스스로 고통을 겪으신 그리스도를 통해 위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참조, 히 4:15).

## 15. ㉠ 메시아는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10절)

- ㉠ (1) 그분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시는 일을 하신다.
- (2) 병거와 말 그리고 활은 모두 전쟁에 사용되는 것으로 그것들이 끊어진다는 것은 전쟁이 끝나고 그분의 통치가 평화의 방법으로 확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 (3) 이것은 메시아 왕국의 평화를 말한다. 즉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보편적인 평강이

이루어질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참조, 눅 19:38; 엠 6:23).

16. **㉠** 메시아의 통치 영역은 얼마나 넓은가? (10절)

- ㉠** (1) 그분의 통치 영역은 이방 사람 그리고 바다에서 바다까지와 유브라테 강에서 땅 끝까지에 이를 것이다.  
 (2) 먼저 이방 사람을 말한 의미는 메시아의 통치 영역이 이스라엘을 초월한다는 것이다 (시 72:6-8).  
 (3) 그리고 통치 영역으로 바다가 언급된 것은 출 23:31에 기록된 국경들과 같은데 이는 '유브라테와 땅 끝까지'라는 말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4) 그런데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유브라테와 지중해는 지구의 끝으로 여겨져 있다.  
 (5) 그러나 이것은 더 넓은 의미로 메시아 왕국의 보편성을 강조하며 그분의 초림을 통하여 시작된 예언의 성취가 재림 때 완전히 성취될 것을 보여 준다 (참조, 사 2:4; 9:4-7).

17. **㉠** 하나님께서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건지신 이유는 무엇인가? (11절)

- ㉠** (1) 하나님께서 그들과 맺은 피의 언약이 있었기 때문이다.  
 (2) 그런데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대상으로 세운 것 (창 15:9, 10; 마 26:28)으로 이것은 신약 시대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예표이다.  
 (3) 이것은 언약 (출 20:1-17; 24:8)을 잘 감당하면 반드시 보호하시겠다는 보장이다.  
 (4) 이와 같이 피로 세운 하나님의 언약은 환난의 날에도 교회에 소망을 준다.

18. **㉠**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 받을 복은 무엇인가? (12절)

- ㉠** (1) 그들은 대적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보장(保障)으로 돌아오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배(陪)나 갓으실 것이다.  
 (2) 이는 바벨론 땅에서 유다로 돌아갈 것이라는 소망을 품은 자들이 먼저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당신께서 그들의 반석과 요새, 구원의 뿌리가 되시겠다는 약속이다 (시 18:2).  
 (3) 또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그들과 함께 거하시겠다는 것과 풍부한 축복을 내리시겠다는 것을 약속하신다. 따라서 오늘날 죄의 포로가 된 사람들도 늦기 전에 그리스도께 돌아오면 그분께서 약속하신 구원과 함께 풍성한 축복을 누릴 수 있다.

19. **㉠** 하나님께서는 시온에 대해 유다와 에브라임을 무엇으로 삼겠다고 하셨는가? (13절)

- ㉠** (1) 하나님께서는 유다로 당긴 활을 삼고 에브라임으로 먹인 살을 삼으시겠다고 하셨다.  
 (2) 그리고 시온의 자식을 격동시켜 헬라 자식을 치게 하심으로 그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실 것이라고 하셨다.  
 (3)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의 압제자와 싸우는 전사(戰士)로 나타나신 것이다.  
 (4) 그러므로 우리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뿐임을 알 수 있다 (참조, 사 7:19-23; 삼상 17:41-49).

20. **㉠** 하나님께서 시온을 위하여 어떤 모습으로 싸우실 것인가? (14절)

- ㉠** (1) 하나님께서 원수들 위에 나타나 살을 번개같이 쏘시며 나팔 소리와 함께 남방 회리바람을 타고 행하실 것이다.  
 (2) 이것은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자연 현상에 비유한 말로서 호 13:15에는 여호와의 바람으로, 렘 4:11; 13:24에는 뜨거운 바람, 사막 바람으로 표현되었다.  
 (3) 이 바람은 파괴력이 크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전멸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이것은 시온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 주는 것이다 (삼하 22:15; 사 21:1; 27:13).

21. **㉠**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시온의 모습은 어떠한가? (15절)

- ㉠** (1) 시온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원수를 물땀들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를 것이다. 즉 그들은 피가 가득한 동이와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다.  
 (2) 이것은 회생물을 찢는 사자의 모습 (민 23:24)과 같다.

- (3) 그러나 여기에는 승리의 기쁨에 도취된 시온의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인 동시에 그 승리가 하나님께 원인이 있음을 잊지 않고 그분께 회생을 드리는 모습을 묘사한 것이다.
- (4) 이처럼 성도들도 하나님의 도우심만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그분께 드려야 마땅한 감사와 충성도 잊지 않아야 한다.

22. **㉠** 승리의 날에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시겠다고 하셨는가? (16절)

- ㉠** (1)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양 떼 같이 구원하실 것이다. 그 결과 그들은 면류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와 땅에 빛날 것이다.
- (2)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으로(시 100:3) 그분의 도움 없이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표현한 것이다.
- (3) 하나님께 대한 성도들의 태도가 목자를 따르는 양과 같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돌보실 뿐 아니라 그들을 통해 영광도 받으신다(사 62:3).

23. **㉠**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이스라엘에게 주실 결과는 무엇인가? (17절)

- ㉠** (1) 그들은 형통함과 아름다움을 누리는데 소년은 곡식으로 강건하며 처녀는 새 포도주로 기뻐할 것이다.
- (2) 이 말씀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결과로 아름다워질 이스라엘을 묘사한 것이다.
- (3) 여기서 곡식과 새 포도주는 풍성함을 나타낸다(신 33:28; 시 72:16; 사 62:8, 9).
- (4) 그리고 소년과 처녀가 강건해진다는 것은 이스라엘에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임하게 될 것을 표현한 말이다(참조, 신 7:13; 시 128:3-5).
- (5)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이 지난 후 축복이 임한 것과 같이 오늘날 성도들도 신앙적 환난이 지나면 기쁨과 소망이 있게 된다(참조, 시 126:5, 6; 롬 5:3, 4).

### 연구자료

구약의 남은 자 사상. '남은 자' 사상은 노아 홍수에서부터 시작되어(창 7:23) 분열 왕국 시대 이후 바벨론 포로 시대에 이르러 절정에 이른다. 구약 중에서도 본서는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잘 반영해 주고 있다(8:6). '남은 자'라는 말 가운데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자비'란 의미가 역설적으로 내포되어 있다. '남은 자'란 단어가 '하나님의 심판'과 연관되어 나타날 때 그것은 구약의 종말론으로 발전되었으며, 그 말이 '하나님의 자비'와 연관될 때 남은 자의 구원과 연관되어 구원론으로 발전되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남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이와 반대로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을 통하여 역사와 신학이 어떻게 상호 복합적으로 형성되어 왔는지를 알 수 있다. 즉 구약에서 남은 자의 구원은 하나님의 참된 백성의 구원과 연결되어 이 세상 역사에 주권적으로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이루어지는 구속사(救贖史)였다. 특히 하나님께서 남은 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남은 자가 될 수 있는 어떤 조건을 설정하지 않으시고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셨다(8:12). 바로 이와 같은 구약의 '남은 자' 사상이 신약에서 사도 바울의 '남은 자' 사상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참조, 롬 9:8).

# 제 10 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시다

단락구분 1-2 거짓 우상을 떠나 의지할 분은 여호와뿐이시다 / 3-5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도자를 격려 하시다 / 6-12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도우시다

1 봄비 때에 여호와 곧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

2 대저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치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함이 헛되므로 백성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끈고됨 당하나니

3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발하며 내가 수염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권고하여 그들로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4 모퉁이 돌이 그에게로서, 말뚝이 그에게로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로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로서 나와서

5 싸울 때에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대적을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한즉 그들이 싸워 말 탄 자들로 부끄러워하게 하리라

6 내가 유다 족속을 권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이 내게 내어 버림이 없었음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

호와로라 내가 그들을 들으리라

7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를 인하여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8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 불어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같이 번성하리라

9 내가 그들을 열방에 뿌리려니와 그들이 원방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의 자녀와 함께 다 생존하여 돌아올지라

10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 돌아오며 그들을 앗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11 내가 그들로 고해를 지나게 하며 바다 풀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앗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풀이 없어지리라

12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케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을 받들어 왕래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 1. ㉠ 본장의 요점을 설명하라.

- ㉠ (1) 본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시며 그들의 지도자들을 격려하시고 민족을 흠어진 땅에서 불러모으실 것을 말씀하셨다.
- (2)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의 원인이 우상 숭배에 있었음을 지적하시면서 (2절) 헛된 우상 숭배에서 떠날 것을 말씀하셨다.
- (3)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승리할 수 있음을 발견한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힘과 반석과 요새이시며 방패와 구원의 뿔이 되시기 때문이다 (시 18:1-3).

## 2. ㉠ 여호와께서 봄비 때에 비를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가? (1절)

- ㉠ (1) 하나님께서는 비를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나기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 (2) 그런데 ‘봄비’는 팔레스틴 지방의 봄 추수에 없어서는 안 될 긴요한 것으로 자연계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가리키며 (참조, 욥 29:23; 시 84:6) 더우기 ‘비’는 영적인 은혜를 상징하기도 한다 (참조, 신 32:2; 시 72:6; 겔 34:26; 미 5:7).
- (3) 여기서 우리는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모습을 발견

할 수 있다(참조, 삼상 1:27;7:9, 10; 왕상 18:37, 38; 왕하 19:19, 20; 행 4:31).

- (4)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 가지 세상의 시련으로 상처받고 찌들린 우리의 영혼에 생기를 불어넣기 위하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께 날마다 간구해야 한다(참조, 렘 33:3).

3. **㉠ 하나님께서는 언제 비를 구하라고 하셨는가? (1절)**

- ㉠** (1) 하나님께서는 봄비 때에 비를 구하라고 하셨다.  
 (2) 여기서 ‘봄비 때’는 히브리 원어로 (말레코쉬)인데 ‘늦은 비’를 의미한다.  
 (3) 이 ‘늦은 비’는 10월의 ‘이른 비’와 인과(因果)의 의미를 갖는다.  
 (4) 즉 곡식이 10월의 이른 비로 물을 공급받고 3, 4월의 늦은 비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  
 (5) 따라서 ‘늦은 비’는 하나님께서 풍성한 수확을 주시기 위해 내리시는 은혜의 방편임을 알 수 있다(신 28:12; 렘 5:24; 율 2:23).  
 (6) 그러므로 성도들도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의 약속을 받기 위해 적절한 시기에 합당한 기도를 해야 한다.

4. **㉠ 스가랴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묘사하고 있는가? (1절)**

- ㉠** (1) 그는 번개를 만드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다.  
 (2) 이 말은 비를 내리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욘 28:26; 렘 14:22)께서 비를 내리시기 위해 먼저 번개를 만드신다는 것이다(시 135:7).  
 (3)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자연 현상을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할 수 있다(참조, 욘 12:9; 사 66:2).

5. **㉠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으로 위로받으려 했는가? (2절)**

- ㉠** (1) 그들은 우상인 드라빔이나 복술자(卜術者)의 헛된 말로 위로받으려 했다.  
 (2) 여기서 우상인 드라빔은 가정의 수호신으로 작은 것(참조, 창 31:34, 35)부터 사람 크기 만한 것까지(삼상 19:13, 16) 있는데 그것의 소유자는 집안의 수장권(首長權)과 많은 권리를 함께 소유하였다.  
 (3) 그러나 이 드라빔은 사무엘 시대(삼상 15:23)로부터 스가랴 시대(10:2)에 이르기까지 인정받지 못했다.  
 (4) 그리고 복술자는 점을 치는 자 또는 예언자를 말하는데 이방 국가에는 이런 자들이 많았다(신 18:9-12; 삼상 6:2; 사 19:3; 행 16:16).  
 (5) 그런데 이들은 주로 지식을 얻고자 하는 데 이용되었다. 이들이 사용하는 방법들은 예언이나 해몽(解夢), 점성술, 죽은 자를 부르는 초혼술(招魂術) 또는 기계적인 방법으로 제비뽑기(욘 1:7)나 잔을 이용하는 경우(참조, 창 44:1-15)가 있다.  
 (6) 그러나 이러한 방법으로 위로받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발견한 것은 결국 자신들이 우상에게 속은 것과 외로움 그리고 공허한 남았다는 사실이다.  
 (7) 왜냐하면 참된 평안과 위로는 하나님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데(참조, 시 86:17; 사 12:1; 51:3; 요 16:33) 그들은 다른 데로부터 위로를 받으려 했기 때문이다.

7. **㉠ 우상이나 복술자를 통하여 위로받으려 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되었는가? (2절)**

- ㉠** (1) 그 위로가 헛되므로 백성이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며 끈고를 당하게 되었다.  
 (2)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러한 상황을 만나기 전에 거짓된 것들에 대한 경고를 많이 하셨었다(렘 27:9; 29:8; 겔 13:6; 22:28).  
 (3)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경고를 무시하고서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서 위로와 평안을 찾으려 했지만 오히려 방황하며 그들의 통치자를 잃고 결국에는 이방 민족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  
 (4) 오늘날 성도들도 하나님을 떠나 다른 것으로 평안과 위로를 받으려 하지만 그것은 이

스라엘 민족과 같이 더 큰 고난을 초래할 뿐임을 명심해야 한다(참조, 롬 1:28-32).

8. **㉠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노를 발하시며 누구를 벌하시기로 작정하셨는가? (3절)**

- ㉠** (1) 하나님께서 목자들에게 노를 발하시며 수염소들을 벌하시기로 작정하셨다.  
 (2) 여기서 '목자'는 거짓 목자인데 선지자 스가라는 그들을 수염소라고 표현하였다.  
 (3) 이런 거짓 목자는 유다의 지도자를 가리키는데 그들은 백성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였기 때문에(참조, 렘 50:6)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지 못할 것(참조, 절 34:2, 3)이다.  
 (4) 이것은 지도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심판을 받게 됨을 의미한다(참조, 절 33:6; 약 3:1).  
 (5) 따라서 교회나 국가의 지도자들은 책임 의식을 통감하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 대중을 가르치며 통치해야 할 것이다.

9. **㉠ 잘못된 인도를 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권고(眷顧)하셨는가? (3절)**

- ㉠** (1) 하나님께서 유다 족속을 전쟁의 준마(駿馬)와 같게 하시겠다고 하셨다.  
 (2) 이것은 거짓 목자의 인도를 받아 압박과 고통 속에서 헤매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친히 돌보시어 강한 말(馬)처럼 만드시겠다는 약속이다.  
 (3)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강하게 만드시고 그들로 하여금 압박하던 이방 민족들에 대하여 승리하게 하신다(참조, 습 2:7).  
 (4) 여기서 우리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악(惡)에 대하여 승리할 수 있는 근거는 오직 하나님뿐임을 알 수 있다.

10. **㉠ 본절에 언급된 '그'는 누구를 말하는가? (4절)**

- ㉠** (1) 본절에서 '그'는 하나님이 아닌 유다를 가리킨다.  
 (2) 여기서 '그'는 히브리어로 <미메구>인데 '그로부터'라는 의미를 갖는다.  
 (3) 그런데 동일한 의미로 쓰여진 렘 30:21에서 '그'가 유다를 가리킨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11. **㉠ 유다에게서 무엇이 나오는가? (4절)**

- ㉠** (1) 유다에게서 모퉁이의 돌과 말뚝과 싸우는 활과 권세잡은 자가 일제히 나올 것이다.  
 (2) 이것은 유다의 통치자들이 지금까지는 이방인이었으나 이제는 자기 백성들에게서 나올 것을 예언한 말씀이다.  
 (3) 한편 여기서 나타나는 네 가지는 모두 메시아를 상징하고 있다.  
 (4) 먼저 '모퉁이 돌'은 성전과 장차 올 하나님 나라의 기초로서 메시아를 가리킨다(참조, 4:7; 시 118:22; 사 28:16).  
 (5) 또한 '말뚝'은 가정에서 도구들을 달아 두기 위해 벽에 박는 못으로서 유대 풍속에 보면 주로 중요한 것을 그곳에 걸었다. 그러므로 여기 '말뚝'은 메시아의 영광을 의미한다(참조, 사 22:23, 24; 33:20).  
 (6) 그리고 '싸우는 활'도 모든 원수들을 진멸하고 승리자로 오실 메시아를 가리킨다(참조, 시 45:5).  
 (7) 마지막으로 '권세잡은 자'는 통치자로서 오실 메시아를 가리킨다(참조, 마 28:18).

12. **㉠ 스가라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싸울 것이라고 예언하였는가? (5절)**

- ㉠** (1) 스가라는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므로 용사같이 대적들을 거리의 진흙 중에 밟을 것이고, 말 탄 자들로 부끄럽게 할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2)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쟁할 능력이 없으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심으로 원수들을 진멸시킬 것이라고 하였다.  
 (3) 그런데 대체로 말 탄 자들은 강성했던 아시아의 통치자를 상징한다(참조, 단 11:40). 그러나 그들은 당신의 백성을 도우시는 하나님 앞에 무력해질 수밖에 없다(참조, 삼하 22:



43; 시 18:42; 미 7:10).

13. **㉠ 하나님께서 누구를 긍휼히 여기시겠다고 하셨는가? (6절)**  
**㉠** (1) 하나님께서 유다 족속과 요셉 족속을 긍휼히 여기사 유다를 견고케 하시며 요셉 족속을 구원하신다고 하셨다.  
 (2) 여기서 유다 족속과 요셉 족속을 따로 구분한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지칭하기 위함이다.  
 (3) 즉 유다 족속은 남쪽 유다를 말하고 요셉 족속은 북쪽 이스라엘을 가리키므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의미한다.  
 (4)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자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대적들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분임을 알 수 있다(참조, 사 60:10; 욥 2:18-20).
14. **㉠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긍휼히 여기신 결과는 어떠한 것인가? (6절)**  
**㉠** (1)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그들이 돌아와 버림 받지 않음과 같이 되고, 당신께서 그들의 여호와가 되시어 그들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실 것이다.  
 (2) 이것은 이방 중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민족(왕하 25:6-12; 렘 52:28-30)을 다시 한 곳에 불러모으고 원상태로 회복시키실 것을 의미한다.  
 (3)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영원한 정착과 당신의 언약이 불변하고 정확하게 성취될 것(참조, 레 26:44; 눅 1:72-75; 갈 3:17)에 대해 선언하신 것이다.  
 (4) 한편 이것은 이방으로 흩어졌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가 될 것을 가리키는 말씀이기도 하다.
15. **㉠ 에브라임과 그 자손의 마음은 어떠한리라고 하셨는가? (7절)**  
**㉠** (1)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 '에브라임의 마음은 포도주를 마심같이 즐거울 것이고, 그 자손은 여호와를 인하여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고 하셨다.  
 (2) 이 말씀은 북쪽 이스라엘도 남쪽 유다와 함께 전쟁을 도우므로 승리의 기쁨을 나누며 또한 그들의 자손들도 승리를 직접 보고 기뻐할 것이라는 의미이다.  
 (3) 이것은 하나님께서 메시아 시대에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 되게 하여 그리스도를 그들의 왕으로 삼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하신다는 의미이다(참조, 겔 37:15-28).
16. **㉠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을 휘파람으로 불러모으시는가? (8절)**  
**㉠** (1)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속하셨기 때문이다.  
 (2)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실 때 '휘파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은 고대인들이 벌을 부를 때 휘파람을 이용하기 때문에 쓰신 표현이다.  
 (3)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의 신호(사 5:26)인데 하나님께서 신호를 보내면 이스라엘이 모인다는 것이다(렘 31:10, 11).  
 (4) 즉 이것은 바벨론에 남아 있는 유대인을 구속하셔서 유다 땅으로 돌아오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표현한 것이다(참조, 8:7, 13).
17. **㉠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여 부르신 결과 그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8절)**  
**㉠** (1)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그들은 전에 번성하던 것같이 번성할 것이다.  
 (2) 이것은 구속함을 받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다.  
 (3) 하나님께서 전에 그들을 축복하셔서 풍성한 삶을 영위하게 하셨듯이(참조, 왕상 10:17) 이제도 당신의 축복을 주신다는 복된 선언이다(참조, 겔 36:10, 11, 37, 38).  
 (4) 그러므로 오늘날 성도들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해야 한다(참조, 마 25:1-13).
18. **㉠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셨는가? (9절)**  
**㉠** (1)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열방 가운데 뿌리셨다.

(2) 여기서 ‘뿌렸다’는 말은 쓸모없이 버렸다는 말이 아니다.

(3) ‘뿌렸다’는 말은 히브리 원어로 <자레>인데 그 의미는 ‘씨를 뿌리다.’ ‘파종(播種)하다’이다.

(4) 그러므로 이스라엘을 ‘열방에 뿌렸다’는 것은 열방 중에 그들이 크게 번성케 될 것을 암시하는 말씀이다(참조, 렘 31:27; 호 2:23).

(5)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역사적으로 성취되었고 영적으로는 유대인의 복음 전도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성취되었다(행 2:5-47).

19. ㉠ 하나님께서는 열방에 뿌려진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셨는가? (9절)

㉠ (1)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들의 자녀와 함께 생존하여 돌아올 것이라고 하셨다.

(2)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이방 중에 뿌려진 유대인들이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기쁨으로 돌아올 것을 의미한다(참조, 신 30:1-3; 겔 6:9).

(3) 한편 ‘자녀와 함께’ 돌아온다는 것은 전도의 결과 얻어진 믿음의 자녀(참조, 고후 6:18; 살전 5:5; 히 2:10)와 함께 돌아온다는 말로서 축복이 영원할 것을 암시하고 있다.

20. ㉠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해 내신 곳은 어디인가? (10절)

㉠ (1)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 땅과 앗수르 땅에서부터 구해 내셨다.

(2) 여기 나온 지역은 실제적인 것보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더 크다.

(3) 즉 두 나라는 이스라엘이 흩어진 나라들을 대표하는 것인데 것처럼 강성한 나라도 하나님의 섭리에는 거역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참조, 사 11:11; 27:13; 호 11:11).

(4) 그러므로 우리는 악한 세력이 강하게 성도들을 압박해도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 앞에서는 그들의 세력이 무력해짐을 알 수 있다.

21. ㉠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시고 거하게 하신 곳은 어디인가? (10절)

㉠ (1)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길르앗과 레바논으로 인도하여 거하게 하셨는데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할 것이라 하셨다.

(2) 이 두 지역은 요단 양편에 있는 북 팔레스티न으로 열 지파 이전의 땅이다.

(3) 그러나 이곳도 애굽이나 앗수르와 같이 상징적 의미로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리스도의 시대에 복음을 받아들여 하나님께 돌아오는 백성이 많게 되리라는 것을 의미한다.

(4) 즉 메시아의 시대에 펼쳐질 새 하늘과 새 땅(계 21:1) 혹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계 21:2)에 하나님의 구원하신 성도들이 차고 넘치게 될 것을 말한다.

22. ㉠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는 길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11절)

㉠ (1)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길을 인도하셔서 바다와 나일 강을 마르게 하시며 앗수르의 교만과 애굽의 흠을 꺾으실 것이다.

(2) 이것은 역사적으로 홍해를 가르시고(출 14:21-25; 사 11:15) 요단 강을 건너게 하심(수 4:15-18; 암 8:8)과 앗수르와 애굽의 통치에서 구하여 내심(참조, 출 1:1-12:51; 겔 30:13)을 말한다.

(3)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는 어떤 세력이나 장애물도 결코 그들의 귀환을 저지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23. ㉠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누구를 의지하게 하시는가? (12절)

㉠ (1)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당신을 의지하게 하신다.

(2) 그리하여 그들로 견고하게 하시며 당신의 이름을 받들어 왕래하게 하신다.

(3)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면 감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후 12:9, 10).

(4)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혀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 그와 함께 연합한 자가 되어야 한다(고후 5:17; 갈 2:20).

## 제 11 장 참 목자와 거짓 목자

단락구분 1-5 레바논이 멸망하다 / 4-6 하나님께서 목자들에게 명령하시다 / 7-14 이스라엘 백성이 참 목자를 거부하다 / 15-17 하나님께서 거짓 목자를 징벌하시다.

1 레바논아 네 문을 열고 불이 네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2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가 채멸되었도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여 곡할지어다 무성한 삼림이 었드러졌도다

3 목자의 곡하는 소리가 남이며 그 영화로운 것이 채멸되었음이라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남이며 이는 요단의 자람이 황무하였음이라

4 여호와 나의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너는 잡힐 양 떼를 먹이라

5 산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 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요케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6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거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붙이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 손에서 건져 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7 내가 이 잡힐 양 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이라 내가 이에 막대기 들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락이라 하고 양 떼를 먹일새

8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꿇었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라

9 내가 가로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고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할 자는 망할 대로, 그 나머지는 피차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10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잘랐으니 이는 모든 백성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음이라

11 당일에 곧 폐하매 내게 청종하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와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12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고기를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거든 말라 그들이 곧 은 삼십을 달아서 내 고기를 삼은지라

13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준 가람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삼십을 여호와와 전에서도 기장이에게 던지고

14 내가 또 연락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잘랐으니 이는 유대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15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우매한 목자의 기구들을 취할지니라

16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흠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진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굵을 찢으리라

17 화 있을진저 양 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 팔에, 우편 눈에 입하리니 그 팔이 아주 마르고 그 우편 눈이 아주 어두우리라

### 1. ◎ 본장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가?

- Ⓐ (1) 본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파괴될 것과 더불어 거짓 목자의 징벌을 보여 주시면서 참목자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배척당할 것을 말씀하셨다.
- (2) 즉 하나님께서 양 떼들을 위해 선한 목자를 보내실 때에 그들은 선한 목자를 은 삼십에 팔고 (12절) 거짓 목자를 따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결국 거짓 목자는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망하게 될 것이다.
- (3) 이와 같은 예언은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나 당시의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그를 십자가에 못박아 처형함으로 성취되었다(마 26, 27장).
- (4) 그리고 징벌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은 이스라엘 민족이 로마의 장군 티투스(Titus)의 침공을 받아 수많은 희생자를 냄으로써 성취되었다.

(5) 결국 본장은 10장과 상반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10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축복의 늦은 비(10:1)를 약속하셨으나, 본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할 때 받을 재앙이 어떠한지 기록하고 있다.

2. **㉠ 하나님께서 레바논에게 무엇을 명령하셨는가? (1절)**

- ㉠** (1) 하나님께서 레바논에게 ‘네 문을 열고 불이 네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고 명령하셨다.  
 (2) 이것은 레바논이 높은 산에서 불이 내려와 성을 파괴하듯이 황폐해질 것을 가리킨다.  
 (3) 즉 이 말씀은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지은 성전(왕상 5:1-18; 스 3:7-13)이 파괴되어 황폐해질 것을 예언한 것이다.

3. **㉠ 백향목이 불타므로 잣나무와 바산의 상수리나무는 어떻게 되는가? (2절)**

- ㉠** (1) 백향목이 불타므로 잣나무와 바산의 상수리나무가 곡(哭)하게 된다.  
 (2) 이것은 교만한 백향목(사 2:13)이 불살라져 그보다 약한 잣나무와 상수리나무의 교만(사 2:13-17)이 꺾이게 됨을 가리킨다.  
 (3)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은 죄의 경중(輕重)에 관계 없이 엄하게 임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 목자의 곡하는 소리와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3절)**

- ㉠** (1) 그 이유는 영화로운 것이 궤멸(毀滅)되고 요단의 자랑이 황무해졌기 때문이다.  
 (2) 그런데 ‘목자의 곡하는 소리’는 레바논 산에서부터 불이 내려와 양 떼를 먹여야 할 풀이 모두 살라졌기 때문에 목자들이 슬퍼 외치는 소리이다(참조, 렘 25:34).  
 (3) 그리고 ‘요단의 자랑’이란 요단 강둑에 있는 관목의 숲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곳은 짐승들의 은신처였다(참조, 렘 12:5; 49:19; 50:44). 그런데 그곳이 불에 타자 거처할 곳을 잃은 짐승들이 울부짖게 된 것이다.  
 (4) 이러한 이 말씀은 원수들이 성지(聖地)를 파괴시킬 것(왕하 25:8)과 그들의 손에 유다 백성들이 망하게 될 것(렘 25:9-11)을 예언한 것이다.

5. **㉠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스가랴에게 누구를 먹이라고 하셨는가? (4절)**

- ㉠** (1)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스가랴에게 잡힐 양 떼를 먹이라고 말씀하셨다.  
 (2) 여기서 양 떼는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며 ‘잡힐 양 떼’란 죽음을 선고 받은 양 떼, 즉 원수들에게 짓밟힐 운명에 놓인 유다 백성을 가리키는 말이다(7절).  
 (3)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은 A. D. 70년 로마의 티투스(Titus)의 예루살렘 침공 때에 150만 명의 유대인이 살륙(殺戮)당함으로 성취되었다.

6. **㉠ 양 떼인 이스라엘 민족을 가운데 두고 팔고 사는 자와 목자의 태도는 어떠한가? (5절)**

- ㉠** (1) 양 떼를 산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 자들은 부요케 되었으니 하나님께 찬송하리라 하며 목자들은 양 떼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  
 (2) 여기서 양 떼를 산 자는 예루살렘을 침공한 로마인들을 가리킨다. 그들은 유대인을 상품처럼 이용하여 많은 이득을 얻었다(참조, 겔 34:3).  
 (3) 그리고 판 자들과 목자는 유다의 지도자를 말하는데, 그들은 거짓 목자들로 자기 백성들에게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였으며(참조, 느 5:7, 15; 호 12:8) 윤리적으로도 타락하였다(마 15:16-20).  
 (4) 신구약 중간기에 백성들의 정치적 지도자이며 성직자로 등장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서로 원수였지만, 백성들에게서 재물을 탈취하는 일에는 서로 힘을 합함으로써 이러한 예언이 성취되었다(참조, 마 23:16-24).

7. **㉠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므로 어떤 일이 생길 것이라고 하셨는가? (6절)**

- ㉠** (1) 하나님의 긍휼이 떠나므로 이스라엘은 이방 사람들과 그 왕들에게 침략을 당하게 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된다고 하셨다.

- (2) 이것은 이스라엘 내에 거짓과 불의(不義)가 퍼져 있고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敬畏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긍휼 대신 징계를 주신다는 말씀이다(렘 13:14).
- (3) 즉 이 말씀은 백성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에 그들이 기회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적 분열을 일으킬 것과 이방 왕에게 압제당할 것(참조, 호 11:5)을 예언하신 것이다.
- (4) 이것을 통해 불 때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심각한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사랑의 주(主)이심을 알 수 있다(참조, 겔 18:31; 욥 2:12; 은 3:1-4; 마 3:2).

8. **㉠ 선지자가 목양(牧羊)할 양 때는 어떤 양 때인가? (7절)**

**㉠** (1) 그 양 때는 잡힘 가련한 양들이다.

(2) 이 양들은 죽임당하기로 정해진 양들이지만 그래도 선지자는 그들을 먹이고 보호하려 한다.

(3) 여기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즐거움으로 감당하는(벧전 5:2) 선지자는 메시아에 대한 예표이다. 그분은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면서까지 양들을 보호하신 선한 목자이시다(참조, 렘 3:15; 23:4; 겔 34:23).

9. **㉠ 선지자가 양을 인도할 때 사용하던 막대기에 대해 설명하라(7절).**

**㉠** (1) 선지자가 양 떼를 인도할 때 사용하던 막대기는 두 개인데 하나의 이름은 '은총'(恩寵)이며 다른 하나는 '연락'(連絡)이다.

(2) 두 막대기 중 '은총'은 히브리 원어로 <노엠>인데 '기쁨', '아름다움'이란 뜻을 지닌다. 즉 이것은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들 사이에 맺은 아름다운 언약의 관계를 나타낸다(10절).

(3) 또한 '연락'은 히브리 원어로 <호벨림>인데 '연합하다'라는 뜻으로 이것은 이스라엘 내부의 연합을 의미한다(14절).

(4) 그러므로 참목자인 메시아는 당신의 양 떼들을 두 막대기로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그들을 푸른 초장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참조, 시 23:1-6).

10. **㉠ 선한 목자로 보여진 선지자는 양들을 위해 어떤 일을 하였는가? (8절)**

**㉠** (1) 그는 한 달 동안에 세 목자를 끊었는데 그 이유는 선지자의 마음에 그들을 싫어했고 그들도 선지자를 미워했기 때문이다.

(2) 여기서 추방당한 세 목자는 불성실한 목자들로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통치자 그리고 선지자들을 가리킨다(참조, 렘 2:8; 18:18; 말 2:7-9; 욥 2:20).

(3) 그런데 그들이 거짓 목자이기 때문에 참목자와 반목(反目) 현상을 일으켜 서로 미워하게 된 것이다(참조, 창 3:15; 마 3:7; 12:34; 23:33; 눅 3:7).

(4) 따라서 오늘날 지도자들도 그들에게 주어진 책임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끊어 어두운 곳으로 추방하실 것이다(참조, 마 25:14-30; 눅 19:11-27).

11. **㉠ 참목자의 인도를 거부한 양 때, 즉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징벌을 받게 되는가? (9절)**

**㉠** (1) 하나님께서는 참목자를 거부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지 않으시고, 죽을 자와 망할 자를 그대로 두시며 나머지 사람도 피차 살을 먹는 대로 두시겠다고 하셨다.

(2) 이처럼 그들은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으나(6절) 주신 기회에 응하지 않으므로 이런 징벌을 받게 된 것이다.

(3) 그런데 여기서 '죽을 자'란 자연사(自然死)할 자를 말하고(참조, 렘 15:2; 16:4; 겔 5:12), '망할 자'는 전쟁과 기근 그리고 열병으로 죽을 말한다(렘 21:9; 43:11; 겔 5:12; 6:11, 12).

(4) 그리고 '피차 살을 먹는다'는 것은 이스라엘 가운데 내분(內紛)이 있을 것을 말한다

(참조, 신 28:53-57; 사 9:20, 21; 49:13).

(5)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참목자를 거부하는 자들에게 재앙으로 징계(참조, 민 21:4-9) 하시고 그들 가운데 사랑을 제거하셔서 서로 다툼이 있게 하신다(참조, 잠 10:12).

12. **㉠** 참목자가 가지고 있는 두 막대기 중 '은총'이란 막대기를 잘랐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10절)

- ㉠** (1) '은총'의 막대기를 잘랐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열국 백성들과 세우신 언약을 취소하셨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여기서 언약이란 이스라엘 백성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열국 백성을 제지하신 것을 가리킨다(참조, 욥 5:23; 호 2:18).  
 (3)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은총'의 막대기를 자르신 것은 열국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침범해도 된다는 허락을 하신 것이다.  
 (4) 결국 이스라엘이 로마의 침략으로 망하게 됨으로써(A. D. 70) 이 예언의 말씀은 성취되었다.  
 (5)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자는 그분의 은총이 떠나므로 보호를 받을 수 없어 대적들의 압제를 받을 뿐 아니라 영적 죽음을 면할 수도 없다(참조, 요 15:5, 6).

13. **㉠** 참목자의 말을 청종하던 양들은 은총의 막대기가 잘린 날 무엇을 알았는가? (11절)

- ㉠** (1) 그들은 언약이 깨어진 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줄 깨닫게 되었다.  
 (2) 여기에 '내게 청종하던 가련한 양들'이란 참목자를 따르던 적은 무리(참조, 요 10:4, 5, 14, 15)로서 그들은 닥쳐오는 어려움이 우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았다(참조, 렘 32:8).  
 (3) 이와 같이 신약 시대에도 예수께서 산으로 도망하라(마 24:16)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에 순종한 자들은 살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로마의 티투스(Titus)에 의해 죽고 말았다.

14. **㉠** 참목자가 양 떼를 들본 품삯을 가련한 양들에게 요구하여 얼마를 받았는가? (12절)

- ㉠** (1) 목자는 품삯으로 은 30개를 받았다.  
 (2) 여기서 목자가 품삯을 요구한 것은 자신이 베푼 사랑에 대한 반응을 보기 위한 것이다.  
 (3) 그 반응은 은 30개로 나타났는데 그 가치는 소에 받쳐 죽은 중 한 사람의 보상금에 불과하다(출 21:32). 이 같은 목자에 대한 양들의 반응은 너무나 작은 것이라 할 수 있다.  
 (4) 한편 이 말씀은 그리스도가 배척당하실 것을 예언한 것이기도 하다. 즉 이 예언은 사랑하는 제자가 그가 베푼 사랑과 은총을 거부하고 그를 은 30개에 팔아버림으로 정확하게 성취되었다(마 26:15).

15. **㉠** 하나님께서는 목자에게 품삯을 어떻게 하라고 하셨는가? (13절)

- ㉠** (1) 하나님께서는 목자에게 받은 품삯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고 하셨다.  
 (2) 목자의 받은 삯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것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고 했던 것이다.  
 (3)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헌능의 골짜기에서 흙을 취해 토기를 만들었는데(참조, 렘 18:2; 19:1, 2) 그곳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더러운 장소로 여겨졌다(참조, 왕하 23:10).  
 (4) 따라서 올바른 평가를 받지 못한 품삯을 더러운 곳으로 던지라는 것은 잘못된 평가를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라는 뜻이다.  
 (5) 이 귀절은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고(18, 19장) 스가랴가 다시 예언한 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성취되어(마 27:6-10) 메시아에 관한 예언임이 증명되었다.

16. **㉠** 목자가 갖고 있는 다른 하나 '연락'의 막대기를 잘랐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14절)

- ㉠** (1) '연락'의 막대기를 잘랐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의(義)가 끊어지고 내분(內

紛)이 있을 것을 의미한다.

(2) 그러나 이스라엘의 내분은 이미 르호보암 때 시작(왕상 12:16-20) 되었다.

(3)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중에 극한 당파 싸움(참조, 왕상 12:16-20)이 계속 되었고 그로 인하여 동쪽끼리 큰 적대감을 형성했으며 마침내 국력이 쇠퇴하였다.

(4) 결국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끝나는 날 그의 사랑을 거부한 자들은 하나님의 은총과 의(義)가 끊어져 징벌받게 될 것이다.

17. ㉠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에게 무엇을 취하라고 하셨는가? (15절)

㉠ (1)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에게 우매한 목자의 기구들을 취하라고 하셨다.

(2) 이것은 7절에서 보여진 것과 같은 상징적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거짓 목자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가증스러운 것이었는가를 보여 준다.

(3) 그리고 우매한 목자는 백성들을 그릇 인도하는 소경과 같은 지도자를 말하며(참조, 왕하 24:18-20) 그들이 사용한 기구들은 양들을 해롭게 하는 우상을 가리킨다(참조, 왕상 11:5-8; 왕하 23:13).

(4) 여기서 선지자에게 목자의 기구들을 취하라 하신 것은 백성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선한 목자와 우상의 길로 인도하는 거짓 목자를 비교하시기 위함이다.

18. ㉠ 우매한 목자는 양을 어떻게 돌볼 것인가? (16절)

㉠ (1) 우매한 목자는 없어지고 흩어진 양들을 찾지 아니하고 상한 양을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양을 먹이지 않을 것이다. 그 뿐 아니라 오히려 살진 양을 잡아먹으며 그 곁을 찢을 것이다.

(2) 이런 거짓 목자는 악한 자를 의미하는데 그들은 샅군 목자로서 태만하고 탐욕스럽고 잔인하므로(참조, 겔 34:4; 요 10:13) 참목자(참조, 사 42:3)와는 반대된다.

(3) 그러므로 우리는 양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도 아끼지 않고 희생하시는 참목자인 그리스도(요 10:11)를 알아 그를 따라가야 한다.

19. ㉠ 하나님께서 우매한 샅군 목자에게 어떤 징벌을 내리실 것이라고 하셨는가? (17절)

㉠ (1) 하나님께서는 양 떼를 버린 샅군 목자에게 당신의 칼을 사용하여 칼이 그 팔과 눈에 임하여 그들의 팔이 마르고 눈은 아주 못 보게 될 것이라고 하셨다.

(2) 여기서 팔과 눈이란 목자에게 중요한 기관(器官)으로 하나님의 징벌이 그곳에 임한다는 것은 그들이 팔과 눈을 잘못 사용했기 때문이다.

(3) 그리하여 우매한 백성의 지도자인 샅군 목자들(참조, 렘 23:1; 요 10:12)은 능력을 상실하게 되어(참조, 왕하 25:7) 더 이상 그들의 악한 계획을 지속할 수 없게 될 것이다.

(4) 그러므로 오늘날 지도자들, 즉 정치적 지도자나 종교적 지도자들도 샅군 목자와 같이 자기 직무에 태만하고 자기의 이익만 추구하여 그릇된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본장의 요절

‘화 있을진저 양 떼를 버린  
 몸된 목자여 칼이 그 팔에, 우편  
 눈에 임하리니 그 팔이 아주 마르고 그  
 우편 눈이 아주 어두우리라’ (17절).

# 제 12 장 이스라엘의 승리와 회개

단락구분 1-4 예루살렘과 유다가 포위되다 / 5-9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도우시다 / 10-14 예루살렘이 회개하다

1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와 말씀의 경고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의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자가 가라사대

2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국민에게 혼취케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미치리라

3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으로 모든 국민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무릇 그것을 드는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4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 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아보고 모든 국민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5 유다의 두목들이 심중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거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6 그날에 내가 유다 두목들로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헛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국민을 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거하게 되리라

7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거민의 영광

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8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거민을 보호하리니 그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와 사자 같을 것이라

9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열국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10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리니 그들이 그 썩은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 듯하며 그를 위하여 뫼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뫼곡하 듯하리로다

11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므깃도 끝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12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13 레위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14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 1. ㉠ 본장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라.

㉠ (1) 본장에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의 지도자들에게 힘을 주셔서 침입하는 열국을 막도록 해주시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들의 참된 회개를 유도하신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2) 그런데 본장에서부터는 이전과 달리 새로운 국면(局面)이 펼쳐지게 된다. 즉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1-11장)이었던 이스라엘이 이제부터는 열국을 징계하시는 그분의 도구로 사용되며 그분으로 인해 안전한 장래를 보장받게 될 일에 대해 언급되어 있다.

(3)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회개케 하시므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와 더불어 축복하실 것을 보여 준다.

(4) 여기서 우리는 진정한 회개와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과 그분이 힘을 주셔야만 대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참조, 롬 11:1-36).

## 2. ㉠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1절)

㉠ (1)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펴시며 땅의 터를 세우시고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분이시다(참조, 창 1:27; 시 8:3; 19:1).



(2) 즉 하나님께서는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시며 또한 매순간 피조물을 당신의 능력으로 유지하는 분이시다.

(3) 그러므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는 그의 피조물을 통하여 당신의 목적을 성취하실 만한 능력이 있다(참조, 민 16:22; 27:16, 17; 시 33:15; 잠 21:1)는 것을 알 수 있다.

3. **Q 창조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무엇이 되게 하신다고 하셨는가? (2절)**

**A** (1)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국민에게 혼취(昏醉)케 하는 잔이 되게 하리라고 하셨다.

(2) 즉 예루살렘이 포도주와 같이 마취제의 역할을 하므로 전쟁하기 위해 모인 사면 국민이 힘을 잃고 패하게 될 것이다(참조, 사 51:22, 23).

(3)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은 연약하고 무능해 보이지만 마침내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대적들을 굴복시킬 것이다(참조, 삼상 5:1-12).

4. **Q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그 영향이 어디까지 미칠 것인가? (2절)**

**A** (1)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미치게 될 것이다.

(2) 예루살렘이 유다의 수도(首都)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포위된다는 것은 나라 전체가 점령당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참조, 왕하 17:35).

(3) 그러므로 사단도 성도들을 쓰러뜨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기 위해 교회에 많은 환난과 핍박을 준다(참조, 계 2:10).

5. **Q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대적들에게 에워싸일 때 예루살렘을 어떻게 하리라고 하셨는가? (3절)**

**A** (1)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모든 국민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시고 그것을 드는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고 하셨다.

(2) 이 말씀은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열국들이 하나님으로 인해 오히려 자신들이 손해를 입게 된다는 의미이다.

(3) 여기서 돌은 메시아를 상징(참조, 사 28:16; 단 2:45; 마 21:44; 눅 20:17) 하는 것으로 그를 치려는 자는 스스로 해(害)를 받게 될 것을 가리킨다.

(4) 결국 사단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힘에 의하여 망하게 될 것이고(참조, 사 8:14, 15; 단 2:34, 35; 롬 9:32, 33; 뱀전 2:8),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할 것이다.

6. **Q 하나님께서는 유다 족속을 어떻게 돌보신다고 하셨는가? (4절)**

**A** (1) 하나님께서는 열국의 말을 놀라게 하시며 말 탄 자를 미치게 하시고 모든 국민의 말을 쳐서 눈을 멀게 하심으로 유다를 보호하신다고 하셨다.

(2) 이 말씀은 유다의 대적들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무너지고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보호자가 되실 것을 의미한다.

(3)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은 역사적 사실로 나타났었는데 도단에서 엘리사를 에워싼 아람 군대의 눈을 하나님께서 어둡게 하시고(왕하 6:14-19) 적군들에게 혼란을 주어 서로 싸우도록 하기도 하셨다(삿 7:19-23; 삼상 14:16-23).

(4) 그리고 하나님께서 ‘돌아보신다’는 말은 원문대로 해석하면 ‘내가 눈을 뜰 것이다’는 말인데 이것은 당신께서 백성들을 돌보신다(참조, 삼상 7:5-11; 느 1:11; 사 37:36)는 의미이다.

(5) 이처럼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놀라게 되며, 또한 미치게 될 것이고 눈멀게 되는 재앙을 당하게 될 것이다(참조, 신 28:28).

7. **Q 유다의 두목들은 예루살렘 거민(居民)의 힘이 어디서 왔다고 생각할 것인가? (5절)**

**A** (1) 그들은 예루살렘 거민의 힘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생각할 것이다.

(2) 이 말씀은 유다의 지도자들이 예루살렘 거민으로 인하여 힘을 얻었다는 의미인데 그

이유는 예루살렘 거민이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때문이다.

(3) 이처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된다(신32:10; 룻2:12).

8. **㉠ 유다의 두목들이 힘을 얻은 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무엇같이 되게 하리라고 하셨는가? (6절)**

- ㉠** (1)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유다 두목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火爐) 같게 하며 곡식 단 사이에 햇불 같게 하리라고 하셨다.
- (2) 이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은 결국 유다 백성으로 하여금 유다와 예루살렘을 둘러싼 모든 국민을 불태우고 자기들의 본토인 예루살렘에 거하게 하신다.
- (3)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며(참조, 욥 22:19; 시 147:6; 149:4; 잠 22:4; 사 29:19; 약 4:6), 당신을 대적하는 자를 불로써 징벌하실 것이다(참조, 민 26:10; 계 11:5; 20:9).

9. **㉠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사람을 어디에 거하게 하겠다고 하셨는가? (6절)**

- ㉠** (1)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본 곳, 즉 예루살렘에 거하게 하겠다고 하셨다.
- (2) 여기서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8:3)으로 교회를 상징한다.
- (3) 그러므로 사단의 세력이 넘본다 해도 하나님의 교회는 그분의 보호하심으로 흔들리지 않고 평안할 것이다(참조, 계 21:22-26).

10. **㉠ 하나님께서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7절)**

- ㉠** (1) 그 이유는 다윗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거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
- (2) 사실 예루살렘에는 튼튼한 성벽이 있었고 유다에는 방어할 벽이 없었다.
- (3)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외형적으로 약한 자를 통하여 강한 자들의 교만을 꺾으시기 위해 유다를 구원하시겠다는 것이다(참조, 욥 34:19; 고전 1:27, 28; 고후 8:9; 약 2:5).
- (4)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내세우는 자는 뒤로 처지게 되어(참조, 마 19:30; 막 10:31; 눅 13:30)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

11. **㉠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거민을 보호하시므로 그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8절)**

- ㉠** (1) 하나님의 보호로 그들은 약한 자가 다윗같이 강해지고 다윗 족속은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 (2)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윗이 땅에서 가장 강한 자이며, 하늘에서는 하나님이 가장 강한 분임을 가르치기 위한 말이다.
- (3) 즉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 중에서 존귀한 자가 되었으며(참조, 삼상 17:45-49; 18:7) 하나님의 사자는 백성들이 곤경에 빠졌을 때 그들의 인도자가 되셨다(참조, 출 23:20; 32:34).
- (4) 이처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은 약하고 작은 것 같지만 당신의 사자의 보호로 강한 자가 된다(참조, 사 60:15-22; 63:1-6; 욥 2:11; 살후 1:7-10).

12. **㉠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열국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셨는가? (9절)**

- ㉠** (1)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올라오는 그날에 멸하실 것이라 하셨다.
- (2) 즉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거민을 보호하시기 때문에 대적들이 아무리 강하다 해도 결코 예루살렘을 함락시킬 수 없다.
- (3) 한편 이 말씀은 대적들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시험하지만 반석 위에 선 교회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으로 든든하게 유지될 것을 말한다(참조, 행 9:31; 엡 5:29).
- (4)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를 대적하는 자는 결국 하나님의 손에 파멸될 것이다(참조, 요 12:31; 요일 3:8).

13. **㉠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무엇을 주시겠다고 하셨는가? (10절)**

- (1)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시겠다고 하셨다.
- (2)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죄를 기억나게 하는 은혜의 성령(참조, 히 10:29)을 주심으로 회개케 하신다는 말씀이다.
- (3)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참조, 사 32:15; 젤 39:29; 욥 2:28)을 재확인한 것이다.
- (4) 또한 이 약속이 신약 시대에 성취됨으로(참조, 요 7:39; 행 2:3; 10:44, 45; 19:6, 7)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불변하심을 입증하였다.

14. **㉠**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주시므로 그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10절)

- ㉠** (1) 그들은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받으므로 찌른 바 메시아를 바라보고 그를 위해서 애통하며 통곡하게 될 것이다.
- (2)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의 진정한 회개를 의미(참조, 눅 24:47; 행 5:31)하는 것으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박은 것에 대해 뉘우치는 모습을 예언한 말씀이다(참조, 행 2:36, 37).
- (3) 그런데 이들의 회개하는 모습은 매우 철저하다. 자기 독자를 잃은 슬픔같이 애통하며(렘 6:26; 암 8:10) 장자를 잃은 것처럼 애곡한다.
- (4) 이런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여 회개한 때(삼상 7:5-11)와 니스웨 성 백성들의 회개(은 3:5-8)한 때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를 청종한 사람들(행 2:14-37)에게서 발견할 수 있다.
- (5)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성도들 역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마음을 찢으며(욥 2:13) 중심을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참조, 시 34:18; 51:6).

15. **㉠**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들이 애통해 한 이유는? (10절)

- ㉠** (1) 그들이 애통하는 이유는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보기 때문이다.
- (2) 여기서 ‘그’는 히브리 원문에 ‘나’ 인데 하나님을 가리킨다.
- (3)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서 당할 수치와 모욕을 말씀하신 것이다.
- (4) 즉 이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가리킨다(참조, 요 19:37; 계 1:7).

16. **㉠** 예루살렘에서 있을 큰 애통을 어디에 비유했는가? (11절)

- ㉠** (1) 예루살렘의 애통을 므깃도 끝까지 하다르림몬에 있던 애통에 비유했다.
- (2) 여기서 므깃도 끝까지의 사건은 유다 왕 요시아가 애굽 왕 느고와 전쟁 도중 전사한 것을 말한다(대하 35:20-25).
- (3) 그러므로 요시아 왕을 잃은 백성의 슬픔은 대단히 큰 것이었다(애 4:20).
- (4) 그런데 메시아를 찢어 죽인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책감이 너무 무거우므로 자신들의 회개할 때 통치자를 잃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애통하게 된다.

17. **㉠** 애통하는 사람들이 모습은 어떠한가? (12-14절)

- ㉠** (1) 애통하는 사람들은 온 족속이 따로 하고, 다윗 족속, 나단 족속 그리고 레위 족속과 시므이 족속이 그 아내와 따로 애통해 하며,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애통할 것이다.
- (2) 이 말씀은 회개하는 자들이 몇몇 정해진 것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누구나 다 회개해야 할 것을 의미한다.
- (3) 즉 다윗과 나단은 이스라엘의 왕족(삼하 5:14; 눅 3:31)이며 레위와 시므이는 제사장족(민 3:17-21)이다.
- (4) 그리고 온 땅 각 족속과 남은 족속은 평민과 이방 민족을 포함하는 말이다.
- (5) 따라서 이 말씀은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함을 보여 주는데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므로(롬 3:23) 당연히 죽어야 할 자(롬 6:23) 들이기 때문이다.

18. ㉠ 왜 사람들은 따로 애몽해야 하는가? (12-14절)

- ㉠ (1) 신앙은 개인적인 것이므로 개개인이 회개하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해야만 구원을 얻기 때문이다(참조, 막 16:16; 행 2:38; 8:12; 22:16).
- (2) 그러므로 우리가 공공 예배에 참석한다고 해도 개인적인 헌신과 회개가 있어야 하며 다른 사람이 자신을 위하여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개인적 신앙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참조, 마 10:32; 롬 10:9, 10; 요일 2:23).

19. ㉠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왕족은 누구인가? (12절)

- ㉠ (1) 이스라엘의 왕족은 다윗 족속과 나단 족속(삼하 5:14; 눅 3:31)이다.
- (2)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왕권을 베나민 지파의 사울에게 주셨는데(참조, 삼상 9:1, 2; 10:1) 이스라엘의 첫 왕인 사울이 하나님께 범죄하므로(삼상 15:1-9) 왕권이 유다 지파로 옮겨졌다(참조, 삼상 15:28; 16:1-13).
- (3) 그러나 왕권의 이동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참된 왕권이 하나님께 있음(참조, 사 44:6; 마 16:28; 눅 23:42)을 잊은 것이었다.
- (4)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그들에게 왕을 허락치 않으셨으나(삼상 8:18) 백성의 마음이 악하므로 허락하셨다(삼상 8:7, 19-22). 결국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왕으로 선택한 그 결과가 나쁘다는 것을 보여 주셨다(참조, 삼상 31:1-4).
- (5) 한편 본질에 왕족의 회개하는 모습이 보이는 것은 그들이 왕족이라는 특권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가 무상으로 주어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께 회개를 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참조, 대하 12:6; 32:26; 은 3:6).

## 연구자료

지진. 지중해 지방의 지각이 근본적으로 압축되어 안정된 지역  
 임에 비해, 홍해로부터 동아프리카 열곡(裂谷)에 이르는 지역은  
 홍해의 남단에서 만나는 세 지각층이 신장(伸張)되는 불안정한 지  
 역이다. 이와 같이 지층이 서로 상대적으로, 또는 따로따로 움직  
 이므로(지금도 움직임) 인해 생기는 단층 현상과 긴장된 에너지  
 의 방출은 상당한 지진 활동을 일으켰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대부분 성지(聖地)의 남동쪽에서 집중적으로 일어난다. 14:5에 언  
 급된 웃시야 왕 27년에 발생한 지진은 이러한 지각 변동으로 인  
 한 강진(強震)이었음에 틀림없다. 한편 성경에서는 지진이 하나  
 님의 자기 표현으로 자주 묘사되고 있다(참조, 시 68:7, 8; 사 24:18  
 -21; 학 2:6, 7; 마 28:2 등).

# 제 13 장 이스라엘을 연단하시는 하나님

단락구분 2: 다윗 족속과 예루살렘의 죄를 씻다 / 2: 6 거짓 선지자의 마지막 때에 온다 / 7: 9 남은 하나님의 백성이 연단된다

1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2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사귀를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3 사람이 오히려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남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와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남은 부모가 그 예언할 때에 칼로 찌르리라

4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이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5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6 혹은 그에게 물기를 네 두 팔 사이에 상처는 어찌이나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7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드리우리라

8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삼분지 이는 멸절하고 삼분지 일은 거기 남으리니

9 내가 그 삼분지 일을 불 가운데 던져 온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와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 1. ㉠ 본장의 중심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라.

- ㉠ (1) 본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씻어 주시고 우상과 거짓 선지자들을 멸망시키시며 그리고 마지막 때에 남은 당신의 백성을 연단하는 분으로 나타나신다.
- (2) 먼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의 죄를 씻으시기 위해 샘을 준비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징벌하신다.
- (3) 그리고 세상 끝 날에 백성의 삼분지 일을 남겨 불 가운데서 연단하심으로 성숙하고 완전한 당신의 백성으로 만드신다.
- (4) 그러므로 금광석에서 순금을 추출키 위해 많은 연단을 하듯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백성들에게 시련을 주셔서(참조, 단 12:10; 롬 5:4) 믿음의 정병(精兵)으로 만드신다.

## 2. ㉠ 하나님께서는 다윗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해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1절)

- ㉠ (1) 그들을 위하여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릴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 (2) 이 샘은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한다(요 6:53-56; 히 13:12; 요일 1:7).
- (3) 그러므로 이 샘에서 흐르는 물은 죄의 더러움을 씻어 주고(참조, 민 8:7; 19:1-9) 많은 사람들의 영적 갈증을 영원히 해결해 준다(요 4:14; 7:38).
- (4) 여기서 '샘'은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보여 준다. 즉 율법에서는 정결케 하는 일(참조, 출 30:18-21)을 위해 항상 물두멍에 물을 채워야 했다.
- (5) 그러나 복음서에는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솟아나는 샘(요 4:14)으로서 단번에 속죄(히 9:12)를 이루셨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는 불필요하게 되었다.
- (6) 그러므로 우리는 영의 눈을 떠서 가까이 흐르는 영생의 물을 발견(참조, 창 21:14-19; 출 17:1-6) 하고 율법의 구속에서 해방되어야 한다(참조, 롬 3:19-31).

3. **㉠**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누구를 위하여 열릴 것인가? (1절)

**㉠** (1)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은 다윗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릴 것이다.

(2) 다윗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이란 이스라엘 온 민족을 가리킨다.

(3)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죄를 범하면 물로써 자신을 정결케 하였는데(민 19장) 그것은 마음까지 씻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몸과 마음을 모두 깨끗이 씻을 수 있는 샘을 준비하셨다. 그 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참조, 요 4:14).

(4) 그러므로 이전에는 그들에게 죄 씻음을 위한 율법의 의식들이 많이 있었으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되고 완전한 속죄가 가능하게 되었다(참조, 사 43:25; 롬 6:10; 히 9:26).

(5) 따라서 영생의 샘인 그리스도(요 6:68) 앞으로 나오는 자는 누구든지 죄사함의 은총과 구원의 기쁨을 소유할 수 있다(요 6:47).

4. **㉠** 하나님께서 우상과 거짓 선지자 그리고 사귀(邪鬼)에 대해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2절)

**㉠** (1) 하나님께서는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하시고 거짓 선지자와 사귀를 이 땅에서 떠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2)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는 우상과 거짓 선지자에 대한 하나님의 최후 경고이다.

(3)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경고를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전이나, 후에도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를 행하며(참조, 스 9:11) 거짓 선지자를 방치해 두었기 때문이다(느 6:10).

(4) 즉 그들은 겉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같았으나 속으로는 가증한 이방 신을 따름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순수성을 더럽혔다.

(5) 이러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먼저 회개의 영을 주시고(12:10) 당신을 따르도록 사랑을 베푸셨다. 그리고 그들 중에서 우상과 거짓 선지자를 없게 하신다(참조, 호 2:17)고 하셨다.

(6) 그러므로 이제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우상과 거짓 선지자의 울무에서 벗어나 마음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모하고 경외해야 한다(참조, 마 22:37).

5. **㉠**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사귀(邪鬼)의 정체는 무엇인가? (2절)

**㉠** (1) 그들은 타락한 영, 즉 범죄한 천사들(벧후 2:4)이다.

(2) 그들은 인간 내부에서 활동하여 거짓말을 하게 하며(참조, 왕상 22:22, 23) 결코 외적인 것에 지배되지 않는다(참조, 살후 2:9-12; 담전 4:2; 계 16:14).

(3) 그런데 거짓 선지자와 사귀는 자는 그들과 서로 연합하여 항상 악한 일을 피한다(참조, 왕상 22:1-23). 그러므로 그들은 언제나 성령에 대적하는 자가 된다(참조, 살후 2:4).

6. **㉠** 거짓 예언을 하는 거짓 선지자의 최후는 어떻게 될 것인가? (3절)

**㉠** (1) 거짓 선지자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憑藉)하여 예언할 때에 그의 부모가 그를 칼로 찌를 것이다.

(2)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 예언을 함으로 백성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자들을 방치하지 않고 그들의 가까운 가족을 통해서라도 심판하신다.

(3)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의 율법에서 거짓 선지자나 예언자를 죽이라고(신 18:20) 명하셨고 또한 가족 중에 혹시 그런 자들이 나온다 해도 용서하지 말 것을(신 13:6-10) 명하셨다.

(4)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인간의 정을 초월해야 함을 의미하며, 혈육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앞서고 오직 그분께만 참된 예배를 드려야 함(참조, 요 4:24)을 알려 준다.

7. **㉠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리는 날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행동을 취하게 되는가?** (4절)

- ㉠** (1) 그날에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의 이상(異像)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기 위한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다.  
 (2) 이 말씀은 사람들을 속여 현혹하던 자들이 그들의 본색이 드러나므로 부끄러움 당할 것을 가리킨다.  
 (3) 여기서 '털옷'을 입었다는 것은 과거에 선지자들이 그들의 죄를 슬퍼하는 의미에서 털옷을 입었던 것(참조, 왕하 1:8; 마 3:4)을 말한다.  
 (4)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도 이와 같은 복장을 입고 거짓 예언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유혹하였던 것이다.  
 (5)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진실을 밝혀서서(참조, 미 3:7) 그들의 수치를 드러내신다.  
 (6) 따라서 오늘날 교회의 지도자나 국가의 정치가들도 외형만 화려하게 꾸며 권위를 앞세울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의 가면을 벗기시고 수치를 당하게 하실 것이다.

8. **㉠ 거짓 선지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날 그들은 무엇이라고 변명하는가?** (5절)

- ㉠** (1) 그날에 거짓 선지자들은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었노라'고 변명할 것이다.  
 (2) 이것은 죄를 지적받은 사람이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 평범한 농부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말이다(참조, 암 7:14).  
 (3) 여기서 우리는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죄를 남에게 전가(轉嫁)시킨 최초의 인간 아담과 동일한 모습(창 3:10-13)을 발견할 수 있다.  
 (4) 그러나 성도들은 자신의 죄를 숨기거나 변명하기 보다는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야 한다. 그렇게 할 때 그분의 용서와 사랑을 체험할 수 있을 것이다(참조, 사 55:7; 렘 4:32; 골 3:13).

9. **㉠ 선지자가 아니고 농부라고 변명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 거짓이라는 증거는 무엇인가?** (6절)

- ㉠** (1) 그 말이 거짓이라는 증거는 그들의 두 팔 사이에 상처가 있는 것이다.  
 (2) 여기서 팔 사이에 있는 상처가 거짓말의 증거가 된 이유는 몸에 상처를 내는 것이 우상 숭배 의식의 일부이기 때문이다(참조, 레 19:28; 신 14:1; 왕상 18:28; 렘 41:5; 47:5).  
 (3) 그리고 또 다른 증거는 상처받은 곳이 '친구의 집'이라고 했는데 '친구'란 호 2:5, 7에 '연애하는 자'라는 의미와 같다. 즉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바뀌어 우상과 연애하였다고 실트하고 만 것이다(참조, 시 115:4).  
 (4) 결국 거짓 선지자들은 스스로 우상 숭배자라는 고백을 했고 수치와 두려움에 쌓이고 말았다.  
 (5)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당신이 미워하시는 거짓 선지자와 우상을 방임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진실을 밝혀시듯이 오늘날도 위선적인 나라의 통치자나 교회의 지도자의 가면을 벗기실 것이다.

10. **㉠ 하나님께서는 무엇에게 당신의 목자를 치라고 명령하셨는가?** (7절)

- ㉠** (1) 하나님께서는 칼을 향하여 당신의 목자를 치라고 명령하셨다.  
 (2) 여기서 칼은 법을 상징한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법을 집행하는 자를 칼 가진 자(참조, 출 5:21; 렘 47:6; 롬 13:4)로 묘사하였기 때문이다.  
 (3) 더우기 고대 세계에서는 최고의 통치권자가 사형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졌었기 때문에 칼은 사법권의 상징으로 채택될 수 있다.

11. **㉠** 하나님께서는 칼을 향하여 누구를 치라고 명령하셨는가? (7절)

- ㉠** (1) 하나님께서는 칼을 향하여 당신의 목자, 즉 당신의 짝된 자를 치라고 명령하셨다.  
 (2) 여기서 ‘내 짝된 자’는 히브리 원어로 <아미티>인데 그것은 ‘나의 친족’ 또는 ‘나의 혈족’이라는 뜻이다.  
 (3) 그러므로 본질에 기록된 목자는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 즉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참조, 마 26:31; 막 14:27; 히 1:1, 2).  
 (4) 그런데 칼로 베임을 당하는 목자에 대한 이 말씀은 당신의 양들을 대신하여 율법의 형벌을 받으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되었다(참조, 마 27:50-54).  
 (5) 따라서 양과 같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시므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되었다(참조, 고후 5:18; 엡 2:14-16).

12. **㉠** 칼이 목자를 칠 때 양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7절)

- ㉠** (1) 칼이 목자를 칠 때 양 떼는 흩어지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도움을 주실 것이다.  
 (2) 여기서 흩어지는 양들은 11:7, 11에서 언급한 가련한 양 떼이다. 즉 선한 목자의 인도를 받은 경건한 무리(언약 백성)를 의미한다(참조, 요 10:4, 5, 14, 15).  
 (3) 이 말씀은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이 도망함으로(막 14:50-52) 이루어졌으며 메시아의 죽으심 때문에 예수를 믿던 모든 무리가 흩어짐으로(요 16:32) 성취되었다.  
 (4)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당신의 손을 드리우신다. 즉 목자를 잃고 불행하게 방황하는 양들을 위해 친히 당신의 자비를 베푸실 것이다.  
 (5)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세상에서 경멸당할 때 그들에게 도움의 손을 펴시고 구원에 대한 소망을 주신다(참조, 마 5:10-12).

13. **㉠** 하나님께서는 온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남을 것이라고 하셨는가? (8절)

- ㉠** (1) 하나님께서 온 땅에서 삼분지 이는 멸절(滅絶)되고 삼분지 일만 남을 것이라 하셨다.  
 (2) 이 말씀은 목자가 칼에 맞을 때 양들이 흩어지지만 하나님께서 작은 자들 위에 당신의 손을 드리우셔서(7절) 목자를 청종하던 양 떼(11:11), 즉 삼분지 일은 구원하실 것이라는 의미이다.  
 (3) 그런데 ‘온 땅’이란 이스라엘 뿐 아니라 이방을 포함한 온 세상을 가리킨다(12:12).  
 (4) 그리고 ‘삼분지 이’는 히브리어로 <피 세나임>이란 말인데 신 21:17에서는 장자의 두 몫으로, 왕하 2:9에서는 갑절이란 의미로 쓰여졌다.  
 (5) 그러므로 ‘삼분지 이’란 말은 다수의 많은 사람을 의미하며, 또한 스스로 신자라고 말하는 많은 사람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참조, 마 7:21).  
 (6)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신자처럼 보이는 많은 위선자들을 멸하시고 경건한 자 삼분지 일만 구원하실 것이다(참조, 계 7:1-4).

14. **㉠**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삼분지 일을 어떻게 연단시키신다고 하셨는가? (9절)

- ㉠** (1)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 가운데 던져 온같이 연단하고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고 하셨다.  
 (2) 하나님께서 이러한 연단을 주신 이유는 그들을 하나님의 정결한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였다(말 3:3).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역경이라는 불로 그들을 시험하신 것이다.  
 (3) 한편 ‘불’로 표현된 시련은 성경에서 자주 언급된다(참조, 사 48:10; 렘 9:7; 말 3:3; 벧전 1:7; 4:12; 계 3:18).  
 (4) 그러므로 성도들은 까닭없이 핍박당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라는 증거이므로 기뻐해야 한다. 결국 그런 핍박의 결과로 우리는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마 5:9, 10).

15. **㉠** 남은 자 삼분지 일이 연단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하신다고 하셨는가? (9절)



- Ⓐ (1)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이 연단 중에 부르짖을 때 그들을 당신의 백성이라고 응답하시고 또한 그들은 하나님을 자기들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리라고 하셨다.
- (2) 이것은 연단의 결과 얻어지는 유익을 설명하는 말씀인데 그 유익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서로 신뢰하며 교통하게 되는 것이다.
- (3)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맺은 약속들 중에 최고(最高)의 권위를 갖는다(참조, 8:8; 레 26:12; 렘 24:7; 30:22; 호 2:23)는 것을 가르쳐 준다.
- (4)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심이 아니면 우리는 그분께 나아갈 수 없을 뿐 아니라 '당신은 나의 하나님' 이라고 말할 수도 없다(참조, 롬 8:15, 16; 갈 4:6).
- (5) 그러므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을 성도들은 그분의 택하심에 감사하며 연단 중에도 하나님을 의뢰하여 그분과 더 깊고 긴밀한 교제를 나누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더 좋은 것으로 위로해 주실 것이다(참조, 히 12:11).

### 화보자료

요단 강에서 몸을 씻고 있는 나아만. 앵겔브레히트(1468-1553)의 그림이다. 자신의 문둥병을 고치기 위하여 엘리사에게 찾아갔다가 그의 명을 전해 듣고 요단 강으로 가 몸을 씻은 후 문둥병을 고친 장면이다(왕하 5:1-14).



본장에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예고되어 있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아보시는 날에 그들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을 예비하시리라는 것이다(1절). 그런데 나아만의 병을 고친 효험이 요단 강을 자체에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의 말을 듣고 순종한 믿음에서 나온 것이었듯이 여기서 말하는 샘의 의미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죄가 정결케 될 것을 뜻한다(참조, 요 9:7).

# 제 14 장 메시아께서 예루살렘을 통치하시리라

단락구분 1-2 예루살렘이 원수들에게 침략당하다 / 3-7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싸우시다 / 8-11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솟아나다 / 12-15 원수들이 징벌받다 / 16-21 예루살렘이 거룩해지다

1 여호와와 그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네 재물이 약탈되어 너의 중에서 나누이리라

2 내가 열국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옥을 보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쳐지지 아니 하리라

3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열국을 치시되 이왕 전쟁 날에 싸운 것같이 하시리라

4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환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5 그 산골짜기는 아셀까지 미칠지라 너희가 그의 산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웃시아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

6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자들이 떠날 것이라

7 여호와와 그의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8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9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며

10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계바에서 예루살렘 남편 립몬까지 미칠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쾰문 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도 하나될 땅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찻는 곳까지라

11 사람이 그 가운데 거하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安然히 서리로다

12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썩을 때에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13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로 크게 요란케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14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에 사면에 있는 열국의 보화 곧 금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15 또 말과 노새와 약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육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16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송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17 천하 만국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송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18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창일함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열국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19 애굽 사람이나 열국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의 받을 벌이 이러하니라

20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와 전에 모든 술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21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술이 만군의 여호와와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드리는 자가 와서 이 술을 취하여 그 가운데 고기를 삼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와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 시 있지 아니하리라

## 1. ㉠ 본장의 내용은 무엇인가?

㉠ (1) 본장에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친히 싸우시는 모습과 대적들을 징벌하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으며,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솟아나 온 땅에 흐르고 남은 자들이 거룩

해진 예루살렘에 올라와 절기를 지키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다.

- (2) 지금까지는(1-13장) 이스라엘의 범죄와 하나님의 징벌 그리고 회복시키시는 사건들이 반복되었다.
- (3) 그러나 본장에는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당신의 백성을 완전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과 예루살렘이 거룩한 도성(都城)이 되므로 남은 자들이 그곳에서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게 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다.
- (4)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하신 백성을 여러 가지 환난으로 연단하신 후 완전한 백성으로 불러 주셔서 당신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신다.

## 2. ㉠ 예루살렘이 약탈당하는 때는 언제인가? (1절)

㉠ (1) 여호와와 날이 이를 때 예루살렘이 약탈당할 것이다.

- (2) 여기서 그날이란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의 교만을 꺾으시고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징하신 날(사 2:12-17)을 말한다.
- (3) 그러므로 그날은 교만한 자에게는 두려운 날(말 4:5)이지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에게는 기쁨과 자랑의 날(고후 1:14)이 될 것이다.
- (4) 그러나 우리는 그날을 알 수 없다(마 25:13; 살전 5:2; 벴후 3:10). 따라서 우리는 깨어 그날을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살전 5:1-6).

## 3. ㉠ 여호와와 날이 이르면 예루살렘은 어떻게 될 것인가? (1, 2절)

㉠ (1) 여호와와 날이 이르면 예루살렘은 열국들에 의해 함락되고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고 성읍 백성의 절반이 사로잡혀 갈 것이다.

- (2) 이 말씀은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점령(B. C. 586, 렘 39:2) 할 때의 상황(사 13:6-16)을 연상시켜 준다.
- (3) 이것은 이스라엘이 교만하여(참조, 9:8, 9; 호 5:5; 7:10) 하나님의 재앙이 심하게 임할 것을 경고한 말씀이다.
- (4) 따라서 이런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교만한 이스라엘에게 임했음을 알고 우리는 그분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해야 한다(벴전 5:6).

## 4. ㉠ 여호와와 날이 임할 때 예루살렘에 남은 자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2절)

㉠ (1) 여호와와 날에 성읍 백성 절반이 사로잡혀 가고 절반은 남는데,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쳐지지 아니할 것이다.

- (2) 여기서 남은 백성이란 13:8에 기록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삼분지 일이나 사 6:13에 기록된 남은 그루터기와 같은 의미이다.
- (3)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은 바알 숭배자의 손에서 7,000명이 구원받은 것(왕상 19:18) 처럼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안전할 것이다.

## 5. ㉠ 예루살렘이 약탈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을 어떻게 도우신다고 하셨는가? (3절)

㉠ (1)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신 것처럼 예루살렘을 약탈한 열국을 치심으로 그들을 도우신다고 하셨다.

- (2)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사 여러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일들(참조, 출 14:14; 수 10:6-14; 23:3; 사 4:15)을 기억하게 한다.
- (3) 즉 선지자 스가랴는 과거에 당신의 백성을 위해 일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실 뿐 아니라 그들의 대적과 원수가 되셔서(출 23:22) 싸우시므로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을 확신하였다.
- (4) 따라서 성도들은 자신을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참평안을 누릴 수 있다(참조, 16:33; 요일 4:4; 5:4, 5).

6. **㉠**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싸우는 날 그가 서실 곳은 어디인가? (4절)

- ㉠** (1) 그날에 하나님께서 서실 곳은 예루살렘의 동편에 위치한 감람산이다.  
 (2) 이 산은 팔레스틴 중부에서 남부로 이어지는 산맥으로 약 4km의 석회암으로 된 민등산인데 가장 높은 봉우리는 예루살렘의 동북쪽에 위치한 해발 814m의 스코푸스 산(Mt. Scopus)이다.  
 (3) 그런데 구약에서는 이 감람산이 삼하 15:30에 최초로 언급되어 있는데 솔로몬이 우상들의 산당을 세움으로(왕상 11:7) 후에 멸망산(왕하 23:13)으로 불려졌다.  
 (4) 또한 이 산은 신약 시대에 예수님의 활동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데 주님의 승리와 입성(막 11:1; 눅 19:29), 잡히시기 전날 밤의 기도(마 26:36)와 유다의 배반(마 26:47-50) 등의 사건이 이곳에서 전개되었다.

7. **㉠** 하나님께서 감람산 위에 서실 때 그 산은 어떻게 될 것인가? (4, 5절)

- ㉠** (1) 하나님께서 그 산에 서실 때 산이 갈라져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겨지므로 동서로 골짜기가 생길 것이며 그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 것이다.  
 (2) 이것은 여호와와 그의 발이 그 산을 밟으실 때 지진이 발생할 것(참조, 시 68:8; 나 1:5)을 표현한 말씀이다. 그러나 실제로 이런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다.  
 (3) 단지 이 말씀은 비유적으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기 위한 것이다.  
 (4) 즉 가시적(可視的)인 형상으로 당신을 계시하시므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보시려는 의도를 나타낸 것이다.  
 (5) 그러므로 우리는 불꽃 같은 눈(계 1:14)으로 감찰하시며 즐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시 121:1-4)의 도우심으로 안전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8. **㉠** 하나님께서 감람산에 서시고 산이 갈라질 때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5절)

- ㉠** (1) 그때에 남은 자들은 산골짜기로 도망하는데 유다 왕 웃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같이 할 것이다.  
 (2) 여기서 말하는 웃시야 때의 지진(암 1:1)은 그의 재위 27년째 되던 해에 일어났다. 그 사건은 유다 백성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3) 한편 감람산은 예루살렘에서 도망하는 자에게 큰 장애물이었다(참조, 삼하 15:30). 따라서 산이 갈라졌다는 것은 쉽게 도망할 길이 열린 것을 말한다.  
 (4)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을 신속하게 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는데 소돔 성에서 의인 롯을 구하시듯(창 19장) 당신의 백성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9. **㉠** 하나님께서는 감람산이 갈라지는 날에 남은 자에게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셨는가? (5절)

- ㉠** (1) 그날에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거룩한 자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다.  
 (2) 여기서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택하신 성도(신 33:2, 3) 혹은 천사(마 25:31)를 의미한다.  
 (3) 그러므로 남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분의 구원을 감사하며 찬송으로 그분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참조, 계 7:9-12).

10. **㉠** 감람산이 갈라지는 날 세상과 광명한 자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6절)

- ㉠** (1) 그날에 세상에는 빛이 없을 것이며 광명한 자들도 떠나게 될 것이다.  
 (2) 여기서 '빛'과 '광명한 자'는 사람들이 귀중하게 여기는 것, 즉 권력이나 애정의 대상을 말한다.  
 (3) 그런데 이런 빛들이 가치를 잃고, 마지막 때에 사람들의 마음도 어두워짐으로 세상이 혼란할 것이다(참조, 마 24:29; 행 2:19, 20).

(4) 그러므로 이 말씀은 세상 끝 날 주님이 재림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영적 어두움(참조, 사 9:2; 미 3:6; 마 6:23)에 빠질 것을 암시한다.

11. **㉠ 여호와와의 아시는 한 날이란 어떤 날을 말하는가? (7절)**

- ㉠** (1) 그날은 낮도, 밤도 아니지만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을 것이다.  
 (2) 이것은 어두움의 상태, 즉 환난의 때가 짝을 것을 말한다(참조, 단 7:25; 12:7; 계 12:14).  
 (3) 왜냐하면 그날이 하나님의 지배하에 있기 때문이다.  
 (4)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하신 자들을 환난의 어두움 속에 오래 방치하지 않고 곧 다가오는 밝은 곳(참조, 계 21:1, 10)으로 인도하심을 알 수 있다.

12. **㉠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은 어떤 날을 의미하는가? (7절)**

- ㉠** (1) 그날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을 의미한다.  
 (2) 그러나 우리는 그날을 알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마 24:36).  
 (3)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미리 그날을 맞이할 준비를 하도록 권면하신다(참조, 마 24:40-51; 25:1-13).

13. **㉠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솟아나서 어디로 흐를 것인가? (8절)**

- ㉠** (1)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솟아나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르는데 여름이나 겨울에도 끊임없이 흐를 것이다.  
 (2)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영적인 축복을 약속하신 것이다(참조, 사 55:1; 렘 2:13; 겔 47:1; 요 4:10).  
 (3) 즉 영적 예루살렘인 교회(참조, 12:5; 계 21:9, 10)에서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성도들에게 보편적이며 또한 영원히 전달될 것을 말한다.  
 (4) 한편 하나님의 축복은 물로써 많이 비유되고(사 44:3; 겔 36:25) 물은 성령으로 비유(겔 47:1-12) 되기도 하였다.  
 (5) 따라서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솟아난다는 것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온 땅에 풍성하게 임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전달될 것을 가리킨다.

14. **㉠ 여호와께서는 온 천하에서 무엇이 되실 것이라고 하셨는가? (9절)**

- ㉠** (1) 하나님께서는 친히 온 천하의 왕이 되실 것이라고 하셨다.  
 (2) 이 말씀은 앞절에 기록된 축복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밝혀 주고 있다.  
 (3) 즉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인간의 통치자를 구했을 때(삼상 8:4, 5)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는 단절되고 말았다(참조, 삼상 8:7).  
 (4)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보다 인간의 힘을 의지하여(참조, 왕하 18:21, 24) 이방 열국의 도움을 받으려 했으나 결국 그들의 손에 망하고 말았다(왕하 25:8; 렘 39:2).  
 (5)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축복의 길로 인도할 지도자가 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다(참조, 시 47:7; 말 1:14).  
 (6) 그러므로 오늘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통치권에 복종할 때 약속된 생수(8절)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

15. **㉠ 하나님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는 그날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9절)**

- ㉠** (1) 그날에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시며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다.  
 (2) 이것은 하나님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는 날 유일한 신(神), 즉 유일한 하나님(출 15:11; 삼하 7:22; 사 43:10; 고전 8:4; 엡 4:6) 이십이 증명된다는 말이다.  
 (3) 그러므로 성도들은 유일한 구원의 길이며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께만 영광과 찬양을 돌려야 한다.

16. **㉠ 하나님께서 천하를 통치하시는 날 예루살렘과 온 땅은 어떻게 될 것인가? (10절)**

- ㉠** (1) 그날에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며 계바에서 립몬까지 미칠 것이고 예루살렘은 높이 들

려 그 본처에 있는 것인데 베나민 문에서부터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 덮을 것이다.

- (2)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천하를 통치하시는 날 모든 산과 골짜기가 평지처럼 되는데(사 40:3-5) 넓은 평지인 아라바(신 1:1; 겔 47:8; 암 6:14)를 가리킨다.
- (3) 그리고 온 땅이 평지처럼 되므로 하나님의 전은 열국 위에 우뚝 솟아 모든 백성이 그곳에 모이게 될 것(사 2:2)을 말한다.
- (4)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 경계를 정한 것은 그 통치가 제한적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확대될 것을 가리킨다.

17. **㉠**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는 날 예루살렘과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11절)

- ㉠** (1) 그날에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거하며 다시는 그들에게 저주가 없을 것이고 예루살렘은 안연(晏然)히 서게 될 것이다.
- (2) 이 말씀은 예루살렘이 하나님에 의해 회복되므로 다시 흥왕(興旺)할 것을 말한다.
- (3) 결국 이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이루어질 평화의 상태를 가리킨다(참조, 렘 23:6; 계 22:3).

18. **㉠** 예루살렘을 친 대적들은 하나님의 재앙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12, 13절)

- ㉠** (1) 그들은 하나님의 재앙으로 인해 서 있을 때 그 살이 썩고 그 눈은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피차 손으로 붙잡고 칠 것이다.
- (2)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대적들에게 두 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것은 썩는 것과 서로 미워하는 것이다.
- (3) 그런데 썩는 재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와 대적하는 자에게 내리시는 것(참조, 신 28:20-27)으로 하나님의 보용하심이 개개인에게 임할 것을 말한다.
- (4) 그리고 서로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대적들 가운데 혼란과 분열을 주시므로 혼란 중에 서로 죽이는 것(삿 7:22; 삼상 14:20; 대하 20:23)을 말한다.

19. **㉠** 하나님께서 이방에 재앙을 내리실 때 유다는 어떻게 할 것인가? (14절)

- ㉠** (1)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이방과 대적하여 싸울 것인데 그때에 예루살렘에 열국의 보화 곧 금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다.
- (2) 이 말씀은 이방 열국이 누리던 축복을 모두 빼앗기는 모습을 보여 준다.
- (3) 그들은 과거에 예루살렘을 침공하여 하나님의 전에 있던 기구들을 약탈하고(왕하 24:13; 대하 36:7; 느 1:7)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략하였었다(왕하 21:14; 스 9:7).
- (4) 그러나 이제 그들이 노략하고 짓밟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히려 약탈당하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징벌로 인한 것이다.
- (5) 그러므로 성도들은 비록 대적들에게 짓밟혔다 해도 낙심치 말아야 한다.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회복될 것이고 더 나아가 그들이 잃었던 것을 모두 되찾을 것이기 때문이다.

20. **㉠**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는 날 짐승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15절)

- ㉠** (1) 그날에 말과 노새와 약대와 나귀 그리고 진(陣) 안에 있는 모든 육축에게 동일한 재앙이 미칠 것이다.
- (2) 이 말씀은 죄에 대한 징벌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보여 준다.
- (3) 즉 죄에 대한 하나님의 재앙은 너무나 커서 무죄한 짐승들에게까지 영향이 미친다(참조, 창 3:14-19; 롬 8:22)는 말이다.
- (4) 그러므로 하나님께 범죄한 원수들은 결코 그분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
- (5) 그러나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용서로 안전하며 대적들이 멸망함으로 인하여 기쁨을 소유하게 된다.

21. **㉠** 하나님께 초막절을 지키는 자는 누구인가? (16절)

**㉠** (1) 그들은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들이다.

(2) 여기서 남은 자는 하나님께서 징벌하실 때 다 죽이지 않고 남겨 둔 자를 말한다.

(3)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징벌을 피하게 되므로 스스로 겸손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된 것이다.

(4) 이것은 메시아 시대에 많은 이방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게 되는 모습을 설명한다.

22. **㉠** 예루살렘을 치러 왔다가 남은 자들은 어떤 절기를 지켰는가? (16절)

**㉠** (1)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앞에 초막절을 지켰다.

(2) 한편 그들이 지킨 초막절은 유월절(출 12:1-28; 레 23:5; 민 28:16; 신 16:1-8)과 칠칠절(레 23:15-22; 민 28:26-31; 신 16:9-12)과 함께 이스라엘에서 지켜진 큰 절기 중 하나였다.

(3) 이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방황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신 것을 감사하여 지키기 시작했다. 또한 이것은 토지 소산을 거둔 후 지켜졌다(레 23:39).

(4) 그리고 이 절기는 7일 동안 중앙 성소 예루살렘에서 지켜졌는데 곡식을 거두는 절기이지만 제물은 반드시 가축으로 드려야 했다(민 29:12-39).

(5) 마지막으로 이 절기는 예언적 의미로 그리스도의 천년 왕국 통치에 대한 번영과 평화를 나타낸다(참조, 사 2:2-4; 56:6-8).

23. **㉠** 초막절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벌(罰)은 어떤 것인가? (17-19절)

**㉠** (1) 하나님께 초막절을 지키지 않는 자는 당신을 숭배하지 않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2) 또한 애굽이 초막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않으면 창일(漲溢)함이 없을 것이고 열국들도 마찬가지로의 벌을 받게 될 것이다.

(3) 이것은 근동 사람들에게 물이 매우 중요하므로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을 때 엘리야 시대에 가뭄이 임했듯이(참조, 왕하 17:1; 18:1) 또한 그들에게도 가뭄이 임할 것을 경고하신 말씀이다.

(4) 그러나 이것은 16절에 모두 경배한다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장차 올 심판의 때를 나타내는 의미이다(참조, 사 60:12).

24. **㉠** 열국이 초막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오는 날 어떤 일이 생기게 되는가? (20절)

**㉠** (1)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기록될 것이고 하나님 전(殿)에 있는 술도 제단에서 쓰이는 주발과 같이 기록될 것이다.

(2) 이 말씀은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성결의 범위가 확대될 것과 그로 인하여 특별한 성전이 필요 없을 것(참조, 제 21:22)을 알려 준다.

(3)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무가치한 것까지도 똑같이 성별(聖別)될 것의 의미한다.

(4) 한편 '여호와께 성결'이란 말은 대제사장들이 입는 예복에 부착된 정금 패(牌)에 쓰여져 있었다(출 28:31-39).

(5) 그러므로 본절은 영적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구속받아 거룩하게 됨을 의미한다(사 4:3; 히 13:12; 벰전 2:5,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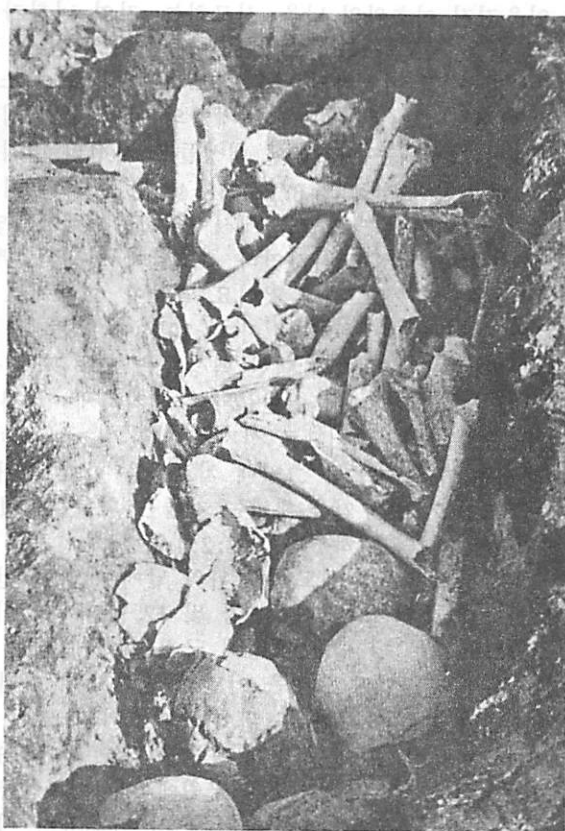
25. **㉠**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술이 하나님의 성물이 되므로 제사드리는 자가 술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21절)

**㉠** (1) 예루살렘과 유다의 술이 성물(聖物)이 되므로 제사드리는 자가 와서 그 술에 고기를 삶은 것이다.

- (2) 이것은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 기록해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가 많아지며 그들이 모두 제사장과 같이 될 것을 의미한다(사 66:20, 21).
- (3) 이와 같은 말씀이 성취되는 모습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영광스런 천국에 들어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과 거짓 종들은 성밖에 쫓겨 나 슬피우는 모습으로 묘사되어진다(참조, 계 21:22-27; 22:15).

### 화보자료

사람의 뼈. 안디옥의 고대 묘지에서 발견된 사람의 두개골과 팔, 다리 뼈이다.



본장에는 '여호와의 날'에 대한 스가랴의 예고가 기록되어 있다. 그 날은 심판의 날로서 '예루살렘을 진 모든 백성들'에게 '살이 썩으며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혀가 입 속에서 썩어' (12절) 뼈만 남게 되는 사망의 형벌이 가해진다. 그러나 이 같은 하나님의 진노 중에서도 '예루살렘', 즉 하나님의 택한 자녀인 성도들은 그 생명을 온전히 보존하게 된다(2절).



## 연구자료

### 선지서에 언급된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1절; 솔 2:1; 암 5:18; 습 1:7) 또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말 4:5)이란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진노의 팔을 드시는 날을 의미한다. 이날은 곧 세상 모든 사람이 자신의 죄악을 심판받는 날일 뿐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온 세계가 새롭게 회복되는 날이다. 이 같은 날에 대한 언급은 선지서에서 고루 찾아 볼 수 있는데 그중 아모스의 증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두움이요 빛이 아니라’(암 5:18). 이 말은 곧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그날은 어두움과 재앙의 날이 될 것임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그날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의 범죄에 대한 징계를 받기 때문이다(참조, 암 6:1-11; 8:4-10).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선지자 이사야는 그날을 메시아의 도래(到來) 및 온 세상이 평화를 누리는 날로 묘사하였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사 11:10). 이 말은 곧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중에서도 그의 택한 백성들은 모두 구원을 얻고 하나님과 함께 그의 나라에서 안연(晏然)히 거하게 될 사실(참조, 계 21:1-8)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선지자 말라기는 예언하기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자들은 그날에 치료함을 받고 즐거움을 누릴 것이지만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들은 피할 수 없는 진노와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하였다(말 3:2; 4:1, 2).

이상과 같은 선지자들 외에도 여호와의 날에 대하여 언급한 자들은 많이 있는데 특히 스가랴는 본장 및 12, 13장에서 이날을 예루살렘이 황폐케 되는 날, 남은 백성이 구원을 얻게 되는 날로 언급하고 있다(1-11절). 한편 요엘은 이날과 관련지워 먼저 메뚜기 재앙(솔 1:15; 2:1, 2)을 묘사한 후 뒤이어 여호와의 날이 되면 달이 캄캄해지며 별들이 그 빛을 잃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였다(솔 3:14, 15). 그러나 그도 역시 성도들의 구원에 대하여 언급하는 것을 잊지 않고 있으니 솔 2:32에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임이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라고 기록되어 있다.

한편 이러한 여호와의 날에 대한 언급은 신약에도 나오는데 거기에서는 이날이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관지어져 나타난다(마 24, 25장; 벰후 3장).